



## 목 차

발간사	—	2
<b>첫번째 이야기</b>		
기독교여성주의 성경 읽기란?	—	5
<b>두번째 이야기</b>		
여성, ‘창조질서’의 키워드	—	29
<b>세번째 이야기</b>		
여성, ‘언약’의 주인공들	—	55
<b>네번째 이야기</b>		
성서 속 여성 리더십의 모형	—	77
- 질문하는 여성들		
<b>다섯번째 이야기</b>		
예수와 함께 한 여성들	—	103
<b>여섯번째 이야기</b>		
초대 교회를 일으킨 여성들	—	127
<b>일곱번째 이야기</b>		
성서, 교회 그리고 섹슈얼리티	—	151
글쓴이들	—	173
더 읽어 볼 책	—	176

## ■ 발 간 사 ■

『하나님의 형상 여성, 우리-기독교여성주의 성경 읽기』를 펴내며

올해도 우리는 이 땅에 평화와 정의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 예수의 탄생을 맞이합니다. 평화와 정의의 아기 예수 나신 날을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 형상으로 똑같이 지음 받은 우리 여성들의 한숨, 고통과 분노의 목소리가 도처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2천여 년 전, 여성의 몸을 통해 가장 낮은 이 땅에 오신 예수, 창녀로 불린 여인을 사랑으로 감싸 안으시고, 우물가의 비천한 여성을 대화의 주인으로 세우신 예수께서 오늘날 이 땅의 여성들을 보시면 어떻게 하실까 상상해봅니다.

여성들은 오랫동안 사회 곳곳에서,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잠잠할 것”을 강요당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똑같이 지음 받은 여성들은 오로지 성서 속의 모든 이야기들을 자신의 것으로만 강변하며 부당한 것에도 침묵을 강요당하는 가부장제의 낡은 관습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일상의 공간만이 아니라 사이버 공간 곳곳에서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폭행당하고 죽임당하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순종할 능력이 아니라 남성들과 똑같이 말하고 질문할 능력, 그리고 사랑할 능력을 주셨다고 굳게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기쁨과 당당함을 잊거나 잃어버리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이 낡은 현실을 변화시킬 힘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서 속 수많은 여성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 여성들은 하나님 주신 힘을 믿고 그 어떠한 고난과 억압에도 굴하지 않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예수께서 가시에 찔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목숨을 거두고 마침내 부활할 때까지 그 모든 순간을 최후까지 지켜내었고, 초대교회의 산증인이 되었습니다.

상한 갈대를 함부로 꺾지 않으시고 말 못하는 사람의 입을 트이게 하시며 억울한 이들을 끌어안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때, 『하나님의 형상 여성, 우리』를 펴내는 의미가 더욱 각별하게 느껴집니다. 이번에 펴내는 『하나님의 형상 여성, 우리』는 여전히 성차별과 혐오의 갑갑한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주신 본연의 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책이 될 것입니다.

이 교재를 쓰시기 위해 한국YWCA연합회 전 실행위원으로서 멀리 인도네시아에서 밤낮으로 고민하고 글을 써주셨고 인도네시아 압디엘신학대학에서 가르치고 계신 김기동 교수님, YWCA 설립자 김필레 선생님의 삶을 연구해주시고 특히 구약성서 여성들의 이야기를 새롭게 읽도록 해주신 대만 장영대학교 박혜경 교수님, 집필뿐만 아니라 교재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YWCA 활동가들과 연구하고 토론 과정까지 함께 해주신 이화여자대학교의 송진순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책을 가지고 YWCA 활동가들과 회원들이 함께 둘러 모여 성서 속 하나님 형상으로 지은 우리의 모습을 확인하고, 왜곡되고 가려진 여성들의 모습을 우리 여성의 눈으로 다시 새롭게 만나며, 우리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힘을 재발견하는 모습을 기쁘게 상상해 봅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 기독교여성들이 평화와 정의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는 기쁨과 평화를 가득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국YWCA연합회 회장  
한 영 수



## 기독교여성주의 성경 읽기란?

### 생각 열기

먼저 다음의 질문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라고 하지요. 예배마다 그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사랑, 순종, 인내, 자비, 겸손, 용서, 온유, 긍휼, 지혜, 효도, 절제, 양선, 정직, 화평, 헌신, 기쁨, 감사, 구제, 섬김, 충성’

- 1) 위의 단어들 중에서 ‘여성도로서’ 가장 많이 들었던 신앙의 덕목은 무엇입니까? 그 덕목들의 해석과 실행에 모두 동의하십니까? 불편한 적은 없습니까?
- 2) 통계상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누리는 경제적 보상과 정치적 권한은 남성에게 비해 65%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당함을 혹시 개인의 문제로만 여기고 그저 “기도하라”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 3) 삼일에 한 번꼴로 데이트 폭력을 당한 여성이 죽거나 성폭

력을 당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 성폭력 사건이 비밀비재하다는 뉴스를 접하는데 혹시 교회에서 여전히 ‘이성 교제’에 관해 말할 때 ‘혼전순결’ 내지 ‘조신한 몸가짐’만 강조하고 있진 않습니까?

- 4) 어느 집단이나 개인을 지칭할 때 여성인 경우에 한하여 ‘여’ 단어를 붙이는 것을 종종 봅니다. 목사 vs 여목사, 성도 vs 여성도, 교수 vs 여교수, 배우 vs 여배우 등등. 이러한 호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성의 경우, 왜 ‘남’을 붙이지 않을까요?

함께 나누는 대화를 바탕으로 우선 이제 시작하려는 ‘기독교여성주의 성경 읽기’에 대한 기대를 요약해 보십시오. 기독교여성주의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 상상하는 대로 정의를 내려 보십시오.

## 왜 하필 여성의 이야기를 읽으려 할까요?

이 교재는 성경에 나오는 ‘여성의 이야기’를 함께 읽고자 합니다. 왜 하필 여성의 이야기를 읽으려 할까요?

에스더서는 페르시아에 사로잡힌 포로였지만 후에 왕후에 올라 유대민족을 구한 에스더에 대한 책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에스더와 대비되는 여성이 있습니다. 에스더에 앞서 왕후였던 와스디입니다. 그는 남편인 아하수어로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폐위됩니다. 왕이 베푼 백성들과의 잔치 자리에 왕후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자 의관정제하고 나오라 했는데 거부한 것입니다. 와스디는 백성들 앞에서 남편을 망신을 준 반역죄인이 되었습니다. 아하수어로 왕은 왕후 와스디를 쫓아

내면서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는 내용을 담은 왕의 조서까지 전국에 반포합니다.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여야 하며(에 1:22b)

‘주관한다’는 말은 지배한다,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남편이 가정에서는 왕과 같은 위치와 권력을 갖는다는 것이지요. 가부장제(Patriarchy)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버지(파테르)’와 ‘다스리다(아르코)’가 합쳐진 것으로 아버지가 가정을 지배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이 조서야말로 가부장제의 법제화를 명령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남성이 여성을 다스린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말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성경의 첫 인간 이야기에서 여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을 받습니다. 그 벌의 마지막 내용이 이렇습니다.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창 3:16b)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는 가부장 제도는 ‘태초’에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에스더서에서는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던 때에 자신의 제국 전체에 선포한 칙령인데, 여기서는 더 나아가 하나님이 처음부터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역사가 시작하면서 원래 그랬다는 것이지요.

또 신약성경에서 바울은 각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이를 다시 확증하는 듯한 말을 합니다.

아내이신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는 것같이,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엡 5:22)

아내가 되신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 안에서 합당한 일입니다.(골 3:18)

앞선 구약성경에서 인용한 두 진술이 남편의 가부장적 권위에 대해 말하고 있다면, 바울서신에서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것 같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은 권위를 지시합니다. 문자적으로 본다면 말입니다.

사실 유감스럽게도 성경이 가부장적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여성을 차별하고 경시하며 억압하거나 배제하는 사건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여성으로서 성경을 읽으면 불편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떤 서구 여성신학자는 이렇게 성경에 들어 있는 성차별적 시각이 결국 기독교의 근본이 되었다고 비판하면서 더 이상 기독교에서는 여성을 위한 희망을 찾을 수 없다고 기독교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과연 이 여성신학자의 말처럼 성경의 성차별적 사고는 너무나 견고해서 전혀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없다고 봐야 할까요?

기독교 신앙 안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든 성경은 교회 안에서 절대적 권위를 지닙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은 기록된 책, 그 문자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선포된 말씀에서 비롯합니다. 성경에서 처음부터 그 말씀을 듣는 청중 없이 시간을 초월하는 절대적

규범으로 주어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 성경은 특정의 시간과 공간 안에서 어떻게 인간들이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였는지, 더 나아가 하나님을 고백하는지에 대해 들려줍니다. 즉 선포된 말씀과 청중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 역동성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2천 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서 기록된 성경이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고 기록한 바로 그 신앙 때문입니다. 그들의 살아있는 신앙이 지금 성경을 읽는 공동체 안에 살아 숨 쉴 때 그 말씀이야말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로 읽힌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공동체에 여성들이 포함되어 있음은 말할 나위 없습니다. 성경은 그러면 옛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으며, 지금 우리, 특히 여성들에게는 또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지금 교회 안에 여성들은 문자적으로 분명한 남성 중심의 성차별적 말씀들을 계속 감수해야 할까요?

피오렌자(Elizabeth Schüssler Fiorenza)라는 성경학자는 성경을 해석하는 두 시각에 대해 말하는데 그 하나는 성경을 신화적 원형(Mythical Architype)으로 읽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역사적 모형(Historical Prototype)으로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신화적 원형을 받아들일 경우 성경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일점일획의 오류도 없이 완결된 절대적 경전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 복종해야 하는 것이 됩니다. 그와 같은 이해는 이미 성경에도 있습니다. 안식일에 등 굽은 여인을 고친 예수님에게 화를 내며 회당장이 말합니다. ‘안식일에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눅 13:14) 그것은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살피지 않고 ‘안식’이라는 문자에만 집착한 전형적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성경을 역사적 모형으로 읽는다는 것은 이와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기록된 문자를 읽어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는 순간 상호 역동성이 일어납니다. 성경의 기록 속에 담겨 있는 과거의 놀라운 ‘사건’이 독자의 삶과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와 현재는 완전히 분리되는 각각의 실체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를 찾고 또한 의미를 부여하는 해석의 순환을 일으킵니다. 과거의 삶은 현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현재의 삶은 과거의 삶을 해석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지요. 일제 식민지 시절, 우리 민족이 출애굽 사건을 하나님의 해방 사건으로 믿음으로써 결국 그 하나님이 우리도 해방시켜 주실 거라고 확신한 것과 같이 말입니다. 성경의 출애굽 사건이 ‘역사적 모형’으로서 우리 민족 해방 운동을 촉발시켰다면, 민족 해방의 경험은 출애굽 사건을 더욱 생생하게 해석하는 지렛대가 됩니다. 그때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성이 성경을 역사적 모형으로 읽을 때, 그 경험과 사건들은 현재 우리 여성들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줄까요? 성경은 여성에게만 순종과 헌신을 강요합니까? 지금 교회에서 번번이 일어나고 있는 성차별적 인식과 삶의 태도들을 성경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느끼나요?

왜 하필 여성들의 이야기를 읽으려고 할까요? 성경이 형성 당시의 가부장적 남성 중심의 언어와 문화를 입고 있다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만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서도 마찬가지로 가부장적 사고들이 무수히 여성들의 위치와 존재를 억압하고 왜곡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그랬다고 하면서 여성에게 주어진 낙인들은 마치 주홍 글씨와 같이 지금도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성들조차 스스로를 타자화하고 죄인 정체성, 복종과 헌신의 메커니즘을 확대 재생산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내면화되어 남성 지도력에 의존하는 관계를 ‘창조의 질서’라고 여깁니다. 또한 부차적 역할을 수동적으로 행하는 것이 ‘현숙한 여인’의 미덕이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명예남성’이 되어 여성들 사이에 더 큰 위계질서를 만들어 불의한 구조에 공모하기까지 합니다. 불평등한 사회구조에서 여성도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인간에게 명령한 ‘질서’일까요? 성경에서 여성의 이야기를 읽는 일차적 목적은 바로 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함입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른 바 권력을 가진 자들, 남성들만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류의 이야기가 성차별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당당하게 그 시대를 살아낸 여성들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물론 그 여성들의 삶과 경험은 때로는 성차별의 왜곡되고 편협한 시선에 갇혀 있고, 때로는 침묵을 강요당한 채 감춰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에서 가부장이라는 덮개를 거둬내고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결코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여성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여성이 남성보다 우월하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 남성과 여성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며, 서로 함께 어우러져 상호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 삶의 근본적 모습이라는 것을 알기 위함입니다. 성경과 기독교 역사에서 절대적 권력을 휘두른 가부장적 남성 중심의 언어와 문화를 거둬내는 것이 이 교재를 통한 읽기의 첫 목표입니다.

## 왜 가부장제를 문제시할까요?

성경의 첫 말씀이 하나님의 천지창조에 대한 선언이라면 마지막은 새로운 창조를 여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열망하는 탄원입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마라나타입니다. 창조에서 종말에 이르기까지 성경 66권에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들은 대개의 신화들처럼 신의 세계, 혹은 천상에서 벌어지는 저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서 하나님과 인간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조금 의아한 것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이 세계가 결국 하나님에 의해 종말을 맞고 전혀 다른 새로운 창조가 있을 거라고 한 일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은 “보기에 좋다”는 감탄입니다. 피조 세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답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세계가 종말을 맞아 없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이 세계에서는 희망을 찾을 수 없어서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실 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태초에 아름답게 만드신 세계가 더 이상 손 볼 수 없이 ‘망가진’ 실패의 역사가 되어 버렸다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실패하셨다는 말입니까?

하지만 유구한 역사의 시간을 그려내는 성경의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실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역사가 청지기의 역할을 해야 할 인간에 의해 어떻게 타락하고 왜곡되고 변질되어 왔는지에 대해 말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 달

하는 원역사는 부조리와 악, 인간의 반역과 죄성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존재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기원론적으로 들려줍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던 악한 인간들이 어떻게 다시 생명을 영위할 기회를 부여받는지에 대한 구원사를 들려줍니다. 이 구원사의 중심은 선민사상입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까요? 성경에서 이스라엘인을 히브리인이라고 부르지요. 히브리라는 말은 민족 개념이 아닙니다. 히브리라는 말은 고대 근동 문서에 나오는 ‘하빠루’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빠루는 그 당시 노예들, 하층민들, 부랑인들을 부르던 일반명사입니다. 하나님은 하빠루, 노예였던 자들, 인간 대접받지 못했던 하층민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위기에 빠진 자들을 구하고자 선택하셨습시다. 애굽이라는 거대한 제국으로부터 노예를 탈출시켜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堂堂하게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구원은 궁극적으로 제국주의적 위계질서, 차별과 억압에 대한 거부요, 폐기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차별 중에서 가장 뿌리 깊은 차별이 성차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제국의 노예로, 포로로 자유를 빼앗기고 인간의 존엄성을 철저히 짓밟히는 차별을 경험했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해방과 승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였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성차별의 현실이 반복되고 있음을 봅니다. 게다가 성경의 가부장적 질서는 기독교 공동체 역사에서 훨씬 더 강력하게 여성을 억압하는 기제로 작동하였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가부장제를 문제 삼는 것은 단순히 여성의 해방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가부장제는 지배와 복종의 이중적 구조 안에서

불의한 권력을 지탱해온 대표적인 이데올로기로, 무엇보다도 ‘특정 집단’을 체계적으로 통제하고 배제시켜왔고, ‘우리’는 여전히 불평등과 차별의 다양한 현실에 맞닿아 있습니다. 가부장제에 의한 성차별이 역사상 가장 뿌리 깊게 남아있는 불평등의 요소라는 점을 생각할 때, ‘여성’은 단순히 여성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부장제라는 뿌리 깊은 ‘시대적 편견’을 벗겨냄으로써 ‘여성’에게 가해진 불평등과 차별을 극복하게 된다면,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다양한 편견에 의해 배제당하고 통제당하고 고통당하는 무수한 ‘사회적 약자’들의 해방을 위한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부장적 성차별은 단순히 여성의 해방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궁극적으로 평등한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 해소되어야 할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있는 가부장적 질서를 전복시키고 완전히 폐기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어려움은 단지 가부장제 자체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만이 아니라 인류 역사 속에서 여성을 단지 가부장제 질서의 수동적 희생자였다고만 말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가부장제와 협력하고 지지하는 능동적 행위자였던 적이 더 많습니다. 이러한 협력과 지지가 없었다면 가부장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었을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여성의 이야기를 읽는 목적은 첫째, 가부장적 사고로 인해 왜곡되고 은폐된 하나님의 뜻을 되찾기 위함입니다. 은폐되고 왜곡되어 들려지지 않던 소외된 자, 그 누구보다 우리 여성의 소리를 찾기 위함입니다. 억눌리고 고통당하는 이들의 편이 되시는 하나님은 심판 당할 수밖에 없이 최악이 만연한 세계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질서’라는 가부장적 교회 문화에 익숙한 나머지 성차별

적 위계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 종속을 내면화하고 있는 여성들이 스스로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즉 성경에 그렇지 않은 이야기가 담겨 있음을 보기 위함입니다.

## 기독교여성주의 성경 읽기란?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의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평화·창조질서의 보전(保全)이 이뤄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YWCA목적문은 YWCA 여성들의 신앙적 정체성과 운동의 방향을 분명히 합니다. 이 목적문이 의도하는 바를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독교 신앙인답게 살아라!’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는다면,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창조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믿음으로 그 뜻을 따라 살아가면 된다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모든 인간은 형제자매라는 관계 안에서 어우러져 정의·평화·창조질서를 보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기독교여성주의 성경 읽기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 성경의 다양한 여성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즉 성경은 기독교 신앙 안에서 여전히 우리 사회와 삶을 이해할 중요한 준거(Reference)라는 것입니다.

둘째, 그렇다 해도 성경을 읽을 때 여성으로서 불편함을 느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여성주의적 읽기는 그 불편함의 토대가 지금까지 여전히 유구하게 ‘시대적 편견’으로 작동하고 있는 가부장적 성차별이라고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셋째, 하지만 가부장제를 문제시하는 것은 단지 여성과 남성과의 불평등 해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뿌리 깊은 차별과 억압의 토대인 성차별주의를 극복할 때, 이는 곧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한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이 됩니다.

## 말하는 주체, 여성 : 소리를 상상하다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 한국YWCA는 세상 속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입니다. 여성들을 위한 수많은 활동을 전개하고 사회적 약자들의 곁에서 함께 하여 위로와 힘을 주는 여성 단체이고 한국 사회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공헌해 온 단체입니다. 하지만 활동의 내용과 방향이 여성 개개인의 여성주의 의식을 깨우치고 삶의 주체가 되도록 영향력을 크게 미치지 못했다라는 비판이 있기도 합니다.

삶의 주체로서의 여성, 여성주의적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성’이 스스로 그 삶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체가 된다는 것은 무엇 일까요? 성경을 말하고 듣고 생각하여 해석해 낼 때, 먼저 자신으로부터 시작하라는 소리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성들은 편집자나 저자의 입장에서(대부분이 남성이겠지요) 그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의 ‘소리’는

아주 제한적입니다. 편집자의 의도에 따라 침묵되고, 배제되고, 통제되어 왜곡되기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독자로서 여성들조차도 그 시각과 언어 그대로 그 여성들을 읽어내곤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눅 19:40b)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하신 말씀은 하박국 2장 9~11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에 맞서서 소리치는 돌에 대해 어느 여성신학자는 이것이야말로 비탄(Grief)의 소리인 동시에 억압에 대한 저항(Resistance)을 나타내는 강력한 은유라고 말합니다. 소리 낼 수 없는 돌, 아니 소리 내지 못할 거라고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뿐 더러 소리 내지 못하게 했던 돌이 소리를 낸다면 어떨까요? 가부장 사회에서 복종과 침묵을 강요당하던 여성이 소리를 낸다면 그것은 곧 ‘돌들’이 소리쳐 외치는 것 같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절박하고 비통한 소리일 것입니다.

서양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의 이름을 차용하여 아이에게 이름을 붙이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다니엘이라는 음가 그대로 부르는가 하면, ‘단열’이라는 한자 음역으로 부르기도 하고, 에스더 또한 여성의 이름으로 불립니다. 아이에게 성경의 이름을 준다는 것은 그 이름에 대한 존경을 의미하며, 그 이름의 사람처럼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 널리 알려졌지만 이름으로 사용하지도 않고 사용해서도 안 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에스더는 가능하지만, 와스디는 사용할 수 없고, 사라는 가능하지만 하갈은 안 되고, 룻은 가능하지만 하와는

안 되고, 아버가일은 가능하지만 밧세바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여성들은 정숙하고 순종적이며 모범적 여성과는 거리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타락의 원조 하와, 다윗을 유혹한 여인 밧세바, 제왕의 명령을 어긴 와스디, 이방출신 종으로서 이스라엘의 영원한 대적의 어머니가 된 하갈 등등. 그들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공개적으로 회자되는 죄를 지은 자이고, 계명을 어긴 자로 낙인찍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들과 관련된 이야기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여성들은 그들을 향한 비난에 대해 어떤 저항이나 변명도 할 수 없이, 그저 대상으로서 행동이 묘사되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들의 범죄는 대개 남성과의 관계 혹은 지배관계에서 순종하지 않고 반역하는 행위 범주에 속한 것들입니다.

## 1. 소리를 상상해 봅시다

이들에게 말할 기회를 준다면 뭐라고 말했을까요? 낙인찍힌 죄목에 대해 무엇이라고 항변할까요? 그들로 하여금 입을 열어 말하게 한다면, 정죄라는 선입견에 의해 왜곡되고 굴절된 여성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을까요? 지금도 여전히 교회에서 침묵과 순종을 강요당하는 여성들의 소리를 듣게 되지 않을까요? 삶의 주체로서 여성들이 내야 하는 소리를 상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 침묵을 강요당한 여성의 소리를 상상하려 합니다. 두 여성의 경우를 통해 스스로 비탄과 억압의 소리를 발하는 여성의 소리를 상상해 보려 합니다.

## 2. 폐위된 왕후 와스디의 소리

1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는 일이다. 아하수에로는 인도에서 에티오피아에 이르기까지 백스물일곱 지방을 다스린 왕이다. 2 아하수에로 왕은 도성 수산에서 왕위에 올라 3 나라를 다스린 지 삼 년째 되던 해에, 모든 총독들과 신하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었다. 페르시아와 메대의 장수들과 귀족들과 각 지방 총독들을 왕궁으로 초대하여, 4 자기 왕국이 지닌 영화로운 부요와 찬란한 위엄을 과시하였다. 잔치는 여러 날 동안, 무려 백팔십 일이나 계속되었다. 5 이 기간이 끝난 뒤에, 왕은 도성 수산에 있는 백성을,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두 왕궁 정원 안뜰로 불러들여서, 이레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 9 와스디 왕후도 부인들을 초대하여, 아하수에로 왕의 그 궁궐 안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10 이레가 되는 날에, 왕은 술을 메시고, 기분이 좋아지자, 자기를 받는 일곱 궁전 내시 곧 므후만과 비스다에 하르보나와 박디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에게 이르기를, 11 와스디 왕후게 왕후의 관을 쓰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라고 명령하였다. 왕후가 미인이므로, 왕은 왕후의 아름다움을 백성과 대신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다. 12 그러나 와스디 왕후는 내시들에게 왕의 명령을 전하여 듣고도, 왕 앞에 나오기를 거절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은, 화가 몹시 났다. 마음 속에서 분노가 불같이 치밀어 올랐다.(...) 15 “내시들을 시켜서 전달한 나 아하수에로의 왕명을 아스디 왕후가 따르지 않았으니, 이를 법대로 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오?” 16 므무간이 왕과 대신들 앞에서 대답하였다. “와스디 왕후는 임금님께만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께서 다스리시는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신하와 백성에게도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17 왕후가 한 이 일은 이제 모든 여인에게 알려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인들은 아하수어로 왕이 와스디 왕후에게 어전에 나오라고 하였는데도, 왕후가 나가지 않았다고 하면서, 남편들을 업신여기게 될 것입니다. 18 페르시아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오아후가 한 일을 알게 되면, 오늘 당장 임금님의 모든 대신에게도 같은 식으로 대할 것입니다. 그러면 멸시와 분노가 견잡을 수 없이 되풀이 될 것입니다. 19 그러니 임금님만 좋으시다면, 와스디 왕후가 다시는 아하수어로 임금님의 어전에 나오지 못하도록 어명을 내리시고, 그것을 페르시아와 메대의 법으로 정하여, 고치지 못하도록 하셔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왕후의 자리는 그 여인보다 더 훌륭한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20 왕의 칭력이 이 큰 나라 방방곡곡에 선포되면, 잦은 사람이고 높은 사람이고 할 것 없이, 모든 여인이 저마다 자기 남편에게 정중하게 대할 것입니다.” 21 왕과 대신들은 그의 말이 옳다고 여기고, 왕은 즉시 무무간이 말한 대로 시행하였다. 22 왕은 그가 드스리는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렸다. 지방마다 그 지방에서 쓰는 글로, 백성마다 그 백성이 쓰는 말로 조서를 내려서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여야 하며, 남편이 쓰는 말이 그 가정에서 쓰는 일상 언어가 되어야 한다”고 선포하였다.(에 1:1~22)

비록 본문에 와스디가 왕궁에서 쫓겨났다는 말은 없지만, 와스디는 더 이상 왕후의 대접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더 훌륭한 왕후를 구해야 한다”는 대신 무무간의 말은 와스디가 왕후에 합당한 인격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와스디의 발화는 한 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와스디에 대한 내용으로만 나옵니다. 누구의 시선입니까? 그 가부장적 남성 중심의 사고를 가진 설화자의 시선 속에 감춰진 와스디의 소리를 상상해 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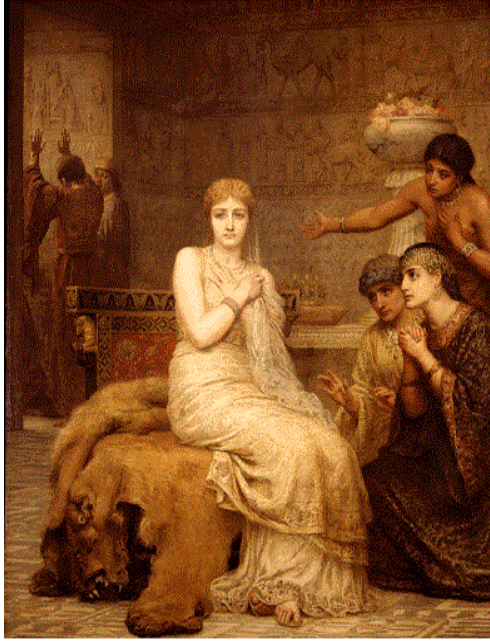
나는 와스디예요. 페르시아 왕후였습니다. 남편은 아하수에로였어요. 어느 날 갑자기 왕후에서 쫓겨났어요. 나를 두고 이러쿵저러쿵 말이 있다지요. 교만하다, 남편을 무시했다, 지혜롭지 못하다 등등.

내가 왜 교만하다는 말을 들어야 하나요? 남자와 여자가 따로 잔치를 여는 것은 국가의 예법이었어요. 그리고 나는 왕후였어요. 여성들을 위한 잔치에 주인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를 남자들이 있는 잔치로 불러낸 거예요. 곱게 차려 입고 오라고 합디다. 왕후의 아름다움을 그들에게 보여주라? 이 무슨 예법에 어긋나는 행동입니까? 내가 무슨 노리개입니까? 저는 그 말을 전해 듣는 순간, 심한 모멸감에 싸였습니다. 아하수에로는 술에 취해 있었고, 그래서 사리판단을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하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나를 불러내는 데 동조한 것은 왕후인 나를 욕보이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부당한 명령을 들었을 때 정중히 거절했어요. 의관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을 뿐더러 남편이 잘못을 깨달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왕후로서 저는 그럴만한 권리가 있었어요.

남편을 무시했다고요? 제국의 왕을 누가 무시할 수 있나요? 저는 왕후로서의 품위를 지키려고 했고, 남편도 지켜줄 거라고 믿은 것이 잘못이지요. 나 때문에 모든 여인들이 남편을 멸시하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나를 폐위시키고 나보다 나은 여자를 왕후에 세우자고요? 왜 드무간의 간계에 왕은 한 마디도 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무서워서 아내인 나를 위한 한 마디의 변호도

하지 않고, 그의 말 그대로 들어주었나요? 나는 남편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잔치 자리의 노리개처럼 나아가 사람들의 눈요기거리가 되어 왕후의 품위를 잃어버린다면 그건 나만을 욕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왕도 결국 나처럼 되었을 겁니다.

지혜롭지 못하다고요? 잠깐 수모를 참고 나와서 왕의 체면을 세워주는 게 지혜로운 거라고요? 지혜는 그런데 쓰는 게 아닙니다. 왕후로서 궁전의 안살림을 지휘하는 데 쓰는 거예요. 내 품위를 스스로 지키고, 왕의 부인으로 당당하게 설 수 있게 활용하는 게 지혜예요. 사실 왕의 명령을 전해 들었을 때 잠깐 고민했습니다. 수치스럽지만 나갈까 하고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왕후의 품위와 정절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남편은 어리석어요. 그가 현명하고 명철했다면 교활하고 정치적인 무무간의 권모술수에 넘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나는 왕궁을 나왔어요. 그곳에서의 풍요로웠던 생활을 그리워하지 않냐고요? 혹시 그 일을 후회하지 않냐고요? 에스더가 그랬다고 하지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 앞에 나갔다고.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내 소신과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여전히 내 소신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왕의 부름을 거절하는 와스디〉, 에드윈 롱(Edwin Long), 1878

### 3. 간음하다 잡힌 여인의 소리

3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 놓고 4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5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6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한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은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7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

에게 돌을 던져라.” 8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9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10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였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11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요 8:3~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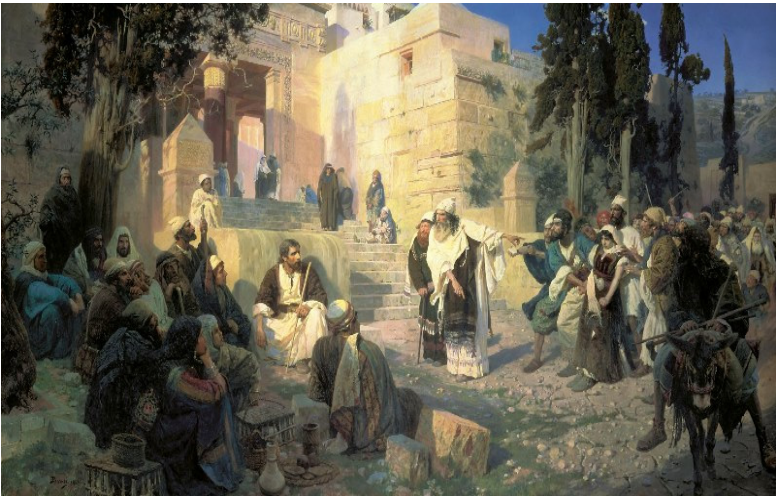
이 이야기는 예수를 고발하기 위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의 계획이 실패한 이야기로 유명합니다. 이 여인은 이름도 없습니다.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 끌려와서 남자들 가운데 세우고 돌로 맞아 죽을 위험에 처하기까지 침묵할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사건의 말미에서 예수님의 물음에 대답하는 데서 한 번 들릴 뿐입니다. 그 대답조차 수동적입니다. “주여, 없나이다.” 이 본문을 가지고 성경공부를 할 때 여성 교우들이 질문합니다. 죽을 위험에 처했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정죄하지 않겠다는 용서를 받았으니 괜찮은 건가요? ‘간음하다 잡혔다’는 낙인은 누구에 의한 것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오해받고 낙인찍혀서 곤란에 빠진 적은 없습니까? 간음은 혼자 하는 게 아닌데 왜 남성은 없지요? 이 여인의 항변을 상상해 볼까요?

나는 고아였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게 몸을 파는 것밖에 없었어요. 남의 것을 훔친 건 아니잖아요! 내 몸이잖아요! 물론 내가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남성들은 끊임없이 내 몸을 탐닉했습니다. 그렇다고 나는 내 정신까지 판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나를 잡아서 남자들 사이에 세웠을 때에 정말 수치스러웠습니다. 얼른 돌에 맞아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저 몸을 웅크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가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라는 사람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가 물었어요. 나에게 죄를 묻은 사람들이 남아 있느냐고요. 나는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했어요. 당신도 죄를 묻지 않을 테니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요. 그 순간, 잡혀 왔을 때보다 더 수치스러웠어요. 죄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었거든요. 내 몸이라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기억해 냈어요. 율법에도 적혀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다고.

나는 속았어요. 그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가 나를 안았을 때 남자들이 쳐들어 왔어요. 그는 도망갔어요.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남자와 관계를 맺는 게 율법을 어기는 거라는 건 알죠. 하지만 우리는 결혼할 거라 굳게 믿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과 한 통속이었어요.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선지자를 고발하기 위해 나를 속이고 꾸민 일이었어요. 나는 꼼짝 못 하고 잡혀 갔어요. 사실 나를 치려고 돌을 든 자는 없었어요. 그들은 나를 세워두고 예수와 논쟁했어요. 그러는 사이 나는 내가 여자라는 사실만으로도 수치스러웠어요. 저들은 내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었어요. 나는 그저 그들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었거든요. 내가 남자였다면 나를 구하려고 가족들이 나서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나는 누구에게도 보호받거나 존중받

지 못하고 철저히 함부로 다루어지는 타자였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는 달랐어요. 그들이 떠난 다음에 예수가 나에게 물었어요. 나를 정죄한 사람이 있다고 말이에요. 나는 없다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예수가 다시 말했어요. 나도 정죄하지 않겠다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나를 ‘너’라고 대화의 상대자로 부른 이는 예수 밖에 없었어요.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저는 이 여자, 저 여자라고 불리는 하찮은 존재였거든요.



〈예수와 간음죄로 끌려온 여인〉, 바실리 폴레노프(Vasily Polenov), 1988

## 생각해 봅시다

혹시 이 두 여성의 소리를 다르게 상상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왕에게 생사여탈권이 달려 있는 제국의 삶에서 와스디가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또한 ‘간음녀’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단지 하나의 에피소드와 같이 남겨둔 이야기 외에 와스디, 간음녀가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 이른바 ‘여성주의적’ 삶을 살아냈다면 어떤 모습일 거라고 상상하십니까?

YWCA목적문의 주체는 ‘젊은 여성들’입니다. ‘젊은 여성들’에서 젊다는 것은 변화와 성장의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것에 대한 민감한 대응력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함께 더 생각해 봅시다.

1. 우리 사회에 만연한 차별 상황에 대해 얼마나 나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사례로 이야기해봅시다.
2. 와스디, 간음하다 잡힌 여인처럼 스스로 침묵하거나 혹은 침묵을 강요당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교회, 사회 그리고 YWCA 안에서 나는 ‘말하는 주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까?



## 여성, '창조질서'의 키워드

### 생각 열기

먼저 성경의 이야기를 살펴보기 전에 다음 몇 가지의 견해들을 읽고 동의하는 것에 ○표, 그렇지 않은 것에 X표를 해보십시오.

- ① 여성은 잘못 태어난 남성이다. 열등한 여성이 우월한 남성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우주의 순리다(아리스토텔레스). (     )
- ② 여성은 자체만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다. 오직 남성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은 남편과 있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이라 할 수 있다(어거스틴). (     )
- ③ 하와는 꼬임에 넘어간 첫 번째 사람이며 남성을 속인 책임이 있다. 하와는 자기가 꼬임에 넘어간 사실을 알면서도 남편을 악에 빠뜨렸다(어거스틴). (     )
- ④ 남편의 '상응하는 돕는 자'로서 남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존경하며 남편에게 맞추어 나간다면, 그런 아내는 '완전한 남자'를 만드는 '완전한 여자'가 될 것이다(어느 대형교회 목사의 설교). (     )

위 항목 중에 동의하는 내용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그 이유

는 무엇입니까? 동의할 수 없다면 왜 그렇습니까? 특히 어떤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창 1:27)

앞의 명제들과 비교해 보세요. 앞의 전제들과 동일한 소리로 들립니까? 이 과에서는 성경의 첫 이야기, 즉 창조사역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의미와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창세기 1-3장 : 인류의 처음에 대한 이야기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는 단순히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첫 선언은 단지 창조 사건에서의 하나님의 주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이제 전개될 역사의 주관자라는 신앙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역사는 어떤 역사일까요? 특히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원역사(原歷史), 즉 인류의 창조 이야기를 시작으로 인류사에서 벌어지는 문제 상황들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지에 대해 원인론적으로 들려주는 역사 이야기는 인간들 사이에서 끊이지 않는 갈등과 반목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모세오경의 첫 번째 책으로 전통적으로는 모세가 썼다고 하지만 사실상 구전, 혹은 기록으로 전해져 내려온 서로 다른 시대와 사상을 가진 이야기들을 수집하여 모세의 권위

아래 편집한 책입니다. 보다 더 넓게 보면, 구약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노예였고 변방 사람이었던 히브리 민족을 당신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속합니다. 이는 곧 구약성경의 이야기들이 특정의 신앙적 목적, 노예, 구원 등의 주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편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1. 창조 이야기의 역사적 배경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인류 창조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B.C 6세기경에 편집되었다고 봅니다. B.C 6세기에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하고 대다수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국가의 멸망, 그리고 포로민이 되었다는 것은 단지 정치적 위기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로잡혀가서 남의 땅에서 목숨을 연명하게 된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적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해야 하는 기로에 섰습니다. 이는 여호와 신앙의 위기였습니다. 바벨론 제국 신들의 강력한 위용 앞에서 그들이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이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여호와는 더 이상 자신의 백성들을 지켜줄 수 없는 보잘것없는 신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런 패배의 신은 폐기하는 것이 그 당시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강력한 권력, 그리고 그 지배 세력에 대한 복종과 굴복, 다시 말하면 지배층과 포로민이라는 계층적 차별, 이러한 피할 수 없는 현실의 속에서 포로민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벨론 신앙에 편입되는 것이 그나마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패배의 신이라고 버리는 대신, 이 상황을 오히려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는 반성의 계기로 삼았습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입

니다. 국가의 패망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죄악과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지금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현실, 제국의 위협 앞에 포로민으로서의 굴욕적 상황 등은 하나님이 원래 만드시고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는 자신들의 죄악의 결과로 생긴 왜곡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당시 시대 주류를 거스르며 선포되는 창조신앙은 왜곡된 현실을 비판적으로 직시함으로써, 원래 “보기에 좋았다”라고 한 세계를 선언적으로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즉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계에 대한 고백을 통해 지금의 현 상황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왜곡은 어디서 왔는지 말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 포로민이라는 굴욕의 현실은 심판의 결과로 왜곡된 현실이지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러한 생각의 전환은 인간 창조에 관한 이야기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가부장적 남성 중심 세계, 성차별과 억압이 일상화되어 있던 시대적 상황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실로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역사비평 학자들은 창조 이야기가 나오는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하나님 이름(1장에서는 하나님, 2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문체와 사상의 차이를 들어 서로 다른 시대에서 비롯된 상이한 두 이야기로 나눴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창조 이야기를 둘로 나누어 말하지 않습니다. 1장이 우주 세계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창조의 순서를 얘기한다 해도 그 궁극적 창조물은 인간이라는 점을 말하고 있고, 2장에서는 서사체로 인간 창조에 대한 보다 상세한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인간 창조 사건으로 볼 때 둘을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인간 창조 이야기가 인간 존재의 목적과 삶의 의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본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 2. 창세기 1장의 인간 창조 이야기

26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들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창 1:26~28).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는 우주를 총망라하는 웅장한 스케일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6일 동안 전개되는데, 그 맨 마지막 순서가 바로 인간 창조입니다. 여섯째 날, 하나님은 먼저 땅 짐승을 지으신 후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그 창조 과정이 다른 피조물과는 사뭇 다릅니다. 먼저 빛에서부터 땅 짐승에 이르기까지 창조 과정은 일관되게 하나님에 의한 존재 명령과 창조 행위로 이뤄져 있습니다. 있으라는 명령대로 모든 것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 그 주요 요지입니다.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을 취하십니다.

먼저, 앞선 피조물들과 달리 26절에서는 마치 여러 신들이 모여 천상의 회의를 열고 인간을 만들기로 작정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왜 하나님이 '우리'라는 복수형을 사용하였는가라는 문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고대 세계의 다신

론적 사상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일부 신학자들은 이를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교리로 설명하기도 하지만 삼위일체 교리는 성경에 들어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진술을 후대에 신학자들이 해석한 것입니다. 신앙적 고백으로 삼위일체 교리를 말할 수 있기는 하지만, 성경이 원래 처음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한다고 말하는 것은 시대착오입니다. 여하간 하나님은 그 결정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둘째, 피조물의 형태에 대한 진술이 다릅니다. 바다짐승들과 하늘짐승들(창 1:21), 그리고 땅의 짐승들(창 1:24~25)을 그저 ‘그 종류대로’ 창조하십니다. 이미 창조 때부터 짐승들은 그 모습으로 있었다고 말하는 것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인간은 다른 것에 빗대어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되, 특별한 형태를 본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26절에서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만들기로 작정하셨다고 했고, 27절에서는 그와 같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진술합니다.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셋째,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인간에게는 그 창조 목적을 분명히 합니다. 2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결의는 인간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미 만드신 피조물들을 다스리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지는 28절에서 축복에 대한 진술에 덧붙여서 인간들을 향한 명령으로 재차 표현되는데,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는 5개의 복수형 명령 동사로 나옵니다. 앞에 나오는 세 개의 동사가 동물들에게 준 복의 내용이라면, 나머지 두 개는 오직 인간에게만 해당합니다. 이 두 개의 동사,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 3. 하나님의 형상

왜 하나님이 오직 인간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말할까요? 무엇보다도 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뗄 수 없는 친밀한 관계를 뜻합니다. 1장에 나오는 창조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직접 ‘너희’라고 이야기의 이인칭 상대자로 부르는 피조물은 오직 인간뿐입니다(29절 두 번)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은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긴밀한 관계를 지니며,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대화의 상대자로 초청됩니다. 사실이 점을 고려한다면 2장 이후 나오는 인간 창조 이야기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말씀으로써 상대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응답이 자유로 주어진 존재는 오직 인간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행위를 말하는 27절은 ‘창조하다’라는 동사를 지닌 세 개의 문장으로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진술하는데, 각각의 문장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첫 단어가 다릅니다. 첫 문장은 ‘창조하였다’ 동사로 시작하고, 두 번째 문장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남자와 여자로’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창조의 목적격은 첫 문장에서는 ‘그 사람’, 두 번째 문장에서는 ‘그’,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서는 ‘그들’입니다. 이 중에서 특히 마지막 문장이 말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와 여자’라는 ‘그들’로 창조되었다고 선언됩니다.

우선 26절과 27절에서 ‘사람’은 히브리어로 ‘아담’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아담은 일반명사인 동시에 고유명사입니다. 그런데 27절에서 이 단어는 정관사와 함께 나옵니다. 고유명사가 아니라 말하는 말입니다. 즉 여기서 ‘그 사람’은 특정의 개인 즉 인류의 첫 인간이었던 아담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Humankind)’

의 의미로 봐야 합니다. 인류는 단수 명사인 동시에 필연적으로 복수형입니다. 인류는 ‘아담’으로부터 비롯하여 현대를 사는 우리까지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류, 이는 단순히 태초 이야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를 내포합니다.

둘째, 26절에서 창조할 인간 ‘아담’은 ‘다스리다’ 동사의 주어가가 되는데 복수형입니다. 28절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명령형 동사가 복수형입니다. 그 근거가 27절 마지막 문장입니다. 인류의 복수형은 ‘남자와 여자’로 표현됩니다. 이는 아담의 계보를 전해주는 창세기 5장 2절에서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아담)’이라고 하셨다.”

여기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자카르 우네케바)는 창세기 7장 9절에도 나오는데 노아 홍수 때 방주에 들어갈 짐승들을 암수 둘씩이라고 지칭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홍수 후 생명을 이룰 최소의 단위가 암/수라는 성으로 구별되는 한 쌍입니다. 그 당시 성경 기자는 사람이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관계 단위를 자연에서 경험한 남자와 여자로 보았습니다. 사람은 홀로 ‘사람’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기원에서부터 두 생물로 창조되었고 둘이 함께 해야만 ‘사람’이라고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특수성을 선포하였다면,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관계성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상호관계성을 단지 남녀 간의 성적인 관계로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 나타나는 상호관계성의 보다 근본적인 의미는 없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내포하는 상호관계성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

리고 인간 간의 관계라는 이중적 교차로 이해해야 합니다.

## 1)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하나님의 형상

26절에서 형상(첼렘)과 모양(데무트)이라는 두 단어가 쓰인 것과 달리 27절에서는 형상이라는 단어만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첼렘'인 이 단어는 고대 세계에서 왕의 조각상을 지시하는 것으로 사용되곤 했습니다. 왕이 직접 통치에 나설 수 없는 변방이나 먼 지역에 대리자를 보내면서 왕적 권위를 상기시키기 위해 조각상을 세우고 그것을 '첼렘' 즉 왕의 형상으로 불렀습니다. 그 목적은 간단합니다. 그 대리자가 왕은 아니지만 왕을 대신하여 왕의 권위, 통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유비해 볼 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철저히 구별된 피조물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허락 하심으로써 피조물 중에서 인간에게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 임무수행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나요? 28절이 말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여기까지는 앞선 동물들에게 주신 명령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명령이 더 있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명령이 바로 그것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은 왕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고대의 왕들이 백성들의 안녕과 행복을 책임지고 통치하였던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모든 생물의 안녕과 복을 책임지고 다스릴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가 행하는 정복과 통치는 착취나 남용과 같은 임의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인간이 피조

세계를 마음대로 사용하고 파괴한 결과 결국 인간까지도 위협하는 생태의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결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인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2장의 인간 창조 이야기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책임과 임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 2) 사람의 관계로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사람의 책임이라면,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증거요, 하나님의 영적 정신적 도덕적 자질을 지닌 자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 ‘남자와 여자’라는 말은 복수로 이뤄진 인류(그 사람, The Humankind)는 공동체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삶의 근본임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먼저 공동체로서의 삶은 이미 28절의 명령에 들어있습니다. 공동체는 공존하는 존재입니다. 공존하는 ‘그들’ 즉 복수의 주체라는 의미에서 보면 27절에 나오는 암/수(자카르 우네케바) 단어로 사용된 ‘남자와 여자’는 그 어떤 사회적 위치나 관습에 의해 규정된 관계(Gender)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사람은 남과 여라는 성(Sex)의 다름(차이)으로 구별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름’을 가진 존재들이 함께 존재(Co-Existence)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참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는 사람은 오직 ‘남자와 여자’로만 구별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남자’와 ‘여자’로 언급했을까요?

그 대답은 하나님 형상을 지닌 복수형으로서 사람의 공존은 어떠한 위계질서나 차별도 내포하지 않는다는 점과 연관됩니

다. 인간의 모습이 어떻든 오로지 그 모습 그대로 함께 동등하게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평등하고, 존엄한 존재입니다. 시편 8편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게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셨다”고 표현합니다. 그 존엄성에서 배제될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모든 인류의 평등과 존엄성의 선언으로 이해한다면, 여자를 특정하여 명명했다는 것은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부장 사회에서 남성의 독재가 절대적이었던 고대 시대에 ‘여자’도 인간이고, 존엄의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여자’가 인류의 동등한 파트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 당시나 지금이나 사회적으로 억압받고, 소외되고 고통당하는 ‘약자’ 그 누구도 평등과 존중의 공존에서 배제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창조 이야기에서 남자와 동등하게 언급된 ‘여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드러내는 키워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인간 사회의 다양한 관계의 원형이요 목적을 드러내고 있으니까요.

#### 4. 창세기 2장의 인간 창조 이야기

5 주 하나님이 땅 위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었으므로, 땅에는 나무가 없고, 들에는 풀 한 포기조차 아직 돌아나지 않았다. 6 땅에서 물이 솟아서, 온 땅을 적셨다. 7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8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에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창 2:5~8)

1장의 체계적이고 규범적인 세계 창조 이야기와 달리 2장은 이야기체로써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전합니다. 5절에서 인간은 단순히 피조물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이어갈 동역자임을 분명히 합니다. 하늘과 땅은 만들었지만, 그 땅은 아직 식물이 자라지 못하는 상태, 즉 아직 생명의 터가 되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았고, 또 땅을 경작할 사람이 아직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땅을 경작하는 노동은 하나님의 창조를 이어가는 행위입니다. 땅을 살리는 청지기의 역할이 바로 인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1장에서 하나님이 오직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한 것과 달리 2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토기장이와 같이 흙으로 인간을 빚으십니다. 나중에 짐승들도 흙으로 지으시지만(19절) 인간 창조와는 다릅니다. 7절에서 창조된 인간을 부르는 ‘생명’, 19절에서 창조된 동물들을 부르는 ‘생물’은 히브리어도 동일하게 ‘하야 네페쉬’라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생명’이 되는 것은 좀 더 특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생기(니쉬마트 하임)를 코에 불어 넣었다고 하는데, ‘생기’는 ‘생명들의 호흡’이라는 의미를 뜻합니다.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의 호흡은 생명을 일으키는 영이요 기운입니다. 인간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존재로서 이 단어는 1장의 ‘하나님의 형상’과 유비될 수 있습니다.

## 1) 알맞은 짝

18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19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흠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로 이끌고 오셔서, 그 사람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 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르는 것이,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20 그 사람이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 주었다.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 21 그래서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가 잠든 사이에, 주 하나님이 그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뽑고, 그 자리는 살로 메우셨다. 22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 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23 그 때에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창 2:18~23).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 ‘알맞은 짝’을 지으리라. 그리고 그 과정이 창세기 1장 18~22절에 나옵니다. 이 과정에서 아담은 어떤 역할도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아담과 함께 할 ‘알맞은 짝’을 만들겠다고 결정하고,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기까지 아담은 그저 깊은 잠에 빠져 외과의사 하나님에 의해 갈비뼈가 적출되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사실 아담이 외로움을 호소했기 때문에 ‘알맞은 짝’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여성을 만들기 전에 여

호와 하나님은 동물들을 만들어 아담에게 데려옵니다.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며 함께 살고자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처음부터 의도한 ‘알맞은 짝’에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짝’, 함께 함으로 ‘보기에 좋은’ 자는 아담과 같은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함께 해야 아름다운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창세기 1장 27절에서 드러나는 ‘공존’의 의미와 동일합니다. 여성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보기에 좋은’ 아름다운 공존을 향한 창조의 키워드였습니다. 즉, 함께 하는 것, 서로 존재하는 공존의 삶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입니다. 이는 1장 2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이 내포하는 의미에 상응합니다.

둘째, ‘알맞은 짝’이라는 히브리어는 ‘에제르 크네그도’입니다. ‘에제르’라는 단어는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돕는 자라는 선포에서 여러 번 쓰였습니다(출 18:4, 신 33:7, 시 33:20, 시 89:18~19 등). 이는 ‘절대적인 도움’, ‘그 도움 없이는 존재가 완성되지 못하는 도움’을 의미합니다. 동사로 쓰일 때는 더욱이 위험과 죽음으로부터 구원한다는 의미입니다(사 30:7,31:3). 그렇기 때문에 도움의 뜻인 ‘에제르’를 보조적 의미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성이 남성의 ‘에제르’로 창조되었다면, 여성은 남성의 생명을 위한 절대적 도움으로 존재하는 짝입니다.

게다가 ‘알맞다’는 뜻을 의미하는 ‘크네그도’는 어깨를 겨룬다는 어근에서 비롯된 것으로 서로 대등하고 동등한(Corresponding to) 짝(Counterpart)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에제르’가 위로부터의 도움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해도, ‘크네그도’와 결합함으로써 그 도움은 동등함에 기초한 상호성으로 이해됩니다. ‘알맞은 짝’은 ‘상호적 도움의 존재 관계’를 뜻하는 말입니다. 동물은 하나님의 선한 피조물이라 해도 아담의 ‘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삶을 위해 서로 돕는 동반자적

관계로서 남성과 여성의 관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남성과 여성의 관계와 동일합니다. 구별과 차이는 있지만, 차별과 위계 질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 2)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데려온 여성을 본 순간 아담은 탄성을 내뿜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리고 그 새 존재는 여자라 불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에서 보면 이는 일종의 언어유희입니다. ‘ish(남자)’에서 나왔으니 ‘ishah(여자)’라고 불릴 것이라고 할 때, 여자는 남자라는 단어에 여성형 접미사(ah)가 붙은 형태일 뿐입니다. 사실 인간 창조 이야기에서 아담은 이 사건 이전 ‘남자(ish)’로 불린 적이 없습니다(이 이야기에서 우리말 성경에 ‘남자’로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원어는 모두 ‘그 아담’입니다). 여성형이 있으므로 남성형도 정해집니다. ‘여자’라는 언어를 통해 ‘남자’도 탄생합니다. 성적으로 구별되는 존재에 대해 하나는 남자요, 다른 하나는 여자라 불리는 것입니다. 이는 동물들을 명명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고대 세계에서 명명자는 지배자요 소유자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만일 ‘~로부터’라는 전치사 ‘민(min)’에 근거하여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흠에서 나온 아담은 흠에 종속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다만 아담과 흠의 종속적 관계가 3장에 나오는데 이는 불순종의 결과로 일어난 심판에 의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또한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와 동일선상에 서 있습니다. 구별과 차이를 이야기할 뿐, 차별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에덴동산의 아담과 이브〉, 벤젤 피터(Wenzel Peter),1831

## 5. 창세기 3장의 실낙원 이야기

창조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유감스럽게도 바로 인간의 ‘범죄’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이 이야기는 그 범죄로 말미암아 인류의 역사가 고통스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범죄가 여성에서 비롯했다는 오래된 오해가 전통이 되어 아직도 여전히 우리 안에 회자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 1) 유혹하는 불순종의 대명사, 여성?

1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2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3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거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4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5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6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7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창 3:1~7)

이 이야기는 뱀의 꾀에 빠져 남자와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입니다. 뱀과 대화하는 상대자는 여자입니다. 대화 내용은 상당히 신학적입니다. ‘간교한’ 뱀과 여자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 명령의 타당성에 대해 질문하고 대답하며 논쟁하는 사이, 여자는 뱀에게 설득당하여 선악과를 먼저 먹었고, 다시 따서 남편을 ‘유혹’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불순종의 죄를 저지르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교회의 여성들은 이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의식을 자기도 모르게 내면화하거나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다시 한 번 읽어보십시오.

먼저 뱀은 여자하고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뱀이 상대자를 부를 때 모두 ‘너희’ 즉 2인칭 복수형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여자의 대답도 ‘우리’ 1인칭 복수형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뱀과 여자의 대화로 보이지만 대화에 남자와 여자 모두 참여하고 있

음을 의미합니다. 그런 점에서 대화와 그 결과의 책임은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있습니다.

둘째, 열매를 따먹는 장면인 6절에서도 보면 여자가 열매를 따먹을 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여자가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도 주매 그가 먹었다고 합니다. 여기 쓰인 히브리어 전치사 ‘임’은 시간과 공간에서 실제로 함께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말소리는 내지 않지만 그 대화 전 과정에 ‘함께’ 동참하며 ‘함께’ 설득당하여 ‘함께’ 뱀의 말에 긍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자만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은 수동적 태도로 그 대화에 동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행동에는 공동의 책임이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 어디서도 선악과를 먹은 첫 사람이 여자였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불순종의 죄는 여자에게서가 아니라, 남녀 공동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게다가 여자의 죄가 특별히 강조되지도 않습니다. 여자의 죄를 강조한다면 오히려 남자의 죄가 더 크다고 강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들은 남자는 왜 모든 것을 듣고 있으면서 침묵하며 여자를 말리지 않았느냐는 것이지요. 그러나 누구의 죄가 더 크고 작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모두 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이후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여자만이 아니라 남자도 그리고 뱀도 심판의 대상입니다.



〈아담과 이브〉, 루카스 크라나흐(Lucas Cranach the Younger), 1530년경

## 2) 남편의 다스림이 창조질서?

16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17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18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귀를 먹을 것이다. 19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 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낱알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창 3:16~19)

징별은 뱀, 남자와 여자에게 모두 주어졌습니다. 여기서는 여자와 남자에게 주어진 징별의 의미만을 알아보겠습니다. 징별의 내용은 분명합니다. 첫째, 창조를 통해 인간에게 부여된 삶의 의미가 완전히 뒤틀립니다. 창조 이야기에서 인간이 경험하지 못했을 뿐더러 경험할 필요도 없던 것이 바로 ‘고통’입니다. 창조 중에 주어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에는 임신과 해산의 과정이 필수입니다. 생명의 탄생이 그러하듯이 이는 원래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입니다. 그렇기에 어디서도 고통이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성에게 주어진 첫 번째 징별은 생명을 잉태하는 기쁨이 죽음과 같은 고통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성의 삶에도 역시 고통이 주어졌습니다. 식물이 자라나도록 땅을 개간할 노동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본디 복된 노동입니다. 하지만 불순종에 따른 심판의 결과는 이를 고통의 현실로 변질시킵니다.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땅은 더 이상 인간을 위한 먹거리를 쉽게 내주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고통의 노동이 없으면 생명을 이어나갈 수 없습니다. 창조를 통해 주어진 생명과 삶이 고통으로 바뀌는 것, 바로 두 인간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첫 번째 징별입니다.

둘째, 여자에게 주어진 또 다른 고통은 남편과의 뒤틀린 관계입니다. 창조에서 비롯한 평등과 공존, 상호 협력의 관계가 차별과 억압의 관계로 변질됩니다. 내 뼈 중에 뼈, 살 중의 살이라는 찬사에서 비롯한 사랑의 결혼 관계는 가부장적 지배 관계로 바뀝니다. 남편은 군주와 같습니다. 사실 우리 말 성경에는 창세기 1장 26~28절과 3장 16절에 나오는 동사가 동일하

게 ‘다스리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전혀 다른 단어로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6~28절에 나오는 ‘다스리다(라다)’라는 동사는 하나님께 주어진 사명을 말하는 것으로, 창세기 2장 5절이 암시하는 인간의 청지기적 역할에 버금가는 돌봄의 의무를 내포합니다. 하지만 여기 징벌로 주어지는 ‘다스리다(마살)’라는 단어는 ‘왕’이 행하는 정치적 통치 혹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된 용어입니다 (창 37:8, 출 21:8, 신 15:6, 수 2:17, 합 1:14 등). 이는 권력 행위가 작동하고, 폭력과 통제, 억압이 수반되는 지배를 의미합니다. 벗어도 부끄러운 줄 모르던 친밀함, 서로 하나 되어 기쁨을 누린다는 상징을 통해 남자와 여자라는 관계성 안의 인간 평등과 존엄성을 보고자 한 것이 창조질서였다면, 징벌의 현실은 창조 질서의 뒤틀림과 변질의 결과로 가부장적 지배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 남자에게 주어진 또 다른 고통은 죽음의 경험입니다. 물론 죽음의 문제는 여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즉시 죽지 않았다고 해서 먹으면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취소된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인간이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비록 일생이라는 삶의 시간을 통해 죽음이 유보되긴 해도, 죽음은 반드시 맞이하는 실재입니다. 이는 수고로운 노동의 고통보다 더한 것입니다. 죽음 이후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는 텅없음이 인간을 괴롭게 만듭니다. 아니 만물의 영장,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라고 자부심을 가졌던 인간이 기껏 흙에서 비롯했다는 사실이 스스로를 더 당황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평생 고통의 현실이 됩니다.

이와 같이 징벌 이야기는 인간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고통의 현실이 어떻게 비롯되었는지에 대해 대답해 줍니다. 이는 하나님에서 비롯되지 않았습니니다. 심판의 결과 곧 이 모든 현실의

문제는 인간의 책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써 창조 때의 기쁨과 충만함은 사라지고 끝없는 고통을 겪습니다. 과연 이 범죄 이야기는 단지 그 고통의 실제와 인간의 책임성만을 전해주려는 것일까요?

가족 관계에서 남편과 아버지의 권위가 절대적이었던 가부장적 시대에 여성에 대한 남편의 억압과 지배를 창조의 본질이 아닌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라고 보았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 대한 모든 구절들이 이렇게 해방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창조 이야기와 타락 이야기는 원래적인 것은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동반자였으며,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는 현실은 불순종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구분합니다.

### 3) 창조 질서의 보전을 위하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창 9:6)

이 말씀은 홍수 사건 이후 하나님이 창조 때의 복과 명령을 노아에게 주시는 이야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 번 되새겨 줍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는 것이 가부장적 지배에 대한 반동이요 평등한 삶에 대한 선언이라면,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경고가 담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는 폭력과 억압을 통해 배제되고 훼손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선포입니다. 창조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존엄성은 반드시 회복되

어야 할 하나님의 복임을 밝혀줍니다.

## 6. 나가며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남자와 여자의 복수형으로 말하는 것은 서로 구별되는 차이를 가진 존재를 상징하는 말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르다’와 ‘틀리다’를 혼동할 때가 많습니다. ‘틀리다’라는 말은 소위 ‘바른 것’에 대한 선입견을 무의식적으로 전제합니다. 왜 남자 배우는 남배우라고 하지 않으면서 여자배우는 여배우라고 부를까요? 이 말에는 은연중에 ‘배우’는 본래 남자라는 사고가 깔려있는 것은 아닐까요? 마치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형상은 본래 남자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하는 성경 본문은 어디서도 이러한 차별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 오히려 차이를 가진 두 존재가 평등하고 상호 협력하며 서로 공존하는 공동체적 삶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입니다. 이는 여자를 ‘알맞은 짝’으로 명명하여 지어준 것에서도 동일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억압과 지배, 열등과 우월이라는 차별이 만연합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죄 이야기에서는 이러한 현실이야말로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관계가 아니라 인간의 불순종의 결과로 주어진 징벌이라고 규정합니다.

이미 앞에서 창조 신앙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정체성의 위기를 겪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제2의 출애굽)이라고 열망하는 역사의식에서 비롯한 것이라

고 말씀드렸습니다. 징별은 불순종에 대한 처벌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믿음을 굳게 지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노예였던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같이, 포로 된 자신들을 다시 자유민으로 해방시켜 유대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실 거라는 믿음이지요. 이 믿음은 근본적으로 폭력, 억압, 차별이 벌어지는 현실에 대한 부정입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가부장제 남성 중심 사회 한복판에서 자유와 해방의 메시지를 위해 가장 먼저 남자와 여자의 성차별적 관계를 문제시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인간 사회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을 직시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 왜곡된 성차별은 여전히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기자의 눈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기자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있어서 현실의 문제가 무엇인지 직시했고(성차별,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존엄성을 왜곡하는 모든 폭력, 억압, 배타성의 문제), 창조 신앙을 통해(하나님 형상, 알맞은 짝 등) 그것은 원래적인 것이 아니며 극복되어야 하는 것(심판을 넘어 구원으로)임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조 이야기는 단순히 창조 사건에 대한 옛이야기가 아닙니다. YWCA가 목적하는 정의, 평화, 그리고 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뤄지는 세상을 위한 운동의 주춧돌을 제공합니다.

## 생각해 봅시다

1. 여러분은 여자가 ‘도덕적으로 더 연약하고, 말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존재라는 말에 동의할 수 있나요? 아내, 딸, 어머니로서 살아가는 데 불편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불편함에 대해 어떻게 대응합니까?
2. 여러분은 교회나 사회에서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 동등하게 책임적 존재로 인정받고 있습니까?
3. ‘여자’이기 때문에 받은 차별의 역사는 그 끝을 볼 수 없습니다. ‘겉모양’과 선입견으로 여전히 차별되는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까?



## 여성, '언약'의 주인공들

### 생각 열기

구약에서 언약은 하나님의 소통 방식이자 축복의 통로입니다.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언약 체결자들은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땅을 떠났고, 노아는 방주를 지었으며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자손과 땅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온 언약의 주인공들은 대부분 남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주일학교에 다니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노래를 배우고 열심히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을 언약 체결의 제일인자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언약 체결 과정을 잠깐 보면,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변경하면서 언약을 맺습니다(창 17:1~8). 정체성의 변경입니다. 아브람은 '존귀한 아버지'를 뜻하며 아브라함은 '많은 이들의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개인적 품격이 높은 사람에서 하나님과 언약 체결 후,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서 신앙인들의 모범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은 오늘날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언약의 사례는 성경 속 남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이름도 변경하면서 사라와 언약을 맺습니다. 만약 우리가 남자 주인공들만을 하나님 언약의 대상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언약을 맺고 성취하길 바라십니다. 따라서 본 과는 남성들의 언약 체결을 강조하며 남성 중심으로 진행되는 성경 공부를 넘어서고자 합니다. 남성들 위주의 렌즈로 가려졌던 신앙의 여성 선배들의 이야기를 발굴하여 그들을 언약의 주인공들로 명명하고자 합니다.

가부장적인 시각의 성경 읽기는 오만이며 폭력이라 하겠습니까. 사라, 하갈, 한나, 마리아,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를 재 조명함으로써 여성과 맺은 하나님 언약의 개방성에 집중하려 합니다. 언약은 과거보다는 미래를 지향합니다. 이 여성들은 오늘까지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며 언약을 성취해 나간 주체적 여성들입니다.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 체결에 한국교회 여성들, 특별히 YWCA의 여성들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 사라 - 변혁의 주체

15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의 아내 사래를 이제 사래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여라. 16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너에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겠다. 내가 너의 아내에게 복을 주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그에게서 나오게 하겠다.”(창 17:15~16)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전 인류의 창조 이야기를 서술하기에, 원역사(原歷史)라고 불립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민족 역사를 12장에서부터 서술하였습니다. 창세기 11장 27~32절에

서 아브람의 족보가 소개되고 이 부분은 12장의 아브람과 하나님의 언약으로 연결됩니다. 11장과 12장은 아브람의 뿌리를 노아의 아들 셈과 연결합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 간에 이뤄진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붙여 주었습니다. 그가 신앙의 한 원형(原形)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하였듯이 그 언약의 원형이 사라에게서도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사라 역시 그녀의 이름이 사라에서 사라로 확인되면서 언약의 주인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언약 체결 과정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 확인을 통한 언약 체결 과정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개입 과정은 아브라함의 경우와 조금 상이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이제부터는’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갖지 말라고 합니다(5절). 반면, 사라의 경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내 사래를 이제 사래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여라”(창 17:15b)라고 분부하십니다. 히브리어 원문 상 ‘그의 이름은’ 앞에 ‘키(한글 번역은 ‘왜냐하면’)'라는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름은 (원래) 사라이기 때문이다’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래를 사래로 잘못 부르고 있었으며 하나님은 사라의 이름이 정확하게 불리지길 원하십니다.

사래는 ‘나의 왕비’를 의미하고, 사라는 ‘왕비’를 뜻합니다. ‘나의(아브라함의)’라는 소유격이 탈락됨으로써 왕비는 한 개인의 왕비가 아닌 만인의 왕비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7장 16절을 보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너에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겠다. 내가 너의 아내에게 복을 주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그에게서 나오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사라라는 이름이 상기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어머니가 됩니다.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여러 나

라까지 아우르는 변혁을 꿈꾸는 여성이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변혁이 일어난 곳은 사라의 가정이었습니다. 사라는 아브람의 부인으로만 지내지 않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사라는 이웃과 공동체를 돌보고 전 세계적인 현안들에까지 눈을 돌리는 정체성의 변화를 이룬 여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라는, ‘내 아이만’ 잘 낳아서 경쟁 사회에 일등이 되도록 교육하고, 좋은 직장에 보내어 편안한 삶을 살게 하겠다는 어머니들의 ‘포부(?)’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사라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라는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자신만의 아내로 생각하였으나, 하나님은 전 세계의 어머니가 되길 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배제된 상황에서 일어나는 사라와 하나님 간의 언약입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로서 귀한 여인이 아니라 세계 속의 여성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정체성의 변혁을 꾀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라의 언약 이야기는 언약 체결자들이 지니게 되는 두 가지 자세를 상기시킵니다. 첫째는 사라와 하나님 간의 언약에 대한 아브라함의 의구심 어린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체결된 때, 백 세 된 자신에게, 구십 세 된 사라에게 아이가 있을 수 없다고 웃어버린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너에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겠다. 내가 너의 아내에게 복을 주어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복을 주겠다는 말씀이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언약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너의 아내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시면서 철저하게 사라와 단독으로 체결된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 아브라함은 부정적인 이해를 기저에 두고 하나

님과 사라가 맺은 언약에 대해 의심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의심과 조롱이 언약의 성패 여부를 결정짓지 않습니다.

두 번째 언약에 대한 반응은 여성 스스로가 지니고 있는 부정적인 자세를 보여 줍니다. 사라 자신에게서 보이는 바입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사라는 자신의 가임 이야기에 대해 웃습니다. 기독여성주의를 공부하는 우리들에게 스스로 지녀야 할 자긍심의 척도를 보여주는 사라의 행동입니다. 사라는 가부장 사회에서 여성 정체성과 가능성이 열세로 평가되는 상황을 스스로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여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아이 낳기에는 나이가 많다는’ 객관적인 사실까지도 전복시킬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두 반응은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전형적인 예라고 하겠습니다. 나이가 적든 많은 간에 ‘나의’ 조건이 하나님과의 언약과는 무관합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사라와 하나님은 언약을 체결하고 사라가 민족의 어머니가 되는 모권을 약속합니다. 당시 가부장적 시대를 살았던 사라가 여성으로서 살아남기 위해 가장 중요하는 것은 아들을 낳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사라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이 많음은 언약 확인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가장 취약한 면을 통해 사라는 변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그러나 가장 취약한 면으로’ 언약 맺길 원하십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민족의 어머니 사라라는 말에 웃음에 지었기에 아들의 이름이 이삭(웃음)이 되었으나, 하나님의 약속은 남편 아브라함의 능력과 상상력을 초월합니다. 사라를 통한 모권의 족보는 사라의 대를 이어서 리브가, 라헬로 이어집니다. 창세기에서 우리는 어머니의 족보로 언약의 전통을 이어간 세대들을 보게 됩니다.



〈연민〉 김용님, 2010

## 하갈 - 최초의 신학자

10 주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자손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하겠다.” 11 주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너는 임신한 몸이다. 아들을 낳게 될 터이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여라. 네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주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12 너의 아들은 들나귀처럼 될 것이다. 그는 모든 사람과 싸울 것이고, 모든 사람 또한 그와 싸울 것이다. 그는 자기의 모든 친척을

떠나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13 하갈은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뵈고도, 이렇게 살아서, 겪은 일을 말할 수 있 다니!” 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를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 지어서 불렀다. 14 그래서 그 샘 이름도 브엘라해로이라고 지어서 부르게 되었다. 그 샘은 지금도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그대로 있다. 15 하갈과 아브람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니, 아브람은,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었다. 16 하갈과 아브람 사이에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에, 아브람의 나이는 여든여섯이었다.(창 16:10~16)

하갈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여인들 중에 기독교인들에게 환영 받지 못하는 대표적 여인입니다. 왜냐하면 이슬람교의 선조가 되는 이스마엘을 하갈이 낳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갈을 단순히 이스마엘의 어머니라고만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자는 이스마엘의 출생을 선포하였고 이스마엘이라는 이름까지 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하갈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창세기 16장을 보게 되면, 사래는 당대의 대리모 풍습으로 아들을 얻으려 합니다. 이런 풍습은 함무라비 법전(146조항)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법전에는 여종이 남 주인의 아이를 낳으면 여주인과 같이 평등해질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여종을 노예로 다시 팔지 못하지만, 여종은 다른 노예들과 동일하게 간주될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하갈과 사라가 각각 취한 반응은 극히 자연스러운 양상이라고 하겠습니다. 하갈은 아이를 낳음으로써 사래와의 평등성을 주장하여 아브람가의 모권을 주장하였을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래는 하갈이 임신을 하더라고 하갈의 노예 신분을 유지시키려 했을 것입니다. 대리모 상황이 일어날 경우에, 아이

와 친부모 간에는 혈연관계가 생성되고, 남편과 아내, 여주인과 여종, 남편과 여종 간에는 법적 절차가 일어나며, 당사자들 간의 심리적인 변화까지 가세되면서 하갈과 사래는 단순한 여주인과 여종 관계를 넘어서게 됩니다. 함무라비 법전 146조항은 남편과 아이를 낳은 여종 간의 법적 규정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내와 여종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아브람 역시 두 여인의 관계에 대해서 의견과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사래에게 “당신이 좋을 대로 그에게 하기 바라오(창 16:6)”라며 하갈의 임신으로 발생한 쟁점에 대해 침묵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미 사래는 이러한 아브람의 반응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창세기 16장 5절에서 보면 여호와와의 판단을 기대합니다.

사래는 하갈의 법적 권리 요구와 자신에 대한 심리적 예우가 부당하다고 여겼기에 하갈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그를 괴롭히게 됩니다. 아브람의 자손을 임신한 하갈 또한 사래의 이러한 행동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에 결국엔 임신한 몸으로 도망잡니다. 이는 노예 하갈이 취한 주체적 행동이었습니다. 주인집을 떠나면 더 힘든 상황이 펼쳐질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으나 학대에 저항하며 자유를 위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사막의 샘에서 여호와와 사자를 만나 언약을 맺게 됩니다.

여호와는 고대 근동의 법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하갈과 사래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현장에 직접 개입하십니다. 여호와와 사자가 하갈에게 1) 다시 사래에게로 돌아가라는 명령과 2) 하갈 자손의 번성에 대한 약속 그리고 3) 하갈에게 수태를 예고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주인집을 나와 주체적으로 변혁의 삶을 도모하는 하갈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삭 출생 예고(창 17:19)가 있기 전에 이미 아브람의 아들 이스마엘 출생 예고가 하갈에게 선언됩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뜻입니다. 여호와와 광야의 샘에서 만난 여호와와 사자를 통해 하갈의 노예 생활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녀와도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 체결은 하갈에게 여호와를 만나고 그가 누구인지 깨닫는 과정이었습니다. 하갈은 여호와와 이름을 고백합니다. 하갈은 여호와와 이름을 ‘엘로이(나를 살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라고 부르고, 머물던 샘을 ‘브엘라헤로이’라고 칭합니다(창 16:14). 브엘라헤로이는 ‘나를 살피시며 살아계신 이의 우물’을 뜻합니다. 어느 미국의 구약학자는 하갈을 최초의 ‘신학자’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하갈은 광야의 샘가에서 만난 여호와를 자신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으로 전적으로 이해하였으며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낸 모세의 상황을 연상시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현현에 대해 어리둥절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질문합니다(출 3:13).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인 모세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이름을 하갈은 ‘엘로이’라고 칭하였습니다.



〈이시마엘을 보내는 아브라함〉, 조오지 세갈(George Segal), 1987

그리고 나서 하갈은 사라에게로 돌아갔는데, 그녀의 삶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창세기 21장 8절~21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사라의 의견을 따라 하갈과 그녀의 아들을 내쫓았고 모자는 브엘세바 광야에서 절체절명의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갈이 떠나기 전 아브라함에게 “그러나 여종에게서 난 아들도 너의 씨니, 그 아들은 그 아들대로, 내가 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창 21:13)는 말로 하갈과 맺었던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광야에서 방황하는 모자를 만나며 살피십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아들이 두려워하는 소리, 목이 말라 물을 찾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사자를 통해 “하갈아, 어찌 된 일이나?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이가 저기에 누워서 우는 저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아이를 안아 일으키고, 달래어라. 내가 저 아이에게서 큰 민족이 나오게 하겠다.”(창 21:17~18)라고

하갈에게 말씀하십니다.

본인의 의지를 피력할 수 없는 노예의 위치에서 주인의 아들을 낳았고 그래서 고난을 당하게 되는 하갈.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노예의 위치에 있었지만 주체적 결단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며 언약이 성취되길 기원하였던 하갈. 더욱이 하나님은 광야에 버려진 여인 하갈과 목말라하는 아이 이스마엘과 함께 계셨으며 그들을 살피셨습니다. 아이가 장성하여 아내를 맞이하고 다음 세대가 이어지도록 말입니다(창 21:20~21). 엘로이 하나님은 마른 가족 부대를 부여잡고 어린아이와 광야에서라도 주관적인 삶을 이어가려는 노예 여성 하갈과 언약을 맺었고 그녀를 살피셨습니다.

## 한나 - 킹 메이커

1 한나가 기도로 아뢰었다. “주께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습니다. 원수들 앞에서도 자랑스럽습니다. 주께서 나를 구하셨으므로, 내 기쁨이 큼니다. 2 주님과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주님처럼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삼상 2:1~2)

한나가 등장하는 사무엘서는 사사들의 역사를 뒤로하고 이스라엘 왕권의 시초를 알리는 중요한 역사서입니다. 헬라어 번역본인 칠십인역 성경에는 사무엘서 상하와 열왕기 상하는 열왕기서(Reigns)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4권으로 나뉘져 있습니다.

그만큼, 사무엘 상하서는 열왕기 상하서와 마찬가지로 왕권의 유의미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지도력의 서막을 알리는 사무엘서는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한나가 처음부터 아무 문제없이 사무엘을 낳은 것은 아닙니다. 사무엘상 1장 6절과 7절을 보면 “주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으므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이런 일이 매년 거듭되었다. 한나가 주의 집으로 올라갈 때마다, 브닌나가 한나의 마음을 늘 그렇게 괴롭혔으므로, 한나는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한글 성경 번역은 엘가나를 중심으로 두 부인(한나와 브닌나)간의 적대관계를 강조합니다. 두 여성 간의 적대관계를 기정사실화한 번역가의 관점이 내포된 한글 번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이유를 다음 두 가지 점에서 살피고자 합니다.

첫째는 6절과 7절 히브리어 원문에는 ‘브닌나’가 적혀있지 않습니다. 한국어로는 친절하게도(?) 브닌나를 첨가함으로써 두 여인들의 갈등관계를 명시하며 ‘여성의 적(敵)은 여성’이라는 논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적수’로 번역된 히브리어 ‘차라’는 히브리어 원형과 칠십인 역에서 살펴보면 ‘고통’이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그의 고통이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즉, 브닌나 때문이 아니라 불임이라는 상황이 한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에서와 마찬가지로 가부장 사회에서 여성들은 자녀의 존재 유무에 따라 그들의 정체성이 결정되었습니다. 남편 엘가나는 임신하지 못하여 식음을 전폐하고 괴로워하는 한나에게 자신이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고 위로합니다. 이 위로가 얼마큼 한나에게 효력을 발휘하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일단 한나는 실로에서 음식을 먹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삼상 1:8~9).

실로에서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여호와에게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나실인으로 키우기로 서원합니다. 당시 엘리 제사장은 한나의 기도 장면을 취중 실언으로 생각하여 그녀에게 금주를 명령합니다. 엘리는 한나의 심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제사장입니다. 이러한 엘리에게 한나는 “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 앞에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삼상 1:15)”라고 대답합니다. 내 심정을 ‘쏟아 놓았을’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샤파크’를 번역한 것입니다. ‘샤파크’는 물이나 피를 ‘쏟아붓다’라는 뜻입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심정을 쏟아 내면서 기도하였습니다. 마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생각하고 그를 의지하여 그 앞에서 마음을 ‘토해내듯이’(시 68:8) 말입니다. 한나는 반석과 요새이신 하나님에게 심장에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지 않을 고통스러운 심정으로 자신의 아픔을 쏟아내며 기도로 토해내었습니다.

여호와 전의 문설주 곁의 의자에 앉아있던 제사장은 한나의 하나님을 향한 피 토하는 심정의 서원 기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제3자 엘리에게 이해될 리가 없었습니다. 가슴 절절한 기도. 고통의 시간에 마음을 쏟아붓는 기도. 하나님은 은혜로 응답하십니다. 사무엘이 태어나는 언약을 이루면서 말입니다.

한나는 언약에 응답하신 하나님에게 사무엘의 출생을 감사하는 기도(삼상 2:1~10)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서 사사 시대 이후 왕권 시대의 지도자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출생은 한나 개인의 요구와 만족을 넘어선 이스라엘이 지니게

될 리더십의 모형을 보여줍니다. 이 지도자 상은 하나님의 전권을 확증하고 인간 삶의 변화를 도모합니다.

한나는 “주께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습니다.”(삼상 2:1)라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로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뿔’은 힘을 상징합니다. 마치 시편 기자가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처럼 높이셨고 기름을 부으셨다(시편 92:10)고 노래한 것처럼, 한나는 자신의 위상이 하나님에게서 부여됨을 명시합니다. 사무엘의 출생에 대한 감사의 기도이자, 여호와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기도입니다. “너희는 교만한 말을 늘어놓지 말아라. 오만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참으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하는 일을 저울에 달아 보시는 분이시다.”(3절), “용사들의 활은 꺾이나, 약한 사람들은 강해진다.”(4절), “한때 넉넉하게 살던 자들은 먹고살려고 품을 팔지만, 굶주리던 자들은 다시 굶주리지 않는다. 자식을 못 낳던 여인은 일곱이나 낳지만, 아들을 많이 둔 여인은 홀로 남는다.”(5절)

이것은 자신이 고난을 극복하고 사무엘을 낳게 되었듯이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의 삶이 전도된다는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의 기도 속의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풍족하게 만드십니다. 한나의 기도는 사사시대를 마무리하고 새롭게 출현하는 왕권의 정의로운 지도력을 소망하는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무엘상 1장에서 3장까지는 사무엘의 등장과 새로운 왕권 준비라는 제목 하에 서로 연관되어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2장 6절에서 한나는 “주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로 내려가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다시 돌아오게도 하신다”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엘리 아들이 한 날에

파국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34절의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2장은 네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1~11절 한나의 기도 (A)

12~17절 엘리 아들들의 나쁜 행동 (B)

18~21절 어린 사무엘의 등장과 자녀 축복을 받는 한나 (A')

22~36절 엘리 아들들의 악행과 저주 (B')

한나의 기도에서 드러난 바,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엘리 아들들의 행동을 측정하였는데, 그 결과는 비극적 결말입니다. 따라서 사무엘상 2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십은 엘리의 아들들에게 있지 않고, 사무엘에게 있음을 강조합니다. 26절은 어린 사무엘은 커 갈수록 주님과 사람들에게서 더욱 사랑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엘리의 아들들의 행동과는 상응되는 구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신앙적, 도덕적으로 과오를 저질렀습니다. 1) 여호와께 번제로 드려야 할 고기를 먼저 취했으며(12~17절), 2) 회막의 여인들과 동침하는 범죄를 저지르고(22~26절), 3) 이스라엘의 예물로 자신들을 먼저 살찌웁니다(27~29절).

한나의 기도에 등장한 지도자상과 정반대의 행동을 했던 엘리의 아들들(훤니와 비스하스)은 지도력을 상실하고 사라집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여호와의 부름(삼상 3장)을 받아 선지자(삼상 16:1~3)가 되며 사울(삼상 10:1)과 다윗(삼상 16:13)에게 왕이 되도록 기름을 부었습니다.

한나는 여호와가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올리게 하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엘리 아들들은 하나님의 제물을 탐내며 자신들을 하나님보다 우위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자신들보다 낮은 자들에게는 어떤 행동들을 하였는지는 가히 짐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의 조건을 명확히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힘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힘은 용사의 활은 꺾지만 약해서 넘어진 자에게 띠를 돌려줍니다. 다시 말해 정의를 이루는 힘이 하나님의 힘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사울과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권을 구축하길 원하며 그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권 리더십의 조건은 어머니 한나와 하나님 간에 이뤄진 언약과 기도에서 구축되었습니다.

## 마리아 - 언약의 싱어송라이터

46 그리하여 마리아가 노래하였다. “내 마음이 주님을 찬양하며  
47 내 영혼이 내 구주 하나님을 높임은 48 주께서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49 힘센 분이 내게 큰 일을 하셨기 때  
문입니다. 주의 이름은 거룩하고, 50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  
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51 주께서는 그 팔  
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흠으셨으니, 52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 내리시고 비천한 사람들을 높이셨습니  
다. 53 주린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  
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54 주께서 자비를 기억하셔  
서, 당신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55 우리 조상에게 말  
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56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함께 석 달쯤 있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눅 1:46~56)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언약은 예수 탄생에 대한 예고입니다. 마리아는 한나와 다르게 아들 출산을 바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라처럼 이삭 탄생 예고를 듣고 놀라서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마리아에게 이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합니다. 나이가 많아 임신이 불가능했던 엘리사벳이 세레 요한을 임신하였듯이, 월경이 끊긴 사라에게 이삭이 태어났듯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마리아에게 언약의 아기가 탄생합니다. 물론 그 아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천사가 알려준 엘리사벳의 임신 소식에서 마리아는 동병상련의 정을 느꼈을까요?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방문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소식에 대해 위로와 축복을 전해줄 사람은 바로 다름이 아닌 여성으로서 자매애를 나눌 수 있는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큰소리로 외쳐’ 말하였습니다.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고, 그대의 태속에 있는 열매도 복을 받았습시다.”(눅 1:42)라며 자매애 속에서 빛나는 축복을 전합니다.

이 축복에 대한 응답으로 마리아는 찬가를 부릅니다. 이 마리아 찬가(눅 1:46~55)는 기독교 전통에서 마그니피카트(Magnificat)라고도 불립니다. ‘내 마음이 주님을 찬양하며’라는 46절의 ‘찬양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마그니피카트입니다. 찬가를 부르는 마리아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언약의 주인공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비천한 여종이라고 칭합니다. 현재로서는 굴욕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미래 인류의 세대들에게는 복의 근원이 된다는 약속입니다. 비천한 상황에 놓여있는 자신이 만세에 이어 복을 받는 여인이 되는 은혜에 기뻐합니다. 예수는 큰 자가 되고 높으신 이의 아들로서 다윗의 왕위가 그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눅 1: 32).

마리아 찬가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마리아는 큰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큰일이란 무엇 일까요? 누구나 쉽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큰일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일은, 그의 능력으로 교만한 자를 흠오시며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는 일입니다(눅 1:51~53). 또한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십니다.

우리는 마리아를 생각할 때, 성령 잉태에 대해 집중하면서 마리아의 역할을 신비적 차원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마리아 찬가에서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보낸 하나님을 공훈의 하나님으로 찬양합니다(50절). 마리아는 약자들의 편에 계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공훈히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기억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향유 부은 여인 - 기억 속의 그녀**

3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으로 고생하던 환자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에,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4 그런데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말하기를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5 이 향유는 삼백 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하였다. 그러고는 그 여자를 나무랐다. 6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만두어라. 왜 그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7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너희가 하려고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8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9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막 14:3~9)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26장 6절~13절, 마가복음 14장 3절~9절, 누가복음 7장 36절~50절, 요한복음 12장 1절~8절, 각 복음서에 나옵니다. 향유를 부은 여인이 누구인지 각각의 복음서에는 왜 상이하게 서술되어 있는지 등에 관한 질문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여인이 누구인지 보면, 마태와 마가에서는 무명의 여인으로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죄를 지은 여인이라고 밝히고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제일 먼저 기록된 것으로 보는 복음서 연구사의 전통을 따라 이 여인의 이름은 전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름도 없는 여인의 행동이 네 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복음서들에 나타난 공통점에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1) 주변 사람들은 여인이 비싼 향유를 허비한다고 여인을 질책합니다. 2) 예수님께서만 그녀의 뜻을 헤아리셨고 칭찬까지 하셨습니다. 여인의 행동과 예수님의 반응은 당시 주변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정반대 행동이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예수님께서서는 그녀의 행동에 대해서 당신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고 칭찬하시면서 그녀가 복음과 함께 기억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야기가 상이하게 전개됩니다. 여인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이후에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강한 의문점을 제시하면서 선

지자 예수님의 진위성까지 시험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질문을 간파하신 듯, 아낌없이 향유를 부은 여인을 베드로와 비교하며 여인의 죄를 사하고 그녀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눅 7:50)라고 말씀하십니다.

향유 부은 여인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응답을 바탕으로 세 가지 의미로 음미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장례를 예지하는 여인의 행동에 대해 최고의 칭찬을 하시며 언약을 선포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막 14:9). 예수님께서 친히 이 사람을 ‘기억’하라고 선포하신 경우가 마가복음서에 몇 번이나 있을까요? 향유를 부은 여인은 복음과 함께 기억되어야 할 언약의 모범자입니다.

둘째, 누가복음에서 이 여인은 믿음의 모범자로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시몬은 예수님에게 발 씻을 물도 대접하지 않았고 감람유도 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네에서 죄를 지은 것으로 소문이 난 이 여인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여인의 행동과 예수님의 구속의 능력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셋째, 요한복음에서는 가롯 유다의 배반과 마리아의 장례 준비가 대조를 이룹니다. 요한복음은 마리아가 드린 향유의 값을 300 데나리온이라고 적시함으로써 가롯 유다의 돈궤 탈취를 예지합니다. 두 인물 간의 대비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의 불가분적 관계를 드러냅니다. 향유를 낭비한다고 마리아를 질책하는 사람이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배반을 계획하고 있는 가롯 유다, 가롯 유다의 계획을 알고 있던 마리아,

그 배반으로 죽음을 감당하셔야 했던 예수님. 가롯 유다는 자신의 예수님 배반 계획을 마리아가 고자질한다고 생각하며 그녀를 오히려 질책한 듯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가롯 유다의 배반 시나리오를 알고 계신 듯, 마리아의 장례 준비에 제재를 가하지 말라고 명하시며 십자가를 통한 구원 사역을 오롯이 준비하시며 감당하십니다.

각각 복음서에서는 이야기의 배경, 등장인물의 이름, 예수님의 반응 등이 다소 상이하게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이름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예수님에게 귀한 향유를 그 발 앞에 붓고 예수님과 만나려고 변함없는 소망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여인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시몬이나 가롯 유다의 경우처럼, 복음과 함께 언약으로 기억될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언약의 증거는 그의 십자가의 달리심과 그로 인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언약의 중심에 있던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 있는 예수님의 남성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름은 없지만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살피길 원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시몬이나 가롯 유다 또는 주변 남자들이 그녀를 질책하고 이해하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서는 향유 붓는 여인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그녀가 복음과 함께 기억되길 바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여인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키워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언약의 여인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 생각해 봅시다

1. 자신을 소개해 봅시다. 누구의 어머니, 딸, 부인으로서가 아니라, 자신만의 이름으로 스스로를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2. 여성이라는 이유로 본인이 가지고 있던 능력이 평가 절하되었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3.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웃었습니다. 더욱이 아브라함은 자신과 사라의 나이를 하나님 언약의 ‘걸림돌’로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이 성사되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당시 상황을 함께 나눠봅시다.
4. 하나님의 역사(役事) 속에서 하갈처럼 ‘엘로이(나를 살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5. 오늘날, 지도자들에게도 ‘한나의 기도’는 필요한가요? 필요하다면 YWCA 여성들이 그들을 위한 기도문을 작성해 봅시다.
6. 교회 내 여성 그룹에서 기획한 모임과 사업들이 교회 내 다른 사람들에게서 환영을 받습니까? 사업 진행 과정은 어떠했습니까? 다양한 예들을 말씀해 주시고, 성공 또는 실패 사례들을 나눠 주십시오.

## 성서 속 여성 리더십의 모형 - 질문하는 여성들

### 생각 열기

근래에 대한민국에서는 미투(Me Too)운동이 확산되면서 여성주의가 사회의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각 개별 사건의 진행과 결과와는 관계없이 이 운동은 한국 여성들의 인권의 현주소를 알린다는 의미에서는 고무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미 학계에서는 여성학으로, 기독교에서는 여성신학으로 1970년대 이후 학문적 담론이 시작되었고 오늘날까지 연구, 발전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 미투운동에 앞서 한국 YWCA는 역사적 출발점에서부터 이미 여성 교육과 권리를 강조하였고 현재까지 여성 기독교인의 인권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김필레(1891~1983) 선생님은 한국YWCA의 창설자 중의 한 명으로서 여성 교육을 통한 여성 인권 향상에 평생을 받쳤습니다. 김필레 선생님의 여성 교육 사업과 여성 리더십 구축을 위한 노력은 미래를 지향하는 끊임없는 질문에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1966년 10월 『새가정』 잡지에 ‘도와주며 사는 나라’에서 김필레 선생님은 다음과 같은 글을 실었습니다. “차라리 유능한 청년 하나를 키워내는 것이 그가 (죽어서) 더 오래 기억 되어지는 일이 되지 않을까?” 김필레 선생님은 부자들이 죽으면서 화려한 산소를 짓고 자신의 이름이 기억되길 원하는데, 이것보다는 내일을 위해

세계 젊은이들을 교육하는 것이 유의미한 일이 되지 않겠냐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19세기 서구 여성들은 여성의 인권이 남성과 동등하지 않다는 가부장적인 사고에 대해서 질문하며 여성 참정권에 대한 요구로 여성주의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가부장 사회는 스스로 반성하지 않습니다. “여성에게 왜 투표권이 없지?” 라는 질문은 세계의 절반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목소리를 찾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질문은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성 지도자의 미래가 개척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지도자가 된 이후에도 여성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짐으로써 여성 리더십의 모형을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질문하지 않는 지도력은 사회의 악을 생산하고 그 악은 사회에 시나브로 순환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사악한 지도력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만들며 하나님 나라와 멀어지게 하는지 경험하였습니다.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 1906~1975)라는 정치학자는 나치의 악랄함은 ‘악의 평범성’의 결과라고 분석하였습니다. 유대인 학살 같은 악은 눈에 보이는 뿔 달린 악마들이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평범하게 생긴 이웃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살면서 하루하루 히틀러의 명령을 따랐기에 일어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악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히틀러에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기, 판단하기, 행동하기를 배제하였습니다. 질문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실에 대한 무관심에서 악은 독버섯처럼 피어납니다. 또한 나치에 귀속되어 기계적으로 움직였던 사람들은 히틀러의 명령에 성실히 따르는 것이 자신이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성주의 리더십 구축을 위해 질문 없는 맹목적인 순종은 악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YWCA 김필레 선생님과 같은 분이 강조하였던 미래 지향적

여성 리더십 구축을 위해 성경 속 ‘질문하는 여성들의 리더십’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 미리암 - 생명을 살리는 질문

1 레위 가문의 어떤 남자가 레위 가문의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2 그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도 잘 생겨서, 남이 모르게 석 달 동안이나 길렀다. 3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구하여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강가의 갈대 사이에 놓아두었다. 4 그 아이의 누이가 멀찍이 서서,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5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내려왔다. 시녀들이 강가를 거닐고 있을 때에, 공주가 갈대 숲속에 있는 상자를 보고, 시녀 한 명을 보내서 그것을 가져오게 하였다. 6 열어 보니, 거기에 남자아이가 울고 있었다. 공주가 그 아이를 붙잡고 여기면서 말하였다. “이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7 그때에 그 아이의 누이가 나서서 바로의 딸에게 말하였다. “제가 가서, 히브리 여인 가운데서 아기에겐 젖을 먹일 유모를 데려다 드릴까요?” 8 바로의 딸이 대답하였다. “그래, 어서 데려오너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왔다. 9 바로의 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나를 대신하여 젖을 먹여 다오.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샅을 주겠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젖을 먹였다. 10 그 아이가 다 자란 다음에,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니, 공주는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았다. 공주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하면서,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다.(출 2:1~10)

출애굽과 바벨론 포로 역사는 고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출애굽 사건과,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되는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을 수 없는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의 흐름에는 늘 지도자들의 활약상이 있게 마련입니다. 특별히 출애굽 사건에서는 모세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며 노예생활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한 지도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 주변에 있던 여인들의 역할이 없었다면 우리는 모세를 만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모세의 출생에는 십브라와 부아라는 산파가 있습니다. 당시, 이집트 바로는 산파들에게 히브리 여인이 낳은 아들을 살려두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이 산파들은 바로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남자아이들을 살리고 모세도 살리게 됩니다.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을 따랐다면 아기 모세는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산파들은 히브리 여인들이 이미 자신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아이를 낳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살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바로는 이제 남자 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합니다. 아기 모세는 나일강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갈대 상자를 타고 있었기에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바로의 명령은 절반만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제 아기 모세 구하기 작전이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모세 어머니 요게벳의 지혜와 누나 미리암의 용기를 통해서 말입니다. 어머니는 역청과 나무진을 칠한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고 나일강에 띄웁니다. 갈대 상자는 바로의 딸에 의해 발견되었습

니다. 특별히 미리암은 아기 모세가 나일강에 떠내려갈 때 멀리서 지켜보며 바로의 딸에게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 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아기 모세를 구할 가장 정확한 질문입니다. 미리암의 질문으로 아기 모세는 이집트 왕궁에서 모친의 젖을 먹으며 자라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은 바로의 딸이 누구였는지는 더 자세히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모세가 유아 살해를 당하지 않은 이유는 그 주변의 여인들이 아기 모세를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십브라, 부아라는 산파들. 어머니 요게벳. 그리고 누이 미리암과 바로의 딸까지 말입니다.

또한 모세 주변의 여성들 중에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은 모세에 버금가는 지도력을 지녔습니다. 오경에서 미리암의 지도력은 여성 지도력의 한 모형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미리암은 오경에서 긍정적인 인물로 나오기도 하고 부정적인 인물로 나오기도 합니다. 여호와와 열 가지 재앙(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의 죽음,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처음 난 것의 죽음)을 이집트에 내림으로써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백성들을 도왔습니다. 여호와와 도움으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킵니다. 이런 와중에 가장 큰 어려움은 홍해를 건너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이들은 여호와와 능력에 감사하며 찬양의 노래를 부르는데, 출애굽기 15장에는 모세의 노래(1~18절)와 미리암의 노래(19~21절), 두 가지 노래가 나옵니다. 두 노래가 서로 응답하는 노래로서 불러졌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모세의 지도력을 으뜸으로 삼기에 모세의 노래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미리암의 노래는 홍해 바다를 건너는 장면을 요약 정리했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모세의 노래의 기원이 되었을 것이라는 학자들의 견해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을 좀 더 자세히 살피면서, 10절과 11절(그러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니, 바다가 그들을 덮었고, 그들은 거센 물속에 납덩이처럼 잠겨 버렸습니다. 주님, 신들 가운데서 주와 같은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와 같이 거룩하시며, 영광스러우시며, 찬양받을 만한 위엄이 있으시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을 두 노래의 핵심 부분으로 논하면서 1절~21절, 2절~20절 등의 짝을 이루는 화답송 구조를 나타낸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가 나타내는 이스라엘 전승의 중요성에 관한 의견들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리암의 노래에서 미리암의 정체성이 확증된다는 사실입니다. 미리암은 ‘아론의 누이 선지자’라고 불립니다. 선지자라는 명칭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왕, 제사장과 더불어 3대 중요 지도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에게 붙습니다. 미리암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녀가 지닌 리더십을 고대 이스라엘 전승도 간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소고를 들고 미리암을 따라오는 여인들이 있으며 그들에게 미리암은 “주를 찬송하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던져 넣으셨다.”(21절)라고 노래합니다. 여인들은 소고를 치면서 미리암을 따르며 춤추며 나옵니다.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을 지나게 하신 여호와를 찬양하기 위해 악기와 자신들의 몸을 사용합니다. 노예 생활의 엄매임에서 자유와 해방을 맞은 여인들의 기쁨을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과거의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신 여호와를 온몸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인들을 인도하고 여호와의 이적을 높이는 미리암의 지도력에 우리는 압도됩니다. 미리암이 지니고 있는 지도력은 어떻게 발전했을까요? 그의 지도력은 상황 판단과 적절한 질문에서 시작되었고 발전했습니다. 미리암의 질문에서 강조된 지도력을 두 가지 측면에서 살피고자 합니다.

첫째, 미리암은 동생 모세가 바로의 딸에 의해 발견될 때 시의적절한 질문과 제안을 합니다. 갈대 상자에서 울고 있는 아이는 히브리 아이였고 바로의 딸은 가여운 마음을 지니고 있었습니 다. 이때 미리암은 바로의 딸 앞에 등장하여 “제가 가서, 히브리 여인 가운데서 아기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데려다 드릴까요?”(출 2:7) 그리고 모세 어머니를 불러다가 젖을 먹이게 합니다. 미리암은 바로의 딸과 모세 간의 만남 장면을 전체적으로 간파하고 있습니다. 미리암은 질문을 통해서 바로의 딸이 지니고 있는 아기를 향한 자애심과 친모의 사랑을 연결해 줍니다. 그 질문의 근간에는 모세의 생명을 보전하려는 갈망이 있었으며 바로의 유아 살해라는 무자비에 대한 저항이 있었습니다. 바로의 딸에게 던진 미리암의 질문은 지혜의 발로이며 이로 인해 아기 모세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누나 미리암의 동생 모세를 위한 지혜로운 질문은 미리암이 여 선지자로서 지도력을 발휘할 때도 지속되었을 것입니다.

둘째, 미리암의 질문은 저항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미리암의 이름의 어원상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쓴맛, 고통(마르)’와 ‘저항(메리)’이라 하겠습니다. 이집트에서의 고난 속에서 삶과 억압에 굴복하지 않는 저항의 삶을 미리암의 이름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리암의 질문하는 지도력이 늘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12장에서 미리암은 악성 피부병에 걸립니다. 이 병이 나병인지 아니면 심한 피부병인지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7일 만에 미리암의 병이 나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3~14장에 의하면 악성 피부병에 걸린 경우, 제사장의 진단과 정결 의식까지 14일이 걸릴 터인데, 미리암은 7일 만에 다시 사람들에게로 돌아옵니다. 미리암의 경우 발병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로부터 격리가 더 중요한 쟁점이었던 것으로 보

입니다. 그런데 발병의 발단은 구스 여인과 결혼하는 모세에게 미리암이 질문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민수기 12장 1절에서 미리암이 모세에게 질문을 하는데, 모세는 이 질문에 대해 응답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미리암과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신들과도 말씀하셨음을 강조하자 여호와께서 미리암과 아론의 말을 들으셨습니다(2절). 여호와와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 나타나시어 아론과 미리암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미리암은 악성 피부병을 얻게 됩니다. 모세에게 질문하는 미리암에게 여호와께서는 의문점을 남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는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해야 할까요? 후대 성경 편집자들이 미리암의 지도력을 폄하하기 위해 가부장적인 관점으로 해석한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모세가 아내로 맞이한 구스 여인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스는 지금의 이디오피아입니다. 비록 미리암과 아론은 반대하였으나 구스 여인까지도 모세 공동체에 포함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더 크다고 봅니다.

미리암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성경에 기록되었다고 하더라도, 지도자의 질문은 공동체로 하여금 자신들의 상황을 점검하게 합니다. 이는 지도자의 덕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는 진정한 지도자를 인식하고 따르기 때문입니다. 비록 미리암이 악성 피부병을 얻었다고 하나, 공동체는 그녀를 잊지 않았습니다. 미리암이 진영 밖에서 7일간 지내는 동안 백성들은 그녀를 기다렸습니다(15절). 사람들은 미리암이 다시 그들과 합류한 것을 확인한 후에 행진을 지속하였으며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들어가게 됩니다. 미리암의 리더십이 아론과 모세와 동일했음을 보여줍니다. 여성 리더십을 이행하는 절차에서 생긴 질문과 해답을 찾는 과정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지향적 질문을 계속한다면 강

건한 리더십을 지니게 됩니다.

미리암은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미리암처럼 시의적절한 질문으로 지혜로운 해답을 공유하는 여성 리더십에 여성들은 소고춤을 추며 응답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노예 생활을 벗어나, 생명 되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미리암이 소고를 잡았다>, 마르크 샤갈(Marc Chagall), 1931

## 슬로브핫의 딸들 - 지혜로운 질문

1 슬로브핫의 딸들이 나아왔다. 슬로브핫은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의 가족으로서, 헤벨의 아들이요, 길르앗의 손자요, 마길의 증손이요, 므낫세의 현손이다.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이다. 2 그들은 회막 어귀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도자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호소하였다. 3 “우리의 아버지는 광야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주를 거역하여 모였던 고라의 무리 속에 끼지는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다만 자신의 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없습니다. 4 그러나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그분의 가족 가운데서 아버지의 이름이 없어져야 한다니,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남자 친족들이 유산을 물려받을 때에, 우리에게도 유산을 주시기 바랍니다.” 5 모세가 그들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다.

6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7 “슬로브핫의 딸들이 한 말이 옳다. 그 아버지의 남자 친족들이 유산을 물려받을 때에, 너는 그들에게도 반드시 땅을 유산으로 주어라. 너는 그들의 아버지가 받을 유산이 그 딸들에게 돌아가게 하여라. 8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두어라. ‘어떤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유산을 딸에게 상속시켜라. 9 만일 딸이 없으면, 그 유산을 고인의 형제들에게 주어라. 10 그에게 형제마저도 없으면, 그 유산을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상속시켜라. 11 아버지의 형제들마저도 없으면, 그 유산을 그의 가문에서 그와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서, 그가 그것을 물려받게 하여라. 나 주가 모세에게 명한 것인 만큼, 여기에서 말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지켜야 할 율레이다.’”(민 27:1~11)

민수기는 이집트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거쳐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의 광야 생활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크게 두 부분, 1) 1장 1절~10장 10절과 2) 10장 11절~36장 13절로 나뉩니다. 앞부분(민 1:1~10:10)은 ‘시내산 전승’에 속하기 때문에 출애굽기 19장 1절 이후의 레위기까지 포함하는 맥락에서 읽게 됩니다(출 19:1~민 10:10). 왜냐하면 출애굽기 19장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들어오고 이들은 민수기 10장 11절에서 마침내 시내산을 떠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 약 40년의 기록을 담고 있는 민수기는 다양한 이야기들과 장르를 담고 있습니다. 민수기의 히브리어 제목은 ‘베미드바르’입니다. 이는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제목이 알려주는 바, 민수기에서 우리는 광야 생활의 여정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라는 한국어 성경 제목은 희랍어의 ‘숫자들’을 뜻하는 ‘아리스모이(Aριθμοί)’에서 유래했습니다. 민수기의 인구 조사를 중시하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민수기는 ‘광야에서’라는 히브리어 제목이 보여주듯이 인구 조사뿐만이 아니라 광야에서 발생 가능한 이야기들을 총체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1장은 인구 조사로 시작되고 총 36장으로 구성되었으며 계보와 규례, 지파 분배 등의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스라엘의 다양한 광야 생활에서 볼 여성들은 미리암처럼 질문을 던진 슬로브하트의 다섯 딸들입니다. 이 여성들은 민수기 27장에 등장하는데 자신들의 유산 배정을 요구하였습니다. 특별히 민수기 36장에서 이들은 소송당사자들로 다시 등장하여 여성들의 유산 상속의 정당성 요구하며 민수기의 대미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남자들 명단을 위주로 진행된 인구조사와 지파 분배, 유산을 기록하고 있는 민수기에 슬로브

핫의 딸들의 등장은 가부장 사회에서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여성들의 참정권 요구와 같습니다. 다섯 자매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유지시킨 지혜로운 여성들입니다. 이 여성들의 지혜로운 질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보고자 합니다.

자매들의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와 디르사입니다 (민 27:1~11). 그들의 아버지 슬로브핫은 므낫세의 자손인 슬로브핫이었습니다. 그런데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이 광야에서 사망합니다. 유업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가부장 사회에서 아버지의 부재가 주는 여파는 지대합니다. 다섯 자매는 자신들에게 미래의 희망 없음을 직감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우리들의 아버지의 이름이 삭제되었습니까?라는 지혜로운 질문을 합니다. 가부장 사회에서 아버지의 중요성을 내세우면서 자신들의 권리도 슬로브핫의 이름으로 지속되길 원하였습니다.

다섯 자매가 질문을 하러 찾아간 곳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다섯 자매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여호와에게 자매들이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여호와는 “슬로브핫의 딸들이 한 말이 옳다. 그 아버지의 남자 친족들이 유산을 물려받을 때에, 너는 그들에게도 반드시 땅을 유산으로 주어라. 너는 그들의 아버지가 받을 유산이 그 딸들에게 돌아가게 하여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두어라. ‘어떤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유산을 딸에게 상속시켜라.’”(민 27:7~8)”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다섯 자매의 말을 옳게 여기셨습니다. 그들의 질문이 온당하고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 내기에 충분했습니다. 만약, 딸이 없으면 기업은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고, 형제가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돌아가고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며 가까운 친족에게 주

어 받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가 모세에게 명령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었습니다. 딸들이 지혜롭게 질문하지 않았다면 딸들의 권리는 생성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질문으로 유산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다섯 자매들은 세 가지 점을 확실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질문의 대상자를 올바르게 선정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찾아갑니다. 모세는 당시 규례를 선포하고 여호와와 율법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지도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과 심도 깊은 관심을 지니고 있을 때, 해답을 줄 수 있는 정확한 상대를 지혜롭게 찾게 됩니다. 둘째는 현실 직시입니다. 아버지의 그간의 삶을 평가하면서 그의 삶에 과오가 없었음을 사람들에게 확인해 주었습니다. 슬로브핫이 여호와를 거슬러 모였던 고라의 무리에 있지 않았기에 그 죽음에 잘못이 없다고 딸들은 항변합니다. 기존의 규례가 잘못되었음을 알리는 질문을 던지기 위해 아버지를 통해서 현실 상황을 돌아보았습니다.

셋째는 권리의 확증과 규례의 실천을 위해 질문을 기억하며 미래 지향적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7장 3~4절에 보면 다섯 자매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다시 등장합니다. 여호수아 17장은 슬로브핫이 속해 있던 므낫세 자손들의 기업이 결정되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제비를 뽑는 상황에서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 등장합니다만, 슬로브핫은 딸밖에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웬지 제비 뽑는 이 상황에서 딸들은 소외되는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4절을 보면, ‘그들(다섯 자매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에게 나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들의 기업을 재청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섯 자매들은 제비 뽑는 상황에서 제사장과 여호수아에게 자신들의 받을 기업을 상기시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6절을 다시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다섯 자매들이 기업을 받는 것에 대해 의아했

있음을 방증할 수 있습니다. 다섯 자매들이 기업을 받는 이유를 다시 한 번 적시함으로써 왜 여인들이 기업을 받는지에 대한 인과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섯 자매들은 이스라엘에서 어떤 지도력을 발휘하였을까요? 이 여성들 스스로가 지도자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진행되던 가부장 중심의 호주제와 유산 상속법을 수정하였다면, 그들의 역할은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후대 유대 전통은 이 여성들을 지혜롭고 의롭다고 해석합니다(바벨론 탈무드의 바바 바트라[Baba Bathra] 119b). 특히 이 탈무드에서는 모세가 시형제 결혼 법칙에 대해 설명하려는 기회를 틈타 자신들의 유산에 대해 문의했다고 덧붙이면서 그들이 지닌 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이름이 인구 조사 명단에 기록되었다는 것만으로도 후대인들에게 기억되어야 할 여인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26장에는 두 번째 인구 조사가 나옵니다. 야곱의 아들 12명(르우벤, 시므온, 갓, 유다, 잇사갈, 스블론, 요셉, 베냐민, 단, 아셀, 납달리, 레위)과 유다와 요셉의 두 아들들에 대한 명단이 적혀있습니다. 여성 이름은 두 구절에 나옵니다. 슬로브핫의 다섯 딸들의 이름(말라, 노나, 호글라, 밀가, 다르사; 33절)과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과 모세의 누이 미리암(59절)이 나옵니다. 므낫세의 자손 중에 아들이 없었던 사람은 슬로브핫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슬로브핫의 딸들은 침묵하지 않고,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하며 부당함에 지혜롭게 질문하였습니다. 여성 유산 상속 규례를 규정화하는 선구자적 역할을 하였기에 그들의 이름은 오늘까지 기억되고 있습니다.



〈슬로브히의 딸들〉, 찰스와 줄리어스(Charles F. Home and Julius A. Bewer), 1908

## 드보라 - 비전을 제시하는 질문

1 에훗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주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2 그래서 주께서는 하솔을 다스리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내주셨다. 그의 군지휘관은 이방인의 땅 하로셋에 사는 시스라였다. 3 야빈은 철 병거 구백 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십 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하게 억압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주께 울부짖었다. 4 그 때에 이스라엘의 사사는 랍비돗의 아내인 예언자 드보라였다. 5 그가 에브라임 산간지방인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드보라의 종

려나무' 아래에 앉아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와 재판을 받곤 하였다. 6 하루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납달리의 게데스에서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불러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너는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서 만 명을 이끌고 다볼 산으로 가거라. 7 야빈의 군지휘관 시스라와 그의 철 병거와 그의 많은 군대를 기손 강 가로 끌어들이 너의 손에 넘겨 주겠다.’” 8 바락이 드보라에게 대답하였다. “그대가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가겠지만, 그대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소.” 9 그러자 드보라는 “내가 반드시 장군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시스라를 한 여자의 손에 내주실 것이니, 장군께서는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갔다. 10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를 게데스로 불러모았다. 바락이 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쳐올라갔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떠났다. 11 그런데 모세의 장인 호باط의 자손 가운데 헤벨이라고 하는 겐 사람이 동족을 떠나, 게데스 부근에 있는 사아난님 상수리나무 곁에 장막을 치고 살았다. 12 시스라는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이 다볼 산으로 올라갔다는 소식을 전하여 듣고, 13 그의 전 병력, 곧 구백대의 철 병거와 그가 거느린 온 군대를 이방인의 땅 하로셋에서 기손 강 가로 불러모았다. 14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하였다. “자, 가십시오. 오늘이 바로 주께서 시스라를 장군님의 손에 넘겨 주신 날입니다. 주께서 친히 그대 앞에 서서 싸우러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락은 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다볼 산에서 쳐내려갔다. 15 주께서 시스라와 그가 거느린 모든 철 병거와 온 군대를, 바락 앞에서 칼날에 패하게 하시니,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뛰어 도망쳤다. 16 바락은 그 병거들과 군대를 이방인의 땅 하로셋에까지 뒤쫓았다. 시스라의 온 군대는 칼날에

쓰러져,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삿 4:1~16)

사사들은 여호수아 사후에 왕이 아직 없던 시절인 기원전 1200~1000년 경, 이스라엘인들을 이끌어간 지도자들입니다. 사사 시대에 살던 이스라엘인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주변 왕들과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사(士師)들은 히브리어로 ‘쇼페팀’이라고 합니다.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사사들은 내부적으로는 재판관 역할을 하였고, 외부적으로는 전쟁을 이끄는 장수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사사기에 기록된 사사들은 옷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바락, 기드온, 아비멜렉, 올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입니다. 이 중에서 드보라만이 여성 사사로서 등장하며 사사기 4장과 5장에 기록되었습니다. 남성 사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성경에 그녀의 이야기가 기록되었다는 것만으로도 드보라가 지닌 지도력은 현재 기독교 여성들에게 리더십의 모형을 줍니다.

사사 에훗이 사망한 후, 사사가 된 드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재판합니다. 성경은 ‘여 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랍비돗의 아내(히브리어로는 ‘랍비돗 에쉐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랍비돗은 오직 사사기 4장 4절에만 나오기 때문에 드보라를 알기 위해서 랍비돗의 뜻을 살피는 것은 유의미합니다. 랍비돗(Lappidoth)은 인명일 수도 있고 지명일 수도 있습니다. 랍비돗은 고유 명사로서 랍피드(Lappid)라는 명사의 여성 복수형입니다. 그런데 랍피드는 햇불을 의미합니다(참조, 삿 7:16,20). 랍피드라는 단어에서 햇불이라는 뜻을 차용하고 아내로 번역된 ‘에쉐트’를 여인으로 번역을 한다면, 랍비돗의 아내 드보라는 히브리어 문법상 ‘랍비돗 지역의 여인 드보라,’ 또는 ‘햇불 여인 드보라’라고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드보라의 사사로서의 활약상을 인정한

다면, 열정의 여인 드보라라는 타이틀로 그녀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남편의 이름을 참고하지 않고서 말입니다. ‘햇불 여인 드보라’의 지도력은 4장에서 서술적 이야기로 적혀 있으며 5장에서는 노래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왕 야빈에게 학대를 받았고 이로 인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야빈에게는 시스라라는 용맹스러운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4장 6절에서 드보라는 바락을 불러서 여호와와 명령을 상기시키는 질문을 합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블론 자손 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그런데 바락은 드보라에게 함께 갈 것을 요청합니다(8절). 드보라의 지도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바락이기에 그녀 없이는 시스라에게 가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드보라는 겁을 먹고 있는 이스라엘 장군 바락에게 같이 가겠다고 말합니다. 시스라는 여인의 손에 의해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말입니다(9절). 드보라가 원하는 바는 무엇이였을까요? 장군이 지녀야 할 용감성이었을 것이고 여호와와의 비전을 확인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바락은 여호와께서 이미 주신 용기를 감지하지 못하였고 이런 바락을 향해 드보라는 수사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승리의 여호와와 날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자, 가십시오. 오늘이 바로 주께서 시스라를 장군님의 손에 넘겨 주신 날입니다. 주께서 친히 그대 앞에 서서 싸우러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락은 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다볼 산에서 쳐내려 갔다”(삿 4:14). 드보라는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앞서가 실 것입니다”라는 바락의 응답을 요청하는 수사학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승리는 여호와와 손에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바락보다 먼저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었고 이로 인해 시스라는 도망갑니다.

또한 드보라는 바락이 간과하고 있는 여호와와 비전을 상기 시킬 때, 상대방을 좌지우지하는 고압적 자세로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드보라는 비전이 보이는 곳에 바락과 함께 동참하였습니다(10절). 비전을 함께 이루는 진정한 지도력이 돋보이는 상황입니다. 지도자가 질문을 위한 질문, 비판을 위한 비판을 던지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지도자의 결단과 실천이 담겨 있는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공동체 구성원들이 참여합니다.

사사기 5장에 있는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는 이스라엘의 오래된 시가입니다.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됩니다(7절). 드보라는 어머니의 입장에서 지도자들을 독려하며 천지를 주관하는 여호와를 찬송합니다(4~5절). 또한 여호와와 공의로우심이 전달되고 노래가 불려지길 원합니다(11절). 12절에는 “일어나라, 일어나라, 드보라야. 일어나라, 일어나서 노래를 불려라. 일어나라, 바락아. 포로들을 끌고 가거라, 아비노암의 아들아”라고 노래했고, 13절에는, “그 때에 살아 남은 이들이 백성의 지도자들과 더불어 내려왔고,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려고 용사들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두 지도자들이 함께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스라의 죽음은 4장 17절에서 22절에 서술되어 있는데, 헤벨의 아내 야엘이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았습니다.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해왔지만 이미 시스라는 9절의 드보라의 말처럼 여인 야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 시스라 사건은 5장 노래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야엘은 어느 여인들보다 복을 받게 된다고 칭송을 받습니다. 이 노래에는 아들의 귀환을 기다리는 시스라의 어머니가 안타까워하는 모습

으로 등장합니다. 아무리 적대자의 어머니이더라도 자식을 잃는 어머니의 심정은 헤아릴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스라의 어머니는 본문이 지니고 있을 문학적 상상력을 요청합니다. 가나안 왕 야빈에게 학대를 받은 이스라엘인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승전보가 들린다면 여호와와 은혜를 더 송축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적대자의 어머니를 통한 안타까운 상황을 소개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완전한 승리라는 시적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드보라가 사사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동안 이스라엘에는 사십년 간의 평온함이 지속됩니다(삿 5:31). 드보라의 여성 리더십은 바락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확증시키는 수사학적 질문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보라는 질문만 쏟아내거나 바락에 대한 비판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비전에 함께 동참함으로써 자신의 지도력을 유지시켰고, 바락의 위기도 강건하게 만들었습니다. 드보라는 아직 왕권이 성립되지 않은 이스라엘에게 최고의 지도력을 발휘한 여성이었습니다. 통찰력을 지닌 여성으로서 하나님의 비전을 식별하면서 그녀의 리더십은 빛을 발했을 것입니다.

**룻 - 포용성을 보여주는 질문**

12 “돌아가 다오, 내 딸들아. 제발 돌아가거라. 재혼을 하기에  
 는, 내가 너무 늙었다. 설령, 나에게 어떤 희망이 있다거나, 오늘 밤 내가 남편을 맞아들여 아들들을 낳게 된대거나 하더라도,  
 13 너희가, 그것들이 클 때까지 기다릴 셈이냐? 그 때까지 재혼도 하지 않고, 홀로들 지내겠다는 말이냐? 아서라, 내 딸들아.

너희들 처지를 생각하니,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구나. 주께서 손으로 나를 치신 것이 분명하다.” 14 그들은 다시 한 번 큰소리로 울었다. 마침내,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면서 작별 인사를 드리고 떠났다. 그러나 롯은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다. 15 그러자 나오미가 다시 타일렀다. “보아라, 네 동서는 저의 겨레와 신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네 동서의 뒤를 따라 돌아가거라.” 16 그러자 롯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겨레가 내 겨레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17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 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룻 1:12~17)

룻기는 에스더서와 더불어 여성의 이름으로 된 성경이며 롯, 나오미라는 여성들이 주요 인물로 등장합니다. 룻기는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위치하고 있기에 기독교 전통에서는 역사서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유대 전통에서는 룻기를 역사서가 아닌 성문서에 포함시킵니다. 성문서 중에서도 룻기는 아가, 예레미야 애가, 전도서, 에스더서와 더불어 ‘다섯 권의 두루마리(메길롯)’로 분류됩니다. 유대인들은 메길롯을 각각의 절기 때에 읽었는데요. 칠칠절에 읽힌 메길롯이 룻기입니다. 다윗이 칠칠절에 사망하였다는 유대교 전승에 따라서 룻기를 칠칠절에 읽는 관습이 생겼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룻기를 사랑하는 일면을 보여 줍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이상적인 왕인

다윗의 증조할아버지 오벳을 낳습니다. 그 계보는 예수님에게 까지 전승됩니다(마 1:5). 다윗의 혈통에는 이방 지역, 모압의 피가 흐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랑하는 다윗의 선조모는 이방인입니다. 따라서 룯기가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주제는 포용성입니다. 그리고 그 포용성은 룯, 스스로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룯과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 여성 리더십의 한 모형을 살피고자 합니다. 특별히 여성 그룹 내의 리더십에서 조명되길 바랍니다.

룯기는 홍년이라는 자연재해와 가족 죽음이라는 이별로 시작합니다. 앞서 보았듯이 유대인들은 룯기를 역사적으로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역사적 배경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기독교 전통에 따라, 룯기 1장 1절이 기록하였듯이, 왕권이 시작되기 전, 이름 모른 한 사사 시대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윗 왕이 태어나기 4세대 전, 중앙집권적인 권력이 나오기 전 시대입니다. 따라서 이때에 유대 사람들은 자연환경에 따라 이동하였다고 봅니다. 룯의 시아버지 엘리멜렉처럼 말입니다.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이 고향인데, 기근으로 인해 그의 아내 나오미와 모압 지방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말론과 기론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오르바와 룯이라는 며느리도 있었습니다. 세 여성의 남편들은 모두 모압에서 사망합니다. 남자와들의 이별로 이제 룯기는 여성들의 이야기로 집중됩니다. 나오미는 모압 출신의 오르바와 룯, 두 며느리와 모압에서 십년을 살았습니다. 이제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이 와중에 두 며느리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길 강권합니다. 그런데 룯은 나오미와 지속적으로 동행하길 원하면서 모압을 떠납니다.

룯은 고향땅으로 돌아가라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제안에 반문

합니다. 그리고 나오미를 따라 유대 땅으로 들어옵니다. 거기서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를 만납니다. 모압 여인 룯과 보아스 사이에서 오벳이라는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오벳을 낳은 것이 중요한 이유는 오벳은 다윗의 증조할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오벳이 이새를,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모압은 현재 요르단 지역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다윗 왕이 모압 여인의 혈통을 지니고 있다는 점은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이스라엘인들이 이방인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선민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모호하기만 합니다. 룯기의 포용성을 본다면 어느 한 민족의 순수한 혈통을 강조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유대교 전통의 주해서인 미드라쉬 룯 주타는 베들레헴으로 모압 며느리들을 데리고 가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해서 나오미가 룯에게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느 종교나 전통적으로는 지켜야 할 종교적 이데올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룯은 종교적, 지역적 갈등을 넘어서는 여성들의 포용적 연대 관계를 보여줍니다. “그러자 룯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도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도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겨레가 내 겨레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룯 1:16)

모압 여인 룯이 기존의 관습을 유지하고 타인의 이데올로기를 자신의 모범으로 삼았다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도 태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언행과 행동을 결정짓는 잣대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룯은 시어머니와 여성으로서의 연대 의식을 고취시키면서 이스라엘로 동행하기로 결정합니다. 룯은 유대와 모압으로 양분된 기존 질

서에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들이 사망한 경우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사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당시와 같은 가부장 사회에서 남성 노동력을 상실한 가정에서는 또 다른 남성을 통해 삶을 이어가길 바랬을 것입니다. 나오미 혼자 살기에는 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성들끼리 느끼는 서로의 연민과 연대의식이 두 여인의 삶을 지속시켰다고 봅니다. 룯은 스스로가 이스라엘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어머니와의 연대를 위해 나오미의 하나님까지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룯의 포용성입니다.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배타적이고자 하였지만 룯은 그 반대였습니다.

룯의 시어머니에 대한 연대 의식은 나오미의 계보(룯기 4장)에도 등장합니다. 4장 13절에서는 보아스가 룯을 맞아 아들을 낳았다고 기록하지만, 14절에 등장하는 여인들은 이 아이를 나오미의 계보에 넣고 있습니다. “이웃 여인들이 그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 주면서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 하고 환호하였다. 그들은 그 아기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다. 그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이다.”(룯 4:16)

비록 오벳의 생물학적 부모님은 룯과 보아스이지만 나오미와 주변 여성들의 연대 의식 속에서는 오벳은 ‘나오미’의 아이였습니다. 아니 ‘여성 모두’의 아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룯은 어머니와 동행하길 원했습니다. 룯은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제안에 반문하면서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포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로 인해 룯은 다윗을 낳았고 예수님의 계보에도 그녀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룯과 나오미, 그리고 주변의 여성들은 여성들 간의 리더십의 모형을 보여줍니다. 바로 여성들 간의 연민과 연대의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성 리더십은 본인 위주로 주어진 상황에 대

해서만 성실히 순응(?)하는 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나치에 복무한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자신의 일에 성실히 충성했기에 히틀러는 절대 권력으로 무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악을 악으로 인지 못하였고 악을 아주 평범하게 사회 속에 순환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나의 상황에 대해 질문하며 공동선을 이루기 위해 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 연대 의식은 타인에 대한 무관심을 끊어냅니다. 그리고 여성과 여성이 서로에게 질문하고 해답을 찾으면서 새로운 리더십을 형성하고 미래의 비전을 밝히게 됩니다. 포용성을 지닌 이방 여인 뜻을 통해 다윗과 예수님의 탄생이 이뤄졌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다문화 사회를 향해서 뜻은 질문합니다. 유대인의 다윗처럼 이상적인 지도자로서 ‘당신들의 다윗’이 다문화 자손들 중에서도 태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면, 우리는 포용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성 리더십의 포용성은 연민에서 출발하고 그 연민은 연대의식을 갖게 할 것입니다.

## 생각해 봅시다

1. 상상해 봅시다. 김필레 선생님께서 오늘 다시 YWCA를 찾으신다면 어떤 질문을 하실까요? 그분은 아직도 한국 여성들의 인권 신장과 교육을 강조하실까요? 미투운동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실까요?
2. 한국 교회에서 오늘날 가장 큰 쟁점은 무엇입니까? 신앙과 실천으로 교회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3. 이 과에 등장하는 여성들(미리암, 슬로브하트의 딸, 드보라, 롯)중에 본인이 가장 닮고 싶은 사람은 있습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4. 오늘날 가족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혼인을 통해서 맺어진 배우자의 가족이 본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5.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리더십을 위해 가장 필요한 덕목은 무엇일까요?
6. 생명을 살리는 여성들로서 현재 교회와 사회를 위해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 예수와 함께 한 여성들

### 생각 열기

신약성경의 첫 장을 열면 우리는 복음서를 만나게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 기사가 각기 다른 관점에서 기록한 예수에 관한 이야기는 세상을 구원하신 기쁜 소식이라 하여 ‘복음(Gospel)’이라고 불립니다. 본래 복음을 의미하는 헬라어 ‘유앙겔리온(εὐαγγέλιον)’은 로마 제국에서는 승전보나 새로운 황제의 등극을 알리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초대 기독교에서는 로마 제국의 통치와 관련된 이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행적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길이자 동시에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예수와 남성 제자들의 주도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복음서는 예수 탄생 이전부터 죽음과 부활에 이르기까지 그와 함께 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보도합니다. 예수의 선포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 운동에 남성들 못지않게, 아니 그 이상으로 여성들의 고귀한 헌신과 사역이 있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대부분의 여성은 가정이라는 사적 공간에서 자녀 양육과 가사를 담당하는 열등하고 종속적인 존재였습니다. 기원 후 90년경 유대 문헌에는 “딸에게 토라를 가르치는 이는 방종

을 가르치는 것이다”라고 기록될 정도로 여성에게는 교육의 기회조차 거의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공적 예배에서 “하나님, 나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시고 노예로 태어나지 않게 하시고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인간이 정한 수많은 사회적 규범과 질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올곧게 실현되는 공동체의 이상과는 달리 나와 다른 존재를 타자화하고, 그들을 억압하고 배제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기독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오랜 역사는 성경을 여성 억압의 준거 틀로 삼고, 성경 해석의 권위를 남성 목회자와 지도자의 손에 위임해왔습니다. 이 시대 생기발랄하고 능력 많고 우수한 여성들은 교회 울타리 안으로 진입하는 순간, 다소곳한 여성, 즉 교회와 남성에게 순종하며 믿음으로 봉사하는 현숙한 여성이 되어야 한다는 무언의 압력을 받습니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성장한 교회는 하나님의 해방과 구원, 예수의 하나님 나라의 초대, 나아가 계속해서 개혁해가는 기독교 정신과는 다른 이율배반적 행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1세기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유대 사회에서 율법적으로 죄인이 되고 사회적으로 낙인찍히고 모든 권위 체계에 의해 눌린 자, 낮은 자, 천한 자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습니다(눅 4:18~19).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 고향에서조차 배척당했던 예수는 죄인, 세리, 어린이와 함께 존재감 제로인 여성에게 먼저 다가갔습니다. 그는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고통을 치유하며, 그들과 한 밥상에서 먹고 마시며,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예수를 만난 여성들은 아내, 엄마, 딸이라는 사회적 역할과 한계를 넘어 예수와 남성 제자들의 보조자가 아니라 복음의 담지자요, 선포자, 그리고 복음의 증언자로서 당당히

활동했습니다. 이 장에서는 예수를 만난 여성들, 그 오래되고 익숙한 이야기를 읽으며 교회에서 들려지지 않았던 그녀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 봅니다. 그리하여 그녀들이 행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역과 조화로운 삶에 대해 이해하고 우리에게 주는 통찰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 복음의 시작, 대담한 소녀 마리아

26 여섯 달만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께로부터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보내심을 받아서, 27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로 갔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28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은혜를 입은 사람아, 기뻐하여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29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몹시 놀라 '이 인사말이 대체 무슨 뜻일까' 하고 생각하였다. 30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31 보아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32 그는 위대하게 되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33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34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기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35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 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36 보아라, 네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

하지 못하는 여자라는 소문이 났으나, 그는 임신한 지 벌써 여섯 달이 되었다. 37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38 마리아가 말하기를 “보십시오,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천사님의 말씀대로 나에게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였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눅 1:26~38)



〈수태고지〉, 프라 안젤리코(Fra Angelico), 1430년경

여러분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이탈리아 피렌체 산 마르코 수도원의 한쪽 벽에는 1430년경 프라 안젤리코(Fra Angelico, ca.1395~1455)가 그린 ‘수태고지’의 한 장면이 있습니다. 수도원을 찾는 많은 사람들은 이 성서화를 보며 마음 깊이 감동을 받습니다. 크고 화려한 날개를 단 천사가 기도문을 읽고 있는 마리아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마리아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당혹감이 교차합니다. 그러나 이내 두 손을 모으고 천사를 향해 몸을 낮추며 었된 얼굴로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천사도 마리아도 송고하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며 온 몸으로 경이로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비둘기로 표상된 신령한 빛이 마리아에게 내려옵니다. 아마도 이 광경이 마리아에 대해 떠올릴 수 있는 전형적인 이미지일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마리아가 남성의 도움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계시를 보도합니다. 누가는 이 황당한 계시를 따르는 마리아의 모습을 전합니다. 이에 마리아는 스스로 주의 여종이라 부르며 주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대답합니다(눅 1:38).

우리는 예수의 탄생 보도를 보며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의 순종과 헌신을, 마태복음에서는 잉태한 약혼녀를 조건 없이 맞이하는 요셉의 의로움과 신앙을 칭송합니다.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본문이 전하는 바, 이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섭리임을 되새깁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독교인들은 처녀의 몸을 통해 오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마리아는 예수의 신성을 드러내는 수동적이고 부차적 존재로 간주돼 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다시 한 번 자세히 읽어봅시다. 마리아의 대답이 순종적이고 수동적이기만 했을까요? 주의 여종이라는 자기 고백과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반응이 1세기 유대 가부장제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사실 마리아의 응답과 태도는 가부장제 사회에 순응한 사람이라면 결코 시도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소위 세상의 순리를 넘어서는 결연한 의지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혼전 임신에, 자칫 ‘애비 없는 자식’을 낳아 키워야 하는 암담한 미래에, 아니 그보다 먼저 약혼자 요셉에게 성령

으로 잉태했다고 말해야 하는 상황이 십대 소녀에게 가당키나 했을까요? 천사에게 계시를 받는 순간에도 마리아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어?”라고 반문하면서 온갖 생각으로 머릿속이 어지러웠을 것입니다. 일견 성경에서 여성에게 요구되는 태도는 듣는 것이었고 듣고 이해할 수 없을 때에는 조용히 숙고하고 배울 것을 권면합니다. 복음서를 살펴봐도 여성들이 직접 질문하는 장면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해할 수 없는 계시를 받고 천사에게 질문으로 되받아쳤고 이후 자신의 행동을 결정했습니다. 마리아는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쉬운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구약의 예언자들처럼,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지이다”라는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무모한 제안을 대담하게 수락합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비천한 나를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자부심보다는 앞으로의 일에 대한 염려와 그 책임감을 더 크게 가졌을 것입니다. 그녀는 자기 앞에 평범하고 편한 삶이 펼쳐지지 않으리란 것을 예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러 온 목자들의 말을 마음에 새겼고(눅 2:19), 12살 예수가 성전에서 선생들과 태연하게 토론하는 것을 보면서 그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했습니다(눅 2:51). 예수가 장성한 후 마리아는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그에게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알려졌습니다. 예수는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답했지만, 그녀는 아들의 능력을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첫 번째 표징을 잘 행할 수 있도록 하인들에게 지시하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요 2:5). 중국에는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고통받는 예수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아들의 주검을 거뒀습니다(요 19:25). 마리아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첫 번째 담보자로서 예수의 어머니이자 동역자로서 가장 가까워서 그를 신뢰하고 따랐습니다. 그녀는 예수에게 삶을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가 전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나

누며 그 살림을 책임감 있게 이끌어갔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러한 마리아의 선견지명은 엘리사벳이 그녀의 잉태를 알고 기뻐하는 장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노래는 구약에 나타난 미리암의 노래와 한나의 노래와 함께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노래로 손꼽힙니다. 마리아는 권세자를 내리고 비천한 자를 높이며 세상의 질서를 거꾸러뜨림으로써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눅 1:46~55).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계획 즉,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마리아에게서 시작되었음을 보도합니다. 하긴 구약의 선지자 ‘미리암’의 헬라어 표기가 ‘마리아’라는 사실만으로도 당시 흔하디흔한 이름이었던 마리아, 그녀가 이스라엘의 해방과 건설의 중심에 있던 미리암의 계보를 잇고 있다는 사실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마리아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순결한 처녀의 이미지를 덧씌웠습니다. 성녀 마리아에 대한 환상은 그녀를 신성한 예수의 어머니이자 교회와 제도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모범적인 여인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사실 헬라어 성경 70인 역본에서 동정녀를 뜻하는 ‘파르테노스(παρθένος)’는 문자 그대로 ‘처녀’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히브리어인 ‘알마’를 번역한 것으로 결혼 연령에 이른 젊은 여자일 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서보다 먼저 기록된 바울 서신에서는 ‘파르테노스’라는 말 대신 ‘귀네(ὑβύνη)’ 즉 여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여인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습니다(갈 4:4)”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헬라어에 능했던 바울은 애당초 마리아를 순결한 존재로 여기거나 신비화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바울이 활동했던 그레코-로마 지역에서는 신과 인간 사이에 태어난 반신반인에

대한 종교적 신화들을 흔하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서신에서는 이러한 모티브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유대인으로서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한 여인에게서’ 그리고 ‘유대 율법 아래에서’ 난 자로서 예수를 묘사했습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우리의 메시아가 되셨던 것입니다(갈 4:4~7). 마리아에 대한 바울의 이해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전하는 이해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렇게 볼 때 초대 교회는 시간이 지나고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예수의 신성함과 동시에 마리아의 성결함을 강조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가부장 사회에서의 바람직한 여성상 -순결한 성녀이자 헌신적 어머니-이 교회 제도와 교리에 그대로 유입되면서 본래 예수가 전하고 활동했던 하나님 나라의 삶과는 동떨어진 수동적이고 순응적인 여성들의 이야기가 전달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종과 헌신과 인내의 덕을 보여준 어머니 마리아보다는 하나님의 계시 앞에 대담했고, 예수의 삶을 성실하게 이끌어냈던 마리아, 그녀가 복음서의 처음과 마지막에 서서 예수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 그 기쁜 소식은 한 여인의 삶 속에서 결연한 자기 결단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 복음의 증언, 예수를 따르는 여성 제자들



예수가 활동했던 지역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391843&cid=50762&categoryId=51387>

예수는 제자들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가 활동한 지역은 복음서마다 차이가 있지만 고향인 나사렛과 근처 갈릴리와 가버나움, 그리고 이방의 해안 지역인 두로와 시돈을 비롯하여 유대인과 대척점에 있는 사마리아를 거쳐 생을 마감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예수가 다닌 곳마다 사람들은 치유와 축귀뿐만 아니라 많은 무리를 먹이는 이적을 행하고, 율법에 정통했던 바리새인과의 논쟁에서 결코 뒤진 적이 없으며, 권력의 중심에 선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과도 당당하게 맞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는 그 분의 소식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이

러한 이유로 예수가 가는 곳에는 언제나 그를 쫓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예수를 가까이서 따르며 그의 권한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던 무리를 제자(μαθητήρις), 열둘(δώδεκα) 혹은 사도(ἀπόστολοι)라고 불렀습니다(마 10:2, 막 6:30, 눅 6:13 외). 그들은 모두 남성이었으며 예수에게 직접 부름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복음서는 예수를 만난 여성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복음서에는 여성에 대한 소명 설화도 없으며 그들에게 제자나 사도라는 표현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성에게 특별한 권한을 위임하거나 지도자로 삼았다는 기록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남성 제자에 버금가는 활동을 했음을 행간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복음서가 기록된 시대는 가부장제 사회였고, 이를 기록한 이들이 남성이었으며, 결정적으로 복음서의 기록 목적과 관심이 여성이 아니라 예수와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복음서 기자들은 글을 기록하고 편집하는 과정에서 남성 제자만큼이나 다양하고 많은 여성의 이야기들을 조정하고 누락시켰을 가능성이 큼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예수를 만난 많은 여성들은 양육하고 희생하고 의존적인 자기 한계를 벗어나 어떻게 제자직을 감당했는지를 보도합니다. 예수의 여성 제자들, 예수의 공생애에서 함께 활동한 여성 제자들의 이야기를 행간을 통해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들은 직접적으로 제자나 사도로 불리지는 않았으나 예수와 같은 섬김을 실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복음의 증언자로서 여성 제자직에 주목하여 다음의 본문을 함께 살펴봅시다.

## 1. 복음의 마중물, 베드로의 장모

29 그들은 회당에서 나와서, 곧바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갔다. 30 마침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사정을 예수께 말씀드렸다. 31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는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32 해가 저서 날이 저물 때에,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33 그리고 온 동네 사람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34 그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 주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 예수께서는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다.(막 1:29~34 참고. 마 8:14~17, 눅 4:38~41)

첫 번째 여성 제자직의 이야기로 베드로 장모의 치유 사건에 주목해 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공관복음서에서 모두 기록되었으나 특히 마가는 이것을 예수의 첫 번째 치유 사건으로 보도합니다. 물론 기독교는 이 사건을 크게 주목하지는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세례를 받은 예수는 제자를(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부르시고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았습니다. 헬라어로 ‘쉬나고게(συναγωγη)’라 불리는 회당은 주로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율법을 읽고 해석하는 종교적이고 교육적 기능을 담당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마을의 중요한 사안을 논의하고 해결하는 사회적이고 정치적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는 자신의 지혜와 권능을 펼치고 그날 오후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마침 베드로의 장모가 심한 열병으로 누운 것을 보고 그는 즉시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누가는 예수가 장모의 병을 꾸짖

어 떠나게 했다고 보도하지만, 마태와 마가는 그가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고 보도합니다. 유대 사회의 관행상 남자가 병든 여인을 직접 만지며 치유하는 행위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장모가 보여준 행동도 관습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치유됐다고 해도 그녀는 사적 공간에 머물며 남성의 보호 아래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오랜 기간 병석에 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그녀가 병치레에 대한 정결 의식도 없이 곧바로 예수와 제자들을 ‘시중을 들었다(수종들었다, 개역개정)’라는 보도도 통상적인 일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시중들다’라는 의미의 헬라어는 ‘디아코네오( $\delta\iota\alpha\kappa\omicron\nu\epsilon\omega$ )’로 원래는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마귀에게 시험 받은 후 천사가 예수를 돌볼 때(마 4:11, 막 1:13), 인자의 섬김을 언급할 때(마 20:28, 막 10:45, 눅 22:26,27), 그리고 여성이 예수를 따르며 섬길 때(마 27:55, 막 15:41, 눅 8:3, 요 12:2) 사용됩니다. 서신서에서는 사도의 자세나 집사의 직분을 나타낼 때 사용되었습니다. 동일한 단어가 번역되는 과정에서 주어가 천사나 여성일 때에는 ‘시중들다’라고 번역되지만 예수에게는 ‘섬기다’라는 단어로 번역됩니다. 이는 원문과는 달리 사회적 관습에 기대어 교회 내 여성의 지위와 역할을 격하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의 섬김은 천사와 예수가 행하는 섬김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베드로의 장모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낮아지심과 섬김을 몸소 보여준 인물이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교회 조직과 관련됐다면 최초의 집사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섬김에 대해 가르침을 받은 열두 제자는 복음서에서 섬기는 모습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단어는 남성 제자에게 사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러한 섬김을 두고 가부장적 사회 구조 속에서 여

성들이 마땅히 행할 가사 노동으로 봐야 하는가 아니면 돌봄과 배려의 리더십을 보여주신 예수의 섬김과 같은 선상에서 봐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6장 1~6절에 따르면 마치 말씀 선포와 식사 봉사라는 섬김인 ‘디아코니아(*διακονία*)’ 사이에 위계적 차이가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마치 남성의 일과 여성의 일 혹은 권위자의 직무와 일반 교인의 직무와 같이 말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식사 봉사를 한 이들이 말씀 선포에 참여한 이들이었다는 점에서 그 둘을 분리하여 볼 필요가 있는가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마가의 본문으로 돌아가 치유받은 베드로의 장모는 사회 제도적 관습을 넘어 자신이 행할 수 있는 최선의 감사의 행위로서 거리낌 없이 예수와 제자들을 돌보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시험을 마치고 지친 예수를 거두고 섬겼듯이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는 여인은 병석에서 일어나자마자 예수와 그 일행을 자발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그 집은 마을의 병자와 귀신들린 자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그 집 문 앞에 와서 예수에게 치유를 받았습니 다. 복음서는 이에 대해 더 이상의 언급은 하지 않습니다. 행간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치유받은 베드로 장모가 행한 섬김, 그것은 다른 병자들에게 또 다른 치유의 마중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막상 예수가 그를 가장 필요로 할 때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잠이 들었습니다(마 26:36~46, 막 14:32~42, 눅 22:39~46). 심지어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습니다(마 26:69~75, 막 14:66~72, 눅 22:56~62, 요 18:15~18,25~27). 엘리자베스 피오렌자와 같은 여성신학자는 예수를 만난 여성들의 섬김은 남성 제자들의 활동과 동등한 것으로 그들은 예수의 여성 제자들이라고 주장합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이점에서 첫 번째 여성 제자일 것입니다.

## 2. 복음의 선포자, 사마리아 여인

(...) 25 여자가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 주실 것입니다” 하니 26 예수께서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하고 말씀하셨다. 27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그 여자와 더불어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예수께서 “웬일이십니까?” 하거나, “어찌하여 그 여자와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28 그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29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30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 (요 4:4~42)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유일하게 요한복음서에만 나타납니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민족의 가슴 아픈 역사를 안고 있는 지역입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오므리왕이 은 두 달란트를 주고 세멜에게 구입한 산에 성을 건축하면서 원주민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고 칭한 것에서 유래합니다(왕상 16:24). 주전 722년 앗수르 제국의 침공으로 북이스라엘이 정복당하면서 지역민들 특히 사마리아인들은 앗수르에 강제로 이주되거나 역으로 이방인들이 북이스라엘로 유입되면서 민족간의 통혼으로 혼혈 민족이 되었습니다. 남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북이스라엘, 특히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과 섞인 불결한 인종이자 사마리아는 이방신의 문화가 유입된 혐오스러운 지역이었습니다. 남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 사건(B.C 586년)에도 불구하고 유대 땅에 다시 돌아와 율법을 재정립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이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사마리아인은

더럽고 버림받아 마땅한 이방인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오랜 갈등은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단절로 이어졌고, 이에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스 산에 성전을 세우고 유대인들과 적대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갈릴리 유대인들은 유월절과 같은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때에도 사마리아를 경유하는 쉽고 빠른 길 대신에 지형이 험한 여리고와 요단강을 건너 우회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

<https://www.lds.org/bible-videos/videos/jesus-teaches-a-samaritan-woman?lang=eng>

상황이 이러할진대 예수는 굳이 유대인들이 기피하는 사마리아를 통과하며 야곱의 우물이 있는 수가성에 도착합니다. 제육시, 작열하는 태양으로 가득한 정오에 물을 길러 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 역시 범상치 않습니다. 보통은 태양을 피해 저녁에 물을 길러 오는 것이 상례이거늘 인적이 드문 그때 물을 길는다는 것은 아마도 마을에서 인정받지 못하거나 사

람들의 눈을 피해야 하는 처지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학자들은 여인의 이러한 상황이나 결혼 상태 등을 분석하면서 그녀가 창기이거나 부정한 여인일 것이라 추정합니다. 유대 법에 형사취수혼(Levirate)<sup>1)</sup>이 있다 해도 유대 랍비 문헌에 따르면 세 번 이상 결혼하는 것이 금지되었다고 하니 그리 추정하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관습에 대한 문헌 증거도 없이 그녀가 어떠한 연유로 다섯 명의 남자를 거쳐야 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합법적이었는지에 대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혹은 여인의 결혼 상태는 북이스라엘에 주둔했던 다섯 이상의 이방 민족을 비유한 것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만 이 또한 추정일 뿐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가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물을 청하자 그녀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라고 되묻습니다(요 4:9). 이로써 시작된 여인과 예수의 대화는 마시는 물과 하나님의 생명의 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와 구원에 이르기까지 이전에 남성 제자들과도 나누지 못했던 심도 있는 대화로 진행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복음서에 나타난 여성은 대부분 남성에게 질문하기보다는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선택받지 못한 불결한 사마리아 민족, 마을에서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상처받고 소외당한 여성, 유대 남성과는 도저히 상종할 수 없는 비천한 여인이 예수와 대면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젠더적 구별을 넘어섭니다. 예수는 여인을 하나님의 구원, 예배의 자세, 진리에의 탐구, 그리고 메시아의 오심이라는 문제로 깊숙이 끌고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 예수는 ‘네 앞에 있는 이가 누구인가’에 대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질문하고

---

1) 남자의 경우 형이 죽은 뒤 동생이 형을 대신해 형수와 부부생활을 계속하는 혼인풍습을 말하며 ‘형사취수제’라고도 한다.

대답하는 방식으로 여인을 이끌어 갔습니다. 그녀 역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질문과 답변이 진행될수록 그녀는 예수의 말과 생각과 존재에 한 발 한 발 다가갔습니다. 처음에는 물과 관련하여 예수가 영원한 생수에 대해 말하자 그녀는 그런 물이 있다면 내게도 주어 더 이상 갈증 나지도 않고,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이것이 아이와 같은 순수한 답변이었는지 아니면 의심과 조소의 답변이었는지는 두 사람만이 알 듯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목마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녀의 바람은 누구도 해결할 수 없이 이미 그렇게 흘러와 버린 자신의 처지에 대한 갈급함의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여러 남편을 거치면서 밑바닥 인생이었던 그녀는 매일 같은 시간에 사람의 눈을 피해 뜨거운 광야 길을 홀로 걸으면서 한편으로는 의미없는 생을 살아야 하는 체념을,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삶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간절함을 갖고 있지는 않았을 런지요. 예수는 바로 그녀의 갈급한 마음을 꿰뚫어 보았고 이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 즉 구원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에 그녀는 마음의 빗장을 열면서 예수에게 눈을 뜹니다. 여인은 예수에게 처음에는 ‘당신(요 4:9)’이라고 하다가 대화가 진행됨에 따라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크신 분(요 4:12)’, 아니 ‘선지자이시군요(요 4:19)’라고 고백합니다. 결국 그녀는 예수에게 ‘나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 주실 것을 안다(요 4:25)’라는 말을 건넵니다. 그녀의 말의 의도는 무엇이였을까요? 예수는 사마리아 여인의 눈을 응시하며 대답합니다. “내가 그다(요 4:26).” 여인은 예수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응답을 받아냅니다. 이에 그녀는 바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돌아가 이 소식을 전합니다(요 4:27~28).

여인이 예수의 입에서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말을 듣는 순

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수를 알아본 그 순간, 그녀는 그토록 바라던 메시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인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기쁨과 감격을 넘어 하늘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자기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벅차올랐을 것입니다. 물 걷는 것조차 잊은 채 땀방울이 내리쬐는 흠길을 치마를 들고 황급히 뛰고 있는 여인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으신가요? 그녀는 예수를 만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깨달음의 순간, 그 걱정과 기쁨을 누구에게든 먼저 알려야 한다는 책임을 갖고 달리지는 않았을까요? 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불결하고 더러운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사자(使者)로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대언하는 예언자이자 복음의 증언자였습니다. 스승과 여인의 대화를 이상히 여겼으나 아무 소리도 하지 않은 남성 제자들과는 달리, 그녀는 복음을 말 빠르게 선포했던 예수의 제자였습니다. 그녀는 남성 제자들보다도 먼저 예수의 메시아됨을 알아본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내가 그다”를 의미하는 헬라어 ‘에고 에이미 (Εγώ ειμι)’는 예수의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핵심 용어입니다. 빛이신 예수, 그를 믿어들이는 이들은 혈과 육, 그리고 사람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요 1:12~13) 예수를 믿어들이는 사마리아 여인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 복음의 담지자이자 복음의 선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녀는 그렇게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만이 아니라 여성, 인종, 계급이라는 자기 한계를 벗어나 오롯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음을 들고 흠길을 달렸습니다. 그녀의 행위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복음 선포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여인의 말 때문이 아니라 예수를 직접 보고 알게 된 연

유라고 설명을 덧붙입니다(요 4:42). 누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요한복음 기자는 마을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와 대면하여 이야기했던 여인과 그리고 그녀의 복음 선포 행위를 전하고 있습니다.

### 3. 복음의 증언자, 갈릴리에서부터 온 여성 제자들

1 그 뒤에 예수께서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것을 복음으로 전하셨다. 열두 제자도 예수와 동행하였다. 2 또한 악령과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몇몇 여자도 동행하였는데, 일곱 귀신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와 3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안나와 수산나와 그 밖에 여러 다른 여자였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의 일행을 섬겼다.(눅 8:1~3)

49 예수를 아는 사람들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다닌 여자들은, 다 멀찍이 서서 이 일을 지켜 보았다. (...) 55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다닌 여자들이 뒤따라가서, 그 무덤을 보고, 그의 시신이 어떻게 안장되었는지를 보았다. 56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향료와 향유를 마련하였다. 안식일에 여자들은 계명대로 쉬었다.(눅 23:49,55~56)

1 그러나 이레의 첫날 이른 새벽에, 그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 8 여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였다. 9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서, 열한 제자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렸다. 10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안나와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이다. 이 여자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하였다.(눅

24:1~10)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가 행한 놀라운 이적과 가르침에 현혹되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무지렁이 농부, 세리와 창녀, 죄인과 병자들 모두 하나님 나라라는 새 세상이 오면 그 덕에 억울하고 고된 이 생활도 청산하고 새로운 권세를 누리기를 바랐던 이들이었습니다. 안일한 낙관과 기대에 부풀었던 이들은 예수가 가는 곳마다 무리를 지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니 유대 지도자들 눈에는 예수의 행위와 무리가 언제든 이 사회의 지배구조를 흔들 수 있는 반란의 무리로 보였을 것입니다. 유대 사회의 질서를 위해 그들은 예수가 민중을 호도하여 어쭙지 않게 흔들어 놓았다는 흑세무민의 죄를 씌어 그를 처형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여성들은 대담했습니다. 그녀들은 소기의 목적을 갖고 예수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에 따르면 여러 여인들이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랐다고 보도합니다. 마가와 마태의 평행 본문과 비교할 때(막 15:40~41, 마 27:49,55~56), 본문에 언급된 이름은 각기 다르지만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중심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특히 누가는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다른 여인들을 상세하게 서술하면서 그들이 자기의 소유로 예수와 그 일행을 섬겼다고 보도합니다. 이 여인들이 바로 예수의 수난과 십자가 처형을 목격하고(마 27:55~61, 막 15:40~47, 눅 23:27~28, 49~56, 요 19:25~27), 예수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워집니다(마 28:1~10, 막16:1~11, 눅 23:56b~24:1~12, 요 20:1~2,11~18). 각 복음서에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보도하는 바가 상이하지만 예수의 빈 무덤을 확인하며 부활을 선포한 최초의 증인은 모두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섬기며 따르는 자들로 예루살렘에 올라와 멀리서 예수의 죽음을 목격합니다(마 27:55, 막 15:40). 이를 두고 그녀들의 행동을 미온적 신앙으로 격하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당시 예수가 정치사범으로 극형인 십자가 처형을 받는 것을 고려한다면, 여성들이 그 자리에 참석하는 일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남성 제자들은 예수가 본격적으로 심문 받기 전에 이미 도망갔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여성들의 행위와는 대조적이었습니다. 사실 남성 제자들은 예수와 연루된 인물로 수배될까 하여 처형 현장에 나타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의 마지막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주검을 세마포로 싸서 돌무덤에 누인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돌아가 장사를 준비했습니다.

여인들은 달랐습니다. 슬픔과 좌절을 넘어 죽음의 순간까지 예수를 따른 이들은 향유와 향품을 준비하여 다시금 무덤을 찾아갑니다(막 15:47~16:1, 마 27:61,28:1, 눅 23:55~24:1). 빈 무덤 앞에 선 여인들은 근심과 두려움에 싸여 있을 때, 천사 혹은 예수를 통해 부활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마가복음은 “여인들이 두려워 아무 말도 못 했다(막 16:8)”라고 전합니다. 그러나 이후 마가복음의 편집본에서는 다른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다른 여인들과 함께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의 증언자로 명시합니다(막 16:9, 마 28:1, 눅 24:10,20:18). 이들은 예수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전함으로써 부활의 첫 증인이자 기독교에서 부활 신앙의 첫 담지자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기독교의 시작은 이처럼 좌절과 절망 한가운데서 부활을 소식을 전한 여성들의 목소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당시 유대교에서 여성은 공적 삶에서 배제되었을 뿐만 아니

라 특히 증언할 권리조차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복음서가 여성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증언자로 선포하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물론 남성 제자들은 그녀들의 증언을 믿지 않았다고 전합니다(막 16:11, 눅 24:11). 여성들의 부활 신앙과 고백을 의심하고 거부하는 남성 제자들에 대한 묘사는 초대 기독교에 반영된 여성의 위치, 즉 기존 사회의 젠더적 위계구조가 교회 공동체에 그대로 들어온 것을 의미합니다. 여성을 남성에 비해 열등하고 믿지 못할 존재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예는 예수를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게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인이 예수의 정체성을 깨닫고 사마리아 동네에 메시아 예수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된 사마리아인들은 자신의 믿음이 그녀의 증언이 아니라 예수를 직접 보고 믿은 결과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의 메시아 됨과 믿음의 증언을 여성의 목소리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남성 제자들이나 복음서 기자의 부정적인 반응은 하나님 나라가 새로운 가치, 즉 전복적인 새 질서에 대한 비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 사회의 이분법적 젠더 질서에서 여성에 대해 가치판단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여성들의 믿음과 섬김의 실천은 남성 제자들과 대조되는 여성 제자의 모습을 제시합니다. 그녀들의 믿음의 고백과 부활의 증언은 기존 사회의 질서를 벗어나 여성이라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남성 제자들에게 커다란 도전이었습니다.

예수의 증언자이자 하나님 계시의 담지자로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여성들은 유대 사회는 물론 초대 기독교 공동체의 남성 중심의 권위 구조에 틈을 내고 남성과 여성의 경계를 허물며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한 진정한 제자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예수를 만나 대면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인

정받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세움 받는 구원의 놀라운 경험을 통해 이전과 다른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더 이상 사회, 가정, 남성과 자식에 기대어 늘 종속적인 존재로 살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복된 소식을 안고 선포하는 자들로서 남성과 동등한 제자직을 감당하는 존재로 자신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예수와 대면하는 자리였습니다. 그것은 여성을 억압하는 종교적, 정치적 경계를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치와 비전이 제시하는 더불어 살리는 삶의 세계를 구현하는 자리였습니다. 예수를 만난 여성들은 예수를 따르고 섬기고 복음을 증언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수많은 경계와 위협을 넘어 진정한 제자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 생각해 봅시다

1. 여러분은 복음서에 나온 여성 중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나요? 인상 깊은 인물과 그 이유에 대해 서로 이야기 해봅시다.
2. 여러분이 기억하는 예수의 제자는 누구입니까? 그렇다면 여성 제자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진정한 제자의 삶은 어떤 것인지 이야기해봅시다.
3. 여러분이 예수의 엄마 마리아, 미친한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빈 무덤에 선 여인들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겠습니까? 이 과정에서 공감되는 부분과 이해되지 않는 부분, 그리고 더 깊숙하게는 그들의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4. 한국 교회에서 다시금 요청되고 기대되는 여성의 신앙과 그 실천 방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전통적인 교회의 사고와 삶의 방식과는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 봅시다.

## 초대 교회를 일으킨 여성들

### 생각 열기

각 복음서는 예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제자 파송을 끝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일단락 맺습니다. 이후 오순절 다락방에서의 성령 강림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를 초대 기독교 혹은 초대 교회의 시작이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은 역동적인 복음 전파의 과정을 보도합니다. 예수가 활동할 당시 보통의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와 유대 사회의 엄격한 율법 제도 그리고 기근과 수많은 폭동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로마와 유대 사회 하에서 이중의 억압과 수탈을 당했고 막중한 세금과 노역으로 가난에 시달리면서 안식일조차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었습니다. 폭력과 혼란, 가난과 절망으로 가득한 시대, 예수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실천하면서 새로운 세상에 대한 비전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새 세상에 대한 가능성은 예수의 십자가 처형으로 철저히 실패로 끝났고, 예수를 배신해야 했던 제자들은 쓰러진 좌절 속에서 헤어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고, 메시아 예수에 대한 기대가 무너진 그들에게 예수는 부활하여 나타났고 이후 성령의 강렬한 체험은 이전과는 다른 신앙의 깊이와 선교의 열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예수가 떠난 바로 그 자리에서 그들은 하나님 나

라를 다시 시작할 진정한 용기를 얻었습니다. 영광의 빛난 자리가 아니라 좌절과 실패를 딛고 일어난 복음에의 대담한 용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교회를 일으켰습니다.

신령한 영으로 충만해진 이들은 서로의 재산을 필요에 따라 나누었고, 선교에 대한 열정으로 고난과 죽음도 불사하며 선교 사역에 헌신했습니다(행 2장). 인종, 계급, 지역 그리고 성별은 복음 전파의 걸림돌이 될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마지막 날, 모든 이들이 주의 영을 받아 아들과 딸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며 노인이 꿈을 꾸며 남종과 여종을 막론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이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요엘의 예언이 ‘지금 여기서’ 실현되고 있음을 증거했습니다(행 2:14~22). 세상의 질서를 뒤엎는 급진적인 하나님 나라의 도래, 그리고 그 중심에 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은 예루살렘과 갈릴리를 넘어 시리아와 소아시아, 지중해 연안 곳곳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도들이 지나는 곳마다 가정 교회가 세워졌고 수많은 사도와 제자들이 복음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초대 교회의 주역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사도 바울이라는 걸출한 인물들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한 수많은 남성과 여성들이 교회의 시대를 들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복음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물결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진행되었습니다. 그것은 남성의 역사가 아니라 여성과 함께 한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사도행전과 서신서는 여성의 이야기를 전면에서 부각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새어 나오는 불빛을 두 손으로 가릴 수 없듯이 제자와 사도 그리고 동역자로서의 여성들의 활동은 성경 면면이 담겼습니다. 복음이 굽이쳐 흐르는 곳마다 여성들의 목소리가 함께 터져 나왔습니다.

예수가 승천한 뒤 그의 어머니와 여성들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활동했으며(행 1:12~14), 오순절 다락방에서 함께 성령

을 받았습니다(행 2:1~13). 복음서와 달리 사도행전에서는 제자와 사도의 의미를 남녀 막론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모든 이들에게 폭넓게 사용함으로써 이 과정이 얼마나 역동적이었는지를 보도합니다. 선행과 구제에 힘쓴 여제자 다비다(행 9:38), 빌립의 예언하는 네 딸들(행 21:9), 초대 교회와 선교 사역에서 경제적, 정신적, 영적으로 후원한 여성들에 대한 인사와 천거가 줄을 이었습니다.

성경은 여성을 교회 안에서 그리고 남성 뒤에서 후원하고 봉사하는 자로 묘사했고, 교회는 제도화됨에 따라 여성의 지위와 역할을 제한하고 종속시키는 방식을 가르쳤습니다. 이에 따라 성경이 번역되고 말씀이 선포되는 과정에서 여성의 존재는 왜곡됐고 남성 중심의 권위적 문화가 형성되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 교회의 여성들은 때로는 교회의 숨은 일꾼으로, 때로는 교회 성립과 발전의 후원자로, 때로는 영적 능력을 발휘하는 카리스마적 지도자로 활동했습니다. 여기서는 초대 교회를 일으킨 여성 지도자들 그리고 여전히 교회에서 여성을 억압하는 뜨거운 논쟁이 되는 본문들을 짚어 가면서 초대 교회의 상황과 여성들의 활약에 대해 새로운 읽기를 시도합니다.

## 초대 교회를 일으킨 여성들

### 1. 초대 교회의 대모, 여제자 다비다

36 그런데 옴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 그 이름은 그리스 말로 번역하면 도르가인데, 이 여자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37 이 무렵에 이 여자가 병이 들

어서 죽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씻어서 다락방에 두었다. 38 룯다는 욥바에서 가까운 곳이다. 제자들이 베드로가 룯다에 있다는 말을 듣고, 두 사람을 그에게로 보내서, 지체하지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였다. 39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서, 심부름꾼과 함께 갔다. 베드로가 그 곳에 이르니, 사람들이 그를 다락방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과부들이 모두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같이 지낼 때에 만들어 둔 속옷과 겹옷을 다 내보여 주었다. 40 베드로는 모든 사람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였다. 그리고 시신 쪽으로 몸을 돌려서 “다비다, 일어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 여자는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서 앉았다. 41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그 여자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서, 그 여자가 살아 있음을 보여 주었다. 42 그 일이 온 욥바에 알려지니, 많은 사람이 주를 믿게 되었다.(행 9:36~42)

욥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56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아름다운 항구 도시, 그곳에 다비다라는 이름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헬라어 이름은 도르가. 누가는 여인의 이름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이 사건을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설명합니다. 이는 다비다가 꽤나 이름난 여인이기에 설명할 필요가 있었겠지요. 사실 다비다와 도르가는 모두 사슴 혹은 영양(Gazelle)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암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이(시 42:1)’라는 표현에 착안하여, 학자들은 이름과 삶의 터전을 근거로 다비다를 ‘구원받아 개종한 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녀에게는 누군가의 아내나 어머니 혹은 딸이라는 수식어가 없는 것으로 보아 과부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과부는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남편과 사별하여 홀로 있는 여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외에도 이혼했거나 아버지의 보호 없이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나 전쟁이나 여러 이유로 오랫동안 홀로 지낸 여성도 과부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들은 남성의 보호나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자선의 대상이었지만, 모든 과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비다가 나름 경제 활동을 하면서 선행과 구제를 하는 여인으로 나타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캐나다 프린스에드워드섬 성공회교회 창문에 표현된 도르가의 모습  
<http://www.johnburdenart.com/StainedGlass1/stainedglass1.html>

그런데 다비다가 병들어 죽자 도움을 받았던 과부들은 애통하며 베드로에게 그녀가 지어준 속옷과 겹옷을 보여줍니다. 이 장면은 다비다가 재단사가 아닐까 생각하게 합니다. 물론 그녀의 실제 직업과 계급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다비다는 여제자(마쎌트리아, *μαθητροικα*)로 언급될 정도로 신앙을 갖고 선행과 구제에 힘쓴 것은 분명합니다. 그녀는 교

회와 지역 공동체에서 과부와 가난한 사람을 돌볼 만큼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하나님과 다른 이들에게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비다가 보여준 신앙과 사랑에 의지했으며, 그녀는 교회 공동체에서 존경과 사랑을 받았을 것입니다.

본래 사도행전 9장의 강조점은 다비다보다는 활발한 이방 선교와 성령에 의한 이적 사건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애니아의 중풍병을 치유하고(행 9:32~35), 죽은 다비다를 일으켰던 사도 베드로의 행적에서 확인됩니다. 하여 상세하게 묘사된 다비다 사건은 누가복음에 있는 회당장 딸 아이로를 살리는 사건(눅 8:49~56)과 유사한 구조로 진행됩니다. 누가는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를 살린 것처럼 성령의 권능을 받은 베드로가 예수의 사역을 계승하고, 이를 통해 구원과 복음이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전파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여겨볼 사람은 여제자 다비다입니다. 사도행전은 바울 서신에 비해 여성의 역할과 활동을 제한적으로 보도하거나 익명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비다의 사건은 구체적이고 상세합니다. 그녀의 부활은 초대 교회의 놀라운 이적과 구원 사건을 의미하겠지만, 생전에 그녀의 활동과 위치가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에 널리 알려졌다는 것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당시 지중해 사회에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서 성 역할이 구별되었다 해도 다비다와 같은 여성 지도자들의 행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령 고대 유대인 회당의 비문에 새겨진 재정 후원자 명단에서 여성의 이름이 종종 발견됩니다. 심지어 여성 회당장과 여성 원로원에 대한 언급도 나타납니다. 이렇게 볼 때 다비다 역시 율바에서는 초대 교회의 재정 후원자요, 혹은 주요 인물로서 지도력을 갖고 사람들의 신망을 얻은 여인이라고 추정할 수 있

습니다.

그렇지만 누가는 신약성경에서 유일하게 여제자로 불린 다비다의 활동을 선행과 구제라는 한정적 표현으로 서술합니다. 그녀는 과부에게 옷을 지어주며 선한 일과 자선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이 때문에 여제자의 칭호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남성 제자의 직무에서는 섬김을 의미하는 ‘디아코네오(*δ ι α κ ο ν ι α*, 행 6:1)를 사용한 반면, 다비다에게는 문자 그대로 선한 일을 의미하는 ‘아가손 에르곤(*ἀ γ α θ ῶ ν ἔ ρ ο γ ω ν*, good works)’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다비다에게 붙여진 여제자라는 칭호, 그녀의 부고 소식에 베드로가 즉시 달려온 점, 그리고 모든 과부들의 애도와 그녀의 업적에 경의를 표한 점 등을 미뤄 짐작한다면, 지역 공동체 혹은 적어도 교회 공동체에서 다비다의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지위와 능력 그리고 재정적 지원을 통해 가난한 과부와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했고 이를 통해 복음을 몸소 실천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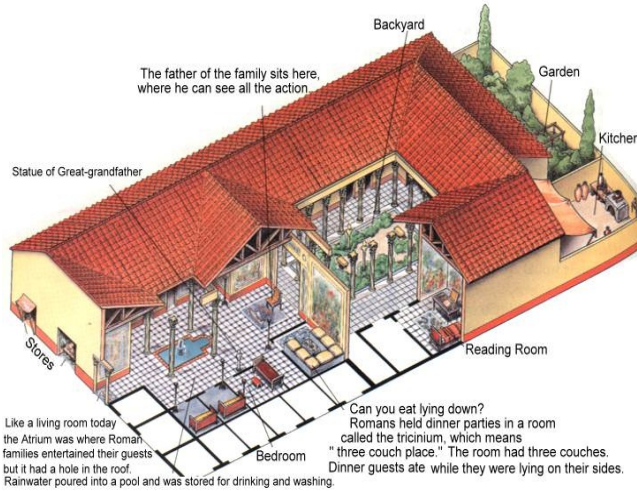
그러나 누가는 여성에게는 ‘섬김’이라는 제자직의 의미보다는 ‘선행과 구제’라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여성 제자 및 여성 지도자보다는 교회 내 여성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이는 교회가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여성에게 주어지는 역할과 상응합니다. 초대 교회에서 과부는 단순히 여성의 결혼 상태를 나타내는 용어가 아닙니다. 과부는 특정 임무와 기능을 담당한 계층이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딤후전 5:3~10). 목회서신과 4세기 <사도 규정>에는 과부를 남성의 보호와 지지를 받지 않는 60세 이상의 홀로된 원숙한 자로서 경제적 지원을 받으며 젊은 여인을 교육하고 권고와 위로의 목회적 의무를 행하는 자들이라고 규정합니다. 나중에 과부의 역할이 집사의 역할로 넘어갔습니다만, 우리는 다비다가 초대 교회의 신망 받는 여성

지도자로서 목회의 의무를 수행하며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보살피고 이끄는 제자이자 교회의 대모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의 부활 소식에 성도들과 과부들이 모였습니다. 결국 이 일은 다비다의 행적과 함께 욥바 지역 공동체에게 복음이 전해 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2. 가정교회의 여성 동역자와 지도자

1 겐그레아에 있는 교회의 일꾼이요 우리의 자매인 뵈뵈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2 여러분은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주 안에서 그를 영접하고, 그가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을 원하든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고, 나도 그에게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3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4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살려 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가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5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문안하여 주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를 믿은 첫 열매입니다.(롬 16:1~5)

## 1) 가정교회



\* 도무스(Domus): 고대 로마 제국의 보편적 주거 형태. 도무스에서 개인 사업에서 예배를 주관하는 종교 행위까지 모두 이루어졌다.

<https://www.ancient.eu/article/77/the-roman-domus/>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초대 교회는 가정교회 형태로 시작되었습니다. 유독 사도 바울의 편지에는 집(가정, 가족)과 관련된 말이 많이 등장합니다. 집은 헬라어 ‘오이코스(οἶκος)’로 거주 공간으로서의 ‘집’과 사회적 관계로서의 ‘가정’이라는 의미를 모두 포함합니다. 이때 오이코스의 개념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가족의 개념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것은 혈족으로 구성된 직계 가족 이외에도 친척과 노예, 자유인들과 고용인들, 소작인들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도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가정들(갈 6:10)’ 혹은 ‘하나님의 집(딤후 3:15)’이라는 표현에서 확인하듯이, 바울의 교회

는 성전이나 회당이 아니라 가정을 중심으로 세워졌습니다.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진행하며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가르침과 태도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가정이라는 공간적 특성으로 인해 가부장제 사회의 남성 중심적 지배 문화, 즉 가장의 권위와 질서, 구성원들의 사회적 책임과 관계성이 교회 생활에 그대로 반영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여성들이 가정교회의 지도자와 동역자로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가정을 교회로 제공하고, 경제적 후원과 지원을 통해 여성은 바울 선교의 중요한 동역자이자 지도자로 등장합니다.

## 2) 브리스가와 아굴라

가령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행 12:12~17),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의 집(행 16:11~15) 라오디게아에 있는 늪바의 집(골 4:14)이 가정교회로 제공되었습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에서 복음을 듣고 믿는 자의 집에 유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는 가정교회를 거점으로 지역 교회 간 네트워크를 통해 복음 선교를 활발하게 진행해 갔습니다. 물론 지역 기반의 네트워크만큼이나 동역자와 후원자의 인적 네트워크도 중요했습니다. 특히 바울의 동역자로서 브리스가(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유명합니다. 유대인인 아굴라는 클라우디우스(Claudius)가 내린 유대인 추방령 때문에 아내 브리스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떠나 고린도에 머물게 됩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들 집에 머물면서 함께 천막을 만들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행 18:1~3). 브리스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도와 가정교회를 인도하며 가르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들은 아볼로가 초짜 그리스도인인 시절, 학식은 있으나 하나님의 도를 알지 못하는 그를 따로 데려다가 가르쳤고, 바울

과 시리아와 에베소의 전도 여행에 동행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바울이 종종 아굴라보다는 브리스가를 먼저 언급한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브리스가에게 나의 ‘동역자’라고 칭합니다(행 18:18,19,26, 롬 16:3, 딤후 4:19). 이것은 브리스가가 남편 아굴라보다 사회적 신분이 높은 것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사실 천막 제조업만으로는 가정교회를 설립하면서 바울을 후원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브리스가의 물질적 도움과 후원이 바울로 하여금 동역자라고 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을 것입니다. 이 부부는 자신의 집을 가정교회로 내주고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바울에게 영적이고 물질적 후원과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초기 바울 선교의 큰 힘이 되었고 바울과 모든 교회는 이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았습니다(롬 16:4~5).

### 3) 겐그레아의 뵤뵤

뿐만 아니라 겐그레아의 뵤뵤에게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녀를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자 우리의 자매라고 소개합니다(롬 16:1). 여기서 일꾼을 의미하는 헬라어 ‘디아코노스(δίακονος)’는 ‘디아코네오’ 즉 ‘섬기다’라는 의미에서 파생된 것으로 ‘집사’를 의미합니다. 뵤뵤는 여집사이자 그리스도인의 자매(ἀδελφή)였습니다. 자매와 여집사! 생각해 봅시다. 교회 생활에 친숙한 우리는 자매와 여집사에게 어떤 기대 역할과 의무가 내포돼 있는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울이 뵤뵤를 어떻게 묘사하는지 살펴봅시다. 바울은 경의와 우호적 감정을 담아 뵤뵤를 교회에 추천합니다. 각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절을 갖추어 뵤뵤를 영접해야 한다고 전합니다. 혹시 도움을 바라는 것이 있으면

아낌없이 도와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고, 바울 자신도 신세를 많이 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롬 16:2). 개역 성경에서는 ‘그가 나와 다른 여러 사람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번역되었으나 표준새번역과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그는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고, 나도 그에게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보호자, 후원자, 그리고 도움의 사람’을 의미하는 ‘프로스타티스(π ρ ο σ τ ά τ ι ς)’입니다. 이 단어의 동사형인 ‘프로이스테미(π ρ ο ῖ σ τ η μ ι)’는 신약 서신에서 주로 목회에서 지도력이나(롬 12:8, 살전 5:12, 딤후전 5:17) 집안 식구들을 다스린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딤후전 3:4,5,12). 유추하건대 뱀뱀을 설명하는 프로스타티스는 단순한 후원자나 도움이 아니라 목회적, 정치적 의미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뱀뱀은 고린도에서 10km 떨어진 항구도시 겐그레아 교회의 재정적, 영적 후원자이자 집사직을 수행했던 지도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재산을 바울과 다른 이들을 섬기는 데 내어 놓고 자기 집에서 겐그레아 교회 공동체를 유지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겐그레아 교회에서는 선교 여행을 다니는 바울보다 때로는 뱀뱀의 지위와 역할이 더 큰 비중을 차지했으리라 유추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겐그레아 교회는 나룸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가까이 있는 고린도의 보다 큰 교회와 연결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배경에서 그녀를 다른 교회에 천거하면서 그에 합당한 예우를 해 줄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겐그레아 교회의 안정적 질서 유지에 뱀뱀의 신앙과 지도력 그리고 섬김의 자세가 모든 교회의 본이 될 만한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교회의 자매와 여집사의 역할과는 사뭇 다릅니다. 자매 뱀뱀은 앞치마 두르고 주방에서 봉사하고, 찬양대 양옆에서 코러스를 넣고, 남

성 목회자와 남성 장로들의 의견에 따라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 4) 여성 동역자들

물론 로마서 16장에서는 이외 다른 동역자들에 대해서도 문 안합니다. 마리아(6)에게서부터 유니아(7) 드루배나, 드루보사, 버시(12), 루포의 어머니(13), 올리아, 네레오의 자매, 올림바(15)에 이르기까지 모두 여성의 이름이 나옵니다. 16장에 언급된 많은 사람 중 삼분의 일 이상이 여성이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의 동역자이자 수고한 자(6,12), 택함을 받은 자들(13)이었습니다. 이름이 알려졌든지 그렇지 않았든지 상관없이 바울의 복음 사역과 초대 교회는 여성들의 참여와 주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선교의 동역자이자 초대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여성의 비율이 현재 한국 교회의 여성 목사, 장로, 집사 등 의사 결정권자의 비율보다 현저히 높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게다가 바울이 천거하고 문안 인사하며 칭찬하는 이들의 이름을 살펴보면 거기에 다양한 계급이 있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추정하기로 뵈뵈는 신화에서 온 이름으로 보통 노예에게 주어진 이름입니다. 혹시 뵈뵈는 노예였다가 자유인이 된 여인일 수 있습니다. 버시는 여자 노예의 대중적 이름으로, 바울의 사랑하는 자로 거론된 사람이었습니다. 만일 욥바의 다비다가 재단사였다면 낮은 계급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나아가 성령의 체험이 인종, 지역, 계급 그리고 성별을 넘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당연하고도 평범한 진리가 초대 교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성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받아 전하고 실천

하는 삶을 통해 스스로 하나님 나라의 희망과 은총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6~29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것은 초대 교회의 공식 세례 기도문이기도 했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 구절을 암송함으로써 자신의 신분과 지위 그리고 성별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자 그리스도와 합한 자가 된다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이것을 함께 고백하면서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을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26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27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28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29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있으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을 따라 유업을 이을 사람들입니다.(갈 3:26~29)

## 뜨거운 본문들 : 잠잠한 여성, 순종하는 여성

여성 그리스도인들은 신앙과 열정으로 선교와 교회 사역에 헌신했습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바울 서신과 목회 서신은 다양한 복음의 증거와 사도들의 선교의 과정, 역경과 갈등의 상황 그리고 각 교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목회적 답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헬라인), 종이나 자유인, 그리고 남자와 여자에 대한 경계 없이 하나님의 자녀, 한

몸의 지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는 성령의 뜨거운 열기만큼이나 영적 카리스마를 발휘한 다양한 은사자들에게 대한 질서와 조화를 강조했고, 교회 내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때로는 서슬 퍼렇도록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하기도 했으며, 부드러운 간구로 교회의 하나됨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제국의 질서에 대항하고, 세상의 정의와 가치를 거꾸러뜨리며, 구별과 차별을 넘어 인간을 해방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역사에서 여성을 옹아매는 대표적인 본문이 바로 바울 서신과 목회 서신에서 발견됩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습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다.(고전 11:8~9)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십시오. 여자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율법에서도 말한 대로 여자들은 복종하십시오.(고전 14:34)

아내이신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는 것같이,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심과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몸인 교회의 구주이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같이,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엡 5:22~24)

여자는 조용히, 아주 순종하면서 배우십시오.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조용해야 합니다(딤후전 2:11~12).

그중 여성혐오의 근거로서 가장 파급력 있는 말은 단연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일 것입니다. 이 말은 이천년 교회 역사에서 여성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여성을 억압하고 복종하게 하는 강력한 도구였습니다. 이 구절은 고린도 교회의 상황, 특히 14장의 은사와 질서에 대한 본문의 맥락과는 상관없이, 이전에 바울이 전한 여성 해방적 메시지와는 상관없이,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갖는 해방과 자유와는 상관없이, 그간 초대 교회에서 여성이 어떻게 활동했는가와 상관없이, 교회에서 여성의 지위와 역할 그리고 삶의 자세를 결정지었습니다.

조용하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헌신하는 여성, 남자의 권위와 교회의 권위에 복종하는 여성, 앞에 나서지 않고 남성을 가르치지 않는 여성. 목회서신과 제2바울서신<sup>2)</sup>은 이러한 여성 역할에 대해 더욱 노골적으로 서술했습니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오랫동안 교회는 더욱 강력한 형태로 교회의 권위, 직제, 운영, 여성 인권, 세계 질서와 같은 인간 삶의 중층의 복합적인 영역에서 여성의 예측적 상태를 강화시켰습니다. 다시 말해 여전히 보수교단에서 문제되는 여성 목사 안수, 여성 장로 임직뿐만 아니라 예배에서 여성의 역할, 여성 교역자의 설교와 담당 업무, 식사와 심방과 같은 교회 내 업무의 성별화 등등, 교회에서 여성에게 요구되는 태도와 성역할 그리고 권위가 바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라는 이 한 마디에서 기인했습니다. 아마

---

2) 본래 신약성경에서 바울이 기록한 서신이 13개라고 하는데, 신약성경 학자들의 논의에 따르면 바울의 친서라고 보기에 용어, 문체, 신학 주체가 다르고, 교회의 구성과 상황이 좀 더 후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서신들을 바울 이후에 쓰인 서신, 즉 제2바울서신이라고 본다. 목회서신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포함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바울 이후 교회가 제도적으로 안정화되는 과정에서 쓰인 것으로 본다.

- 바울서신: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전서, 빌레몬서
- 제2바울서신: 에베소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후서, 목회서신(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바울도 전혀 예상치 못한 파급력일 것입니다.

여성과 함께, 여성의 후원과 지지로 선교 여행을 수행한 바울, 그리고 초대 교회를 일으킨 수많은 여성 지도자들의 행보. 심지어 공식 세례문과도 상충하는 이율배반적인 바울의 말. 복음 선포의 상황과 서신 본문 사이의 극복할 수 없는 간극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역사는 교회와 남성의 입을 통해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인 양 남성의 권위를 입혀 여성을 억압하고 배제하고 지배하는 수단으로 삼아온 것을 목도합니다. 여기서는 논쟁의 핵심에 있는 뜨거운 바울의 말, 고린도전서 14장 34~35절과 주변 본문을 살펴보며 본문에서 바울이 전하는 바에 대해 제대로 살펴봅니다.

33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34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십시오. 여자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율법에서도 말한 대로 여자들은 복종하십시오. 35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으십시오.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자기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36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나왔습니까? 또는 여러분에게만 내렸습니까?(고전 14:33~36)

바울 서신들은 주로 각 교회의 상황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목회적이고 실천적 답변이었습니다. 그의 편지에는 때로는 호소와 간구가, 때로는 복음의 담대한 증언과 사도의 결의가, 때로는 눈물 어린 위로와 감사가 담겨있습니다. 이러한 편지를 읽고 교회의 상황을 파악한다는 것은 마치 답을 듣고 문제를 찾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역사적, 사회적 상황과 목회적 갈등을 실마리로 문제를 추적하는 과정으로 일종의 퍼

즐림이기도 할 것입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라는 결정적 답변을 중심으로 바울은 여러 은사, 특히 방언과 예언과 관련하여 교회 내 질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기원후 51년경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는 주로 이방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으로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교인 상당수가 영적 경험이 있고 그것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대단했으며, 모든 도시인들이 그러하듯 공동체보다는 개인의 유익을 구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교회와 복음에 열심이 있는 만큼 교회 내 분파나 갈등도 상당했고, 교회 밖 사회와의 관계에서 송사나 성 윤리의 문제도 심각하게 거론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린도전서는 공동체의 삶과 신학적 논의들도 어느 서신서보다 깊이 있게 다뤄졌습니다.

문제가 되는 고린도전서 14장 34~35절을 말하기 위해 먼저 고린도전서 14장 26절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에게 잠잠하라”는 명령은 다음과 같은 예배의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모이는 자리에 찬송하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계시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통역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바울은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모여 예배하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이는 현재 주일 예배의 익숙한 풍경처럼, 교회 유리문을 열고 들어가면 안내자가 건네준 주보를 받아 본당 정면에 십자가를 향해 줄지어 있는 긴 의자에 앉아 파이프 오르간을 들으며 예배를 준비하는 조용한 모임으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혹은 주중 성경, 찬송을 들고 구역 식구의 집에 가서 교회에서 안내받은 예배 형식과 성경 말씀을 따라 행하는 예배 모임도 아닙니다. 초대 교회의 예배는 순서지, 안내자, 피아노 반주자가 있는 준비된 순서에 따른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다른 교회에 비해 비교적 먼저 시작된

곳으로, 규모도 있고 구성원도 다양하고 나름의 전통이 있긴 하지만 어떤 체계나 정해진 경전 혹은 찬송가도 없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세례 받은 이들은 바울이 전해준 말이나 원로나 지도자의 강해를 듣고 기도한 후 다함께 식사하는 일종의 친교 형식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선교지의 열정이 제일 뜨거운 것처럼 초기 기독교인들 역시 성심과 열정 그리고 영적 체험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강렬했을 것입니다. 예배 도중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동시다발적으로 방언하면서 다양한 소리들이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황홀경 속에서 방언과 예언이 여과 없이 진행되면서 소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울며 찬송하는 이도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전한다고 훈계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먼저 신자가 된 이들 중에는 새 신자를 가르치며 안내한다고 해도 정해진 형식이나 특정한 규율이 없이 그들이 경험한 바에 따라 혹은 공동체의 분위기에 따라 지도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방언을 하는 사람도 그 뜻을 몰라 옆에 있는 방언 선배들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이에 저마다 다른 해석으로 영적 우위를 다투는 일도 비일비재했을 것입니다. 이 와중에 계시를 받는 이들 간에 갈등이 불거지거나 영적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들 간의 서열 다툼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예배 상황을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혼란스러운 예배를 조용하게 하는 것이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영적 경험을 하는 이들을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조화롭게 이끌어갈 것인가를 두고 고심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예배에서 다양한 이들의 영적 은사의 모습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고전 14:26).

고린도전서 14장 27절에서 30절까지는 방언하는 자와 통역하는 자, 그리고 예언하는 자가 어떤 순서와 태도로 질서 있게

행해야 하는지, 방언과 통역 그리고 예언의 순서에 대한 일종의 예시를 전해줍니다. 물론 교인들은 우선적으로 바울의 말에 따라왔겠지만, 교회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여성에게 사용된 ‘잠잠하라(시가오, *σσιγάω*)’라는 말이 28절과 30절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방언으로 하되 한 사람이 통역해야 하는 상황에서 통역이 없다면 잠잠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뜻도 모른 채 중언부언 소란스레 황홀경에 빠져 서로 기도하며 자기를 통제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하나님에게 말하라고 권면합니다. 둘째, 29절부터는 예언을 하되 참과 거짓, 하나님의 은사인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인지 분별하여 말하라는 것입니다. 예언이라도 혹여 교회를 세우는 일이 아니라면 질서를 무너뜨리고 다른 사람의 계시를 무시한 채 자기 말만 하지 못하도록 순서에 따라 하되 다음 사람이 할 때는 잠잠하라는 것입니다(고전 14:30).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이르러 바울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임을 선포합니다. 성도의 교회에서 그리하듯, 고린도전서 14장 34절의 문제의 그 말인즉,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이 놓인 위치 즉 전후 맥락에서 볼 때 34절은 방언과 예언과 같은 영적 경험을 하는 여자들이 기도하면서 자기를 주체하지 못하고 영에 사로잡혀 동시다발적으로 기도하는 행위를 자제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34절 후반부 “여자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으며 율법에 있듯이 복종해야 한다”라는 구절에서 바울이 구체적으로 율법의 어느 구문을 근거로 말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자의 말은 평상시 교회에서 하는 모든 말이 아니라 예배 시 행해지는 말 중, 질서를 어지럽히고 분별없이 질서를 깨뜨리는 말들, 다시 말해 심 없는 방언과 예언의 언사

들로 교회를 소란스럽게 하는 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5절에서 배우로 싶은 것이 있으면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으라는 말은 고린도전서 14장 31절에서 한사람씩 예언함으로써 배우고 권면을 받을 수 있다는 구절과 연결됩니다. 한사람씩 말하지 못하고 자기 말만 쏟아내는 이들의 행위라든가 혹은 예언과 방언에 대해 소위 끼리끼리 묻고 확인하는 영적 행위가 이에 대해 낯설거나 소극적인 타인에게 덕이 되지 못한다면 차라리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무리 영적 기도라 해도 성찰이나 분별없이 쏟아내는 말을 경계했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고 질서 없이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말을 경계했습니다. 그러느니 이에 대해 집에 가서 남성과 함께 성찰하고 다시 생각하면서 배우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영적 권위자들의 독단적인 행위는 고린도전서 14장 36절에서 확인됩니다. 바울은 영적 권위를 받았으나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났는가? 혹은 오직 여러분에게만 임했는가?”라고 비판적으로 따져 묻습니다. 이렇게 볼 때 고린도전서 14장 34~35절은 분명히 방언과 예언으로 황홀경에 빠진 여성들에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질서 있고 기품있게 행동하기를 촉구하는 권면입니다. 분명 특수한 교회의 상황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전체 교회의 일반 여성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으로 이러한 권면은 여성을 억압하고 예속하는 근거가 아니라 당시 교회의 성령 운동에서 여성의 카리스마적 지위와 역할이 대단히 활발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여성들의 이러한 뜨거운 열심이 초대 교회를 이끌었고, 이런 역동적인 지도력이 선교 여행의 동역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영적 경험에서 남성과 동등한 아니 그 이상의 지위를 가

진 여성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는 교회에서는 영적 권위가 우선 시되지만 혼란과 분열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로서 여성에게 “잠잠하라. 복종하라”라는 강도 높은 말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후 고린도전서 11장의 여성이 머리에 너울을 쓰는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이 황홀경에 있는 여성들을 자제시키기 위해 정숙한 태도를 요청한 것인가 아니면, 예배와 식사라는 일상의 행위에서 여성들이 외간 남자와 만나게 되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유혹과 남편 이외의 다른 만남에 대한 예방과 경고 차원에서 권고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본문은 바울이 여성을 근본적으로 억압하고 종속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 지중해 지역의 여성의 위치와 역할이 가부장제 사회에서의 본래적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 중심적 가치관을 기반으로 교회가 제도화 되는 과정에서 성경이 기록, 편찬되었고, 교회의 직제가 고착화된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기억할 것은 첫째, 본문의 역사적, 사회적 한계점은 직시하되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누구보다 더 활발하게 여성 동역자와 여성 지도자와 긴밀하게 네트워킹하면서 셋째, 동시에 여성 비하적인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교회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바울의 발언은 남성과 교회의 위계적 권위를 확립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분열을 극복하고 덕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존재적 차원에서 남성과 여성이 모두 하나님에게서 낳음을 강조하면서도(고전 11:12), 신학적 차원에서 복음의 목적이 구별과 차별을 넘어서 모두에게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고

자유케 하는 것을 전하면서도, 교회 목회와 인식적 차원에서 남성과 여성의 위계적 질서를 부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성의 활동을 제한하거나 여성의 지위를 격하시키거나 역사를 통해 여성을 통제하고 고통을 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4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개역개정) 평화의 하나님이 전하는 품위와 질서는 무엇입니까? 이제 그 오래된 여성 억압과 종속의 역사를 끊고 우리 앞에 새로 던져진 교회의 문제에 응답하는 길로써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 배울 것을 권면하십니다. 복음의 메시지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구현이 우리 교회 안에서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이루어지기를 바라십니다. 여성에 대한 잘못된 역사와 행위들, 성경 본래의 의도와 목적,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사역이 모든 인간을 자유하게 하고 누구나 하나님 앞에 품위 있게 서서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 지금 바울이 우리 교회에 서신을 보낸다면 그렇게 권면하지 않았을까요?

## 생각해 봅시다

1. 성령 강림 사건 이후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생각나는 여성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어떤 역할을 담당했습니까?
2. 우리 교회에서 여성은 어떤 역할과 직분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여성에게 부여된 칭호와 의미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만약 여러분이 여성에 대한 칭호와 역할을 구성한다면 어떻게 할지 생각해 봅시다.
3. 교회의 주요 현안들, 예를 들어 재정, 목회자 선정, 선교, 봉사, 교육, 직분, 송사 등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여성의 참여 비율과 의견 반영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남성과 여성의 교회 참여와 역할이 적당한지 자유롭게 의견을 나눕시다.
4. 바울이 지금 우리 교회 현실에서 여성의 역할과 여성에 대한 억압과 종속에 알게 된다면 어떤 권면의 편지를 썼을지 생각해 봅시다.

## 성서, 교회 그리고 섹슈얼리티

### 생각 열기

#### 성경과 성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인 성경, 성경은 ‘성스러운 글’이라는 의미에서 영어로 홀리 스크립처(Holy Scripture)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바이블(The Bible)이라 하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전합니다. 이에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고백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와 진리를 추구합니다. 한발 나아가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사회에서 성경대로 살고자 노력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책을 성서라고 부르면 왠지 불경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든 성서든 모두 바이블입니다. 바이블이라는 단어는 책(Books)을 의미하는 헬라어 비블리아(Biblia)에서 기원한 것입니다. 비블리아는 양피지나 종이 이전의 서사 재료였던 파피루스를 수출하던 레바논의 비블로스(Byblos)라는 항구 도시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러니 성경이나 성서나를 구분하는 것이 말씀의 본질을 경시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이러한 우를 얼마나 많이 행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교인들에게 인간 사회의 규범과 행위를 강요하고, 나와 다른 너를 정죄하고,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고 차별하면서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성서는 파란만장한 역사의 현장에서 유대 민족이 고백하는 하나님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담은 책입니다. 이것은 예수 시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서는 철저하게 역사적이고 사회적 산물로서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핍박당했던 유대인들의 처절한 삶을 전합니다. 그들은 제국의 폭력적 지배에서 민족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 정결례와 율법을 엄격하게 준수하며 고군분투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율법과 제도가 도리어 낮고 작은이들을 죄인으로, 낙오자로, 부정한 자로 규정하고 배제시켰습니다. 이것을 목도한 예수는 억압받는 이들에게 주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선포했습니다(눅 4:19). 이렇듯 성서는 유대인들의 역동적인 삶과 신앙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이고 고정된 의미만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성서를 해석하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합니다. 그러하기에 성서가 특정 민족의 역사라는 내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과 희망을 전하며 인간 공동체의 가치와 윤리의 토대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性)이 다르다는 이유로 교회에서 차별받고 억압받으며 배제당하는 것이 정당한 일일까요? 이것이 진정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가치일까요? 여기서는 지금 우리 교회 현실에서 “성서, 교회 그리고 섹슈얼리티”의 주제를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 교회와 남성: 그리스도, 교회 그리고 남성

일부 교회는, 아니 정확하게는 대부분의 교회는, 교인들에게 성서를 의심 없이 믿고 순종할 것을 강권합니다. 성서의 권위가 곧 교회의 권위이자 하나님의 권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제도화되고 로마 제국의 종교가 되면서, 이후 서구 유럽의 지배 종교로 사상과 문화의 근간을 형성하면서 성서는 권력 집단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 교회, 목회자는 남성이었습니다. 높고 거룩한 강대상 위에서 빛나는 영광을 차지하고 있는 권력과 권위는 모두 남성의 이미지와 남성의 목소리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과정은 오히려 그 반대였다는 사실을 상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권력자들이나 강자들과 대적하고 힘없는 자들, 약하고 낮은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 누구의 눈으로 성서를 읽을 것인가? 누구의 목소리로

성서를 말할 것인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세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문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서 해석의 주도권은 교회, 남성, 목회자에게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성서를 해석하고 가르치며 전파하는 것은 당연히 남성의 몫이라 여겼습니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교회와 성서의 가르침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남성 중심적이고 남성 주도적인 사고와 규범과 제도로 진행되었습니다. 성서는 그리스도, 교회, 남성 그리고 여성이라는 위계가 유일하고 정당한 질서인양 제시했고(골 3:18, 엡 5:22~24, 딤후 2:11~12), 이에 대해 교회는 전체의 맥락에서 본문을 파악하기보다는 문자 그대로의 말씀을 설파하면서 교회의 권위를 강화했습니다. 즉 남성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교회의 대변인이자 권위자라고 말입니다.

## 교회와 여성: 마리아 VS 하와

전형적인 가부장제 사회에서 그리하듯, 여성은 가정이라는 사적 공간에서 딸, 누이, 아내, 어머니,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다시 말해 여성은 남성의 보호와 지배를 필요로 하는 의존적이고 종속적인 존재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프랑스의 사상가 시몬 드 보부아르는 『제2의 성』에서 “여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자로 만들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의 여성은 어떠한가요? 교회, 남성 그리고 여성이라는 위계질서에서 여성은 제3의 존재였습니다. 창세기 기자(창 1:27)와 바울(고전 11:11~12, 갈 3:28)은 대놓고 여성과 남성은 존재론적으로 동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교

회의 강력한 가부장적 경향성은 여성에게 두 가지 선택지만을 주었습니다. “순결하고 정숙한 성녀 **마리아**가 될 것인가?”, “의심하고 질문하며 남성을 유혹하는 타락한 존재인 **하와**가 될 것인가?”

새벽 예배와 금요 철야에서 만나는 신실하신 여권사님들부터 매주일 앞치마를 하고 예배 후 식사 봉사에 헌신하는 여집사님들, 밝은 얼굴로 찬양대에 임하는 청년 자매들, 교회학교에서 헌신하는 자매 선생님들까지, 교회에서 만나는 여성들은 어떤 지위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이런 풍경은 너무나 익숙하기에 여기서 다른 의견이나 비판을 제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경건하고 교양 있는 교인들이 많은 교회일수록, 여성은 자연스럽게 신앙으로 현숙한 마리아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와를 선택한다면 아마도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반면 남성은 성서를 해석하고 교회 예배를 인도하면서 가정에서 가장으로, 교회에서 지도자로서의 위치를 공고하게 다집니다. 그리고 사회에서도 같은 지위와 역할이 기대됩니다. 흔히 교회에서 말하는 ‘가정이 바로 서야 교회가 바로 선다.’라고 할 때 가정의 모습, ‘하나님의 축복받는 가정’을 떠올릴 때 가정의 모습은 언제나 가부장 사회의 권위가 확립된 가정, 즉 지금 여러분이 머릿속에 떠올리는 ‘바로 그 모습’일 것입니다. 계급, 출신, 성별을 떠나 능력 본위의 21세기 사회에서도 여지없이 말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문화와 제도는 소위 하나님의 구원과 진리의 구현이라는 명분으로 모든 영역에서 여성의 예속적 위치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했습니다. 우리는 1) 성서의 메시지와 2) 교회에서 보이지 않게 강요하는 기대와 역할 그리고 3) 현재 나의 삶 사이에서 일어나는 부정의와 불평등 그리고 차별과 편견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습니까? 성(性)에 대한 우리의 이해

와 인식 위해 다음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 기독교와 섹슈얼리티: 남성성 VS 여성성

성(性)은 섹스, 젠더, 그리고 섹슈얼리티로 구분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생물학적으로 구별되는 성(性)인 **섹스(Sex)**는 재생산 즉, 출산과 관련된 것으로 여성(Female)과 남성(Male)을 구별하는 기준입니다. 또한 후천적으로 교육되는 성, **젠더(Gender)**는 생물학적 성(섹스)을 기반으로 여성성(Femininity)과 남성성(Masculinity)을 결정하는 사회적 기준입니다. 젠더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결과물로서 한 사회 내에서 성별에 따라 기대되는 성적 기질과 역할 그리고 지위 등을 의미합니다. 소위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에 대한 생각과 태도를 말합니다. 나아가 개인의 성적 욕망과 취향(정체성) 뿐만 아니라 성에 대한 사회적 관행과 제도 그리고 규범을 아우르는 포괄적 개념이 **섹슈얼리티(Sexuality)**입니다. 흔히 섹슈얼리티라 하면 성적 욕망에 국한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더 넓은 의미에서 “성에 대한 모든 태도와 담론”을 아울러 말합니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생물학적인 성인 ‘섹스’와 사회 문화적인 성인 ‘젠더’ 그리고 개인과 사회적 범주에서 성과 관련된 모든 이슈인 ‘섹슈얼리티’는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가령, 한 가정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딸이냐 아들이냐에 따라 분홍과 파랑 등 특정 색의 옷을 입히고, 갖고 노는 장난감이 달라집니다. 성별에 따라 어떤 행동과 몸가짐을 취할 것인지, 어떤 언어와 감정을 표현하며, 어떻게 타인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다르게 교육합니다. 남자는 자신의 감정을 쉽게 드러내면 안 되고, 호전적이고 진취적이어야 하며 사교적이거나 외향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집니다. 그들에게는 사회적 책임과 의무가 지워지며 어느 자리에서든 이성적이고 주체적으로 행동하며 이에 부응하는 역할 기대와 임무를 감당하게 됩니다. 반면 여성은 감정적이고 관계적이며 의존적이기에 외향적이기보다는 내향적으로 처신해야 합니다. 타인, 특히 남성과 연장자를 보조하며 수동적이고 조신한 태도가 여성의 미덕으로 여겨집니다. 그들은 남성 혹은 잠재적 남성 보호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 외모를 가꾸어야 합니다. 성적 욕망은 남성의 전유물인 양 인정되는 반면 모성은 여성의 천성인 양 혼용됩니다. 전통적으로 남성의 소유물로서 여성은 위와 같은 남성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데 기여합니다.

사회에서 여성성과 남성성은 교육, 결혼, 인간관계, 사회생활의 물리적 제도는 물론이고 한 개인이 사고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모든 방식에서 엄격한 제약과 규율로 작동합니다. 소위 요즘 말로 남성에게 지워진 ‘맨 박스’<sup>3)</sup>와 여성을 얽어매는 ‘코르셋’<sup>4)</sup>이 바로 그것입니다. 가부장제 사회는 실은 사회적 규범과 제도를 통해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에게도 고정된 사고와 감정, 언어와 행동까지도 통제해 온 것입니다. 이렇듯 전통적인 가부장제 사회에서 형성된 섹슈얼리티는 특히 교회 제도와 문화 속에서 더욱 뿌리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

3) 『맨박스(남자다움에 갇힌 남자들)』(한빛비즈, 2016)는 토니 포터가 쓴 책으로, 일반적으로 “맨박스”라 하면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에게 강요된 역할뿐만 아니라 남성다움과 그 태도를 의미한다. “남자는 울면 안 돼”와 같이 남성에게 부과된 고정관념과 편견을 이야기한다.

4) 여성의 몸매를 부각시키는 꽉 조인 속옷인 ‘코르셋’은 여성에게 강요된 고정된 시선과 편견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요즘 ‘여성다움’이라는 사회적 정의를 거부하는 움직임을 ‘탈코르셋’이라고 부른다.



<http://bitly.kr/yUsm>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교육받고 사회생활을 하며 공동육아와 재산 분할이 가능한 시대에서 이와 같은 사고방식이 진부한 옛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탈코르셋, 탈갑옷 운동이 진행되는 지금 성차별을 말하는 것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일까요? 그러나 연일 보도되는 미투운동과 위드유 운동을 비롯하여 여성혐오에 대항하는 다양한 운동들이 다름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얼굴입니다. “불편한 용기가 세상을 바꾼다”라는 구호로 많은 여성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 그동안 여성을 타자화하고 대상화했던 이 사회에 뜨거운 활시위를 당겼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기독교는,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는 섹슈얼리티에 대해 얼마나 열린 공동체일까요.

먼저, 우리 교회 교인의 남녀 비율을 생각해 봅시다. 구체적으로 매주 주일 예배에서 사회, 기도, 그리고 설교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의 주요 직제에서 여성과 남성의 비율 그리고 연령대별 구성은 어떠합니까?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라는 교회 구조에서 그 역할과 중

요도 그리고 성별 비율을 생각해 봅시다. 교회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목소리는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예배, 찬양, 선교, 행정, 재정, 교육, 식사, 교제, 그리고 목회적 돌봄이라는 각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고 공지되며 진행되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이러한 질문에 대해 “우리 교회는 여성과 남성이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합니다”라고 자신 있게 답하는 교회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이른바 이름있는 교회나 대형 교회일수록 말입니다. 여전히 한국 교회는 독보적으로 ‘남성이 중심’이 되고, ‘연장자가 지도자’가 되는 가부장제도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성서와 교회 안의 섹슈얼리티에 대해 얼마나 예민하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 내가 속한 신앙 공동체, 나아가 한국 기독교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성차별에 대해 얼마나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성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모두의 문제이자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진리와 자유를 추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아래 보도 내용을 확인하면서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경험한 성차별 문제를 함께 나누기 바랍니다. 성서 안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 침묵했던 소리 혹은 깨어있지 않았던 소리에 주목하면서 기독교의 성차별, 섹슈얼리티에 대해 성찰하고 질문해 봅시다.

## 현장 이야기: 교회 내 성차별

인터넷 신문 <뉴스앤조이>는 2017년 3월 17일부터 24일까

지 일주일간 ‘교회 내 여성혐오’에 대해 설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은 페이스북을 통해 진행되었기 때문에 20~30대 여성 참여자들이 상당수이지만, 설문 결과는 현재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는 성차별과 한국 기독교에 만연한 성에 대한 이중적 태도를 여실히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보도 자료를 확인하면서 교회 내 성차별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성찰합니다.

‘교회 내 여성혐오’의 설문 문항은 1) 교회나 기독교 단체에서 여성혐오 경험 유무 2) 직접 경험했거나 알고 있는 사례의 종류 3) 여성혐오 경험 후 대처법과 그 이유 4) 여성혐오와 관련해 교회에 바라는 점으로 간단했습니다. 응답자 353명 중 여성은 295명(83.6%), 남성이 54명(15.3%)이었고, 연령대는 20대가 245명(69.4%), 30대가 82명(23.2%) 순이었습니다. 설문 결과 전체 응답자 중 83.3%(294명)가 교회나 기독교 단체에서 여성혐오를 경험했으며, 10.5%(37명)는 직접 경험하지 않았지만 해당 사례를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여성혐오를 경험한 적 없다고 답한 사람은 6.2%(22명) 뿐이었습니다.

여성혐오 사례로는 1) 외모·복장·나이를 언급하는 문화(79.3%) 2) 성 역할 고정 및 차별(67.4%) 3) 여성 차별 설교(47%) 4) 기타(1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문 분석 결과, 대다수가 교회에서 세 가지 사례를 모두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sup>5)</sup>

구체적으로 여성들이 교회와 기독교 단체에서 경험한 성차별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아래 사례들이 비단 특정 교회나 단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들을 읽으며 교회 내 여성혐오와 성차별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

5) 「이것이 ‘교회 내 여성혐오’ 아무 말 대잔치다», <뉴스앤조이>, 2017.03.25.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09845>

## 1. 외모·복장·나이를 언급하는 문화

"교회에서 직분자가 처신을 이야기하면서,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의 죄도 중하지만 여성들이 복장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어요."

"기독교 단체 첫 수련회에 가기 전, 단체 카톡 방에 공지 사항이 올라왔어요. '자매들은 짧은 옷을 삼가 달라. 그것이 배려이고 지혜로움이다'라고 했어요."

"학교 선생님이, 여자가 교회에 짧은 치마를 입고 오면 그 여자로부터 어두운 기운이 흘러나와 교회를 어둡게 만든다고 설명했어요. 또 대학 다닐 때는 짧은 치마를 입었다고 선교 단체 리더들에게 하루에 3번 불러가 혼나기도 했습니다."

"찬양팀 싱어였는데, 연습 시간에 찬양 인도하는 목사님이 저를 보며 글래머러스하다고 말했어요. 그 자리에 있던 팀원들이 저를 위아래로 쳐다보는데 매우 수치스러웠어요."

"이름을 부르면서 'OO는 빵빵해서 좋다'고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사역자도 있었고, '커피는 젊고 예쁜 OO가 좀 타 줘야지'라고 말하는 사역자도 있었습니다. 저도 사역자인데 이런 대접을 받는 게 참..."

## 2. 성 역할 고정 및 차별

"교회 주방에는 대부분 결혼한 여성들이 일해요. 가끔 일하는 남성도 있는데 그 남성들은 교회에서 센스 있는, 혹은 칭찬할 만한 남성으로 불립니다."

"여자 신학생입니다. 목회를 꿈꾼다고 했을 때 무시당했어요."

"청소년부 시절 전도사님이 나에게 여자는 신학교 가면 안 된다고 했어요."

"남성 장로나 남성 전도사는 단상에 올라와도 되지만 여성 전도사는 안 된다고 했어요."

"교회에서 회장을 맡았는데, 집사님이 '어, 여기는 여자가 회장이네?'라고 말했습니다. 청소년부 임원 선출할 때, 어떤 사람이 여자가 청소년부 '회장'을 하기에 너무 약하니까 부회장 하자고 발언했습니다."

"전도사 면접 보러 가면 교회에서 '애는 누구한테 맡기고 사역하느냐'는 질문을 처음으로 받아요. 남편도 전도사지만 그런 질문은 받지 않아요. 남편 교회에서는 제가 육아에만 전념한다고 알고 있고요."

"여성인 제가 선임 목사인데, 식사 시간에 후임 남성 목사는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권사님이 갖다 바치라고

명령하니 저는 후임 목사에게 식사를 가져다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모(목사 아내)는 목사가 성관계를 원하면 들어줄 의무가 있다고 했어요. 목사가 다른 곳에 가서 딴 짓하면 안 된다면서.”

“남성들이 축구나 족구 등 경기하면 여성들이 당연히 또는 반강제적으로 간식을 싸서 응원 갔습니다.”

### 3. 여성 차별 설교

“목사가 설교 도중, 여자는 남자를 돕기 위해 만들어졌고 남자는 자신을 도와주는 여성을 사랑하게 된다고 말했어요. 불행히도 요즘 세상은 맛별이하지 않고서는 먹고 살 수가 없어 여자들도 직장에 가서 일하는데, 직장에서 남성들을 돕다 보니 불륜이 많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여성이 원죄의 이유이기에 잠잠해야 하고, 가르치는 직분을 맡으면 안 되고, 특히나 남자들을 가르치는 일은 못 하게 했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칩니다. 바로 그 전 구절에 '서로' 순종하라고 나와 있는데도 저녁 메뉴 정할 때 남편의 말을 따르라고 합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교에서 목회자가 이슬람을 예로 들며, 여자는 아이를 많이 낳아야 전도와 포교에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경력이 단절될 염려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도우실 문제이니 그저 믿고 아이 많이 낳으라고 했습니다. 이어 여자들이 소리 내어 아이를 많이 낳겠다고 서약하게 했습니다."

#### 4. 기타

"부목사님이 저를 불러 페미니즘 공부하는 여자들은 맞고 산다고 했어요."

"사역을 함께 잘해야 한다는 이유로 직접적인 성추행을 했습니다. 거부하니 썩스러워서 그러는 것으로 받아들여버렸어요."

"전도사에게 성폭행 피해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중보 기도한다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려 '2차 가해'를 했습니다."

위의 답변과 함께 설문문에 답한 여성들에게 이러한 경험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물었습니다. 응답자 중 8.2%(27명)만이 혐오 표현의 당사자에게 직접 이의를 제기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48.5%)은 아예 대응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37.5%(123명)는 공동체 구성원과 이에 대해 대화를 나

봤다고 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이유로는 “이야기해 봤자 소용없을 것 같아서, 말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까 봐, 목사가 한 말이 당연한 것인 줄 알아서, 혹은 무섭고 문제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당시에는 페미니즘을 몰라서” 라고 답했습니다.

이 설문 조사는 교회 내 여성들의 역할, 임무 그리고 위치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여성은 여전히 남성보다 열등하고 수동적인 존재로서 남성에게 의존하거나 남성을 보조해야 데 머물러야 합니다. 또한 여성은 성적으로 대상화된 존재로 남성의 욕구를 만족시켜주거나 혹은 가정을 유지하는 출산의 도구로 간주됩니다. 전적으로 여성은 남성에게 타자화된 존재로 교회는 가부장제 역사가 오랫동안 구축해온 여성혐오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위의 사례와 함께 여러분이 속한 신앙 공동체는 여성혐오와 섹슈얼리티에 있어서 어떤 태도와 지향점을 갖고 있는지 나누어 봅시다.

## 교회와 섹슈얼리티

그렇다면 교회는 성담론, 즉 섹슈얼리티를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첫째, 교회는 될 수 있는 한 성에 대한 진지한 담론들을 자제합니다. 성은 민감한 개인 문제로 여기기 때문에 아예 거론하지 않거나 공론화하지 않습니다. 섹슈얼리티에 대한 가치관과 규범을 공적으로 말하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의 저항을

일으키거나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담론은 일종의 금기 사항입니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교회 내 성희롱과 성폭력 문제를 비롯하여 교인 간 교제나 결혼 생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침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혹시 문제가 생겼다면 은밀하게 처리하되 개인 문제로 한정하고 드러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성문제가 부정적인 것이기에 교회는 공동체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이유로 이를 조용히 덮어두고 말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차별적 설교를 비롯하여 각종 여성혐오와 비하 발언들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계속됩니다. 가부장제 문화에 젖어있는 사람들은 여성의 외모, 의복, 몸가짐에 대한 자신의 인식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의 발언이 권위자나 연장자로서 여성과 젊은이를 올바르게 지도하고 교육시키는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나 혐오 발언이 공동체나 일의 분위기를 활기 있고 재미있게 유도하는 방식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교회 문화는 젊은 여성들이 교회를 부정하고 떠나게 하는 원인입니다.

이렇듯 기독교에서 일어나는 여성혐오의 제일 큰 원인은 이것이 문제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과 태도는 남성뿐만 아니라 가부장적 사고를 내면화한 여성도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성은 자신의 시각이 아니라 이미 남성 편향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보며 자신을 점검하는데 익숙해 있습니다. 때로는 여성이 더욱 여성을 불신하고 억압하며, 여성의 지도력과 존재를 스스로 거부하기도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남성의 성폭력과 성문제에 있어서도 인간적인 일이나 남성 본성상 어쩔 수 없는 실수로 너그럽이 용인되고 넘어갑니다. 그것은 남성 목회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성은 성 문제의 피해자인 경우에도 성적으로 방만하거나 잘못된 인간으로 취급받고 나아가 문제의 원인 제공자로 여겨집니다.

셋째, 여성혐오를 경험한 이들이 목회자나 직분자에게 대응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교회의 권위를 거부하고 질서를 깨뜨리는 일로 간주됩니다. 우선, 교회는 가부장 제도의 수혜를 뿌리까지 받고 있으며 또한 믿음과 신앙으로 구원을 바라는 이들의 영적 공동체를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문화에서 영과 육을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는 성은 육적이고 사악한 것 그리고 여성적인 것이라는 의식 구조 위에서 전개됩니다. 그러니 영적 공동체인 교회는 육적이고 열등한 여성에게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 인내하며 순종함으로써 헌신하는 미덕을 강요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가부장적인 교회는 이처럼 여성을 원죄가 있는 존재, 그래서 남성에게 순종하고 거룩하게 행하며 아이를 낳음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참고: 사실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그 다음에 하와가 지음을 받았습니니다.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서 죄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지니고 정숙하게 살면, 아이를 낳는 일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딤편 2:13~15).

넷째, 교회는 성적 방종과 타락을 정죄하는 경향이 강하고 동시에 여성에게 순결을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목회자의 설교, 교회 학교의 교육, 주중 구역 예배와 속회와 같은 목회적 돌봄 행위, 그리고 각종 성인 교육 프로그램들은 경건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규범을 가르칩니다. 가르침의 중심 주제는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사회의 안녕과 평화를 유지하는 것으로서 교회는 가정의 질서와 성적 순결을 기본으로 여깁니다. 기독교인은 타락한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구원과 성화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를 사랑의 가부장적

질서 위에 세워진 순결한 가정에서 발견합니다. 어린이 교육이나 부부 학교, 아버지 학교, 새신자 교육 프로그램들은 웅당 혈연 가족을 중심으로 한 성결하고 거룩한 공동체의 이상을 전합니다. 때로는 별거, 이혼, 재혼 등 가정의 위기와 혼란을 두려움과 실패로 간주함으로써 젠더적 위계질서를 더욱 강화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공존하는 지금, 혈연과 가부장제 중심의 전통적인 가족만이 정당하고 축복받은 가족이라는 생각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한부모가족을 비롯하여 다문화 가족, 비혈연 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 기독교와 기독교인의 과제

31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32 진리를 알게 될 것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요 8:31~32)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의 메시지와 행적은 매우 급진적이었습니다. 그분은 1) 억압받는 유대 민족의 현실을 직시하고, 2) 삶의 한복판에서 아픈 자, 배제된 자, 약한 자, 눌린 자와 함께 아파하고 고뇌하며 3) 잘못된 사회 구조에 대해 따져 물었으며 나아가 4) 대안적 삶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죽기까지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가신 길을 되짚어보면서 한국 교회에 만연한 여성 억압의 가부장적 권위 구조와 여성혐오를 해결할 실마리를 예수

의 삶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요한이 이야기하듯, 예수는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를 아는 것” 나아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종속과 억압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나와 피조 세계를 인정하고 긍정하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YWCA의 목적에도 나타나듯이 여성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평화·창조질서의 보전(保全)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어느 자리에서든 누구에 의해서든 대상이 되고, 억눌리며 예속되어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권위를 독점하고 누군가를 지배하고 억압해 왔다는 것은 예수의 진리를 알지 못함이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교회 내 깊이 뿌리박힌 가부장제의 문화와 이로 인해 여성이 억압받고 배제당하며 대상화된 역사, 다시 말해 여성혐오의 역사는 다시금 예수의 삶을 따라 예수의 진리를 알고 실천함으로써 극복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가 그랬던 것처럼, 첫째,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지금 나의 경험과 우리 공동체 안의 경험이 여성을 억압하고 차별하는 것인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부장제도는 오랜 시간을 통해 우리 안에 내면화되었기 때문에 여성조차도 자신의 생각이나 언어 그리고 행동이 왜 문제가 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을 타자로 인식하고 구별하여 차별하고 배제하는 발언과 행위만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자리한 사유방식부터 회의하고 성찰하는 것이 먼

저 일어나야 합니다.

둘째, 이를 위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유교 사회에서 우리의 교육 방식과 교회에서 믿음의 척도는 기존의 질서를 의심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하여 연장자의 행동이나 권위자의 말에 대꾸하고 토를 다는 것이 제일 불손한 행위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성경에 감히 의구심을 갖고 질문하면 믿음 없고 체험 없는 교인이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럼에도 의심 많은 도마처럼 우리는 모든 사건과 언어와 행위의 이면을 확인해보고, 의심하고 회의하고 질문해야 합니다. 그래야 묻혀있고 억압받고 침묵했던 이야기들이 터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성으로 진리를 깨우쳐 아는 참 제자의 의무감으로 우리는 교회 현실에 응당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셋째, 유쾌한 수다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질문과 대화가 자유로이 오가며 여성의 자기 경험을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신앙은 혼자 가는 수도자의 과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 개인의 영혼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낮고 작은 자들과 나와 너,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합니다. 심지어 새벽이슬을 맞으며 푸른 잎을 키워내는 보잘것없는 작은 풀에게도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인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고 이를 통해 잘못된 사회 구조를 바로잡고 눌린 자들을 해방하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맛볼 수 있는 모체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동체 안에서 성서를 새롭게 읽고 해석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생수를 길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야 합니다.

넷째, 성서를 새롭게 읽으며 우리의 언어를 발견해야 합니다. 기존과 같은 생각, 반복된 행동이 아니라 새로운 눈으로 성서와 교회와 삶을 읽어내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누군가를 배제하

고 억압했던 일들을 넘어서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누군가를 배제하고 억압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상처를 회복하며 쓰러진 자를 일으키며 나와 다른 너를 함께 세우는 일을 가능하게 하는 포용적이고 공감적인 언어를 발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여성 스스로 부정했던 자기 존재를 발견하고 긍정하는 작업을 서로 함께 지속해야 합니다.

다섯째, 다른 이에게 대해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당신에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우리는 혈과 육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다른 이들과 걸으며 그 안에서 마땅히 자유와 평화와 조화를 누려야 하는 이들입니다. 다른 이들과 길을 걷는다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작고 쉽습니다. 다른 이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는 것, 예수가 그러했듯이 말입니다. 타자화되고 억압받은 여성들, 깨어지고 상처 받고 절망한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같은 길을 걷고자 노력하는 것. 그러한 소통과 연대가 그리스도인이 가야 하는 길이 아닐까요? 그것이 예수 전하는 지금 여기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아닐는지요? 바울이 전하는 기쁨의 소식에는 계급, 인종, 성차, 수저색이 필요 없습니다. YWCA의 여성들의 머리와 가슴과 행동에, 나아가서 우리 교회 현실에 이러한 복된 소식이 울려 퍼지기를 고대합니다. 그래야 진정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맞보지 않겠습니까?

## 생각해봅시다

1. 교회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시선과 대우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여성에 대한 부당한 시선과 대우를 가한 적이 있습니까?
2. 우리 교회의 마리아와 하와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교회 상황에서 마리아와 하와에 대한 선택은 자발적 선택일까요? 강요된 선택일까요? 지금 교회 현실에서 마리아와 하와를 재해석한다면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까?
3. 교회에서 성 담론과 태도(섹슈얼리티)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를 두고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4. 교회에서 여성혐오와 성폭력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 김기동은

<제1과 기독교여성주의 성경읽기란?>과 <제2과 여성, ‘창조질서’의 키워드>를 집필하였다. 현재 인도네시아 압디엘신학대학에서 강의하면서, 스마랑한인교회를 섬기고 있다. 이화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 학부 및 대학원을 졸업하였고 평택대학교 피어선신학전문대학원에서 철학박사(구약성서신학)를 받았다. 서울여대, 계명대 등에서 강의했었다. 논문으로는 『인간통치의 거부로서 하나님의 통치』(박사학위논문), 「이스라엘, 구약, 그리고 여성」, 『새가정』(2008), 「구약의 사람들」, 『새가정』(2010) 등이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생활하면서 이슬람사회를 새롭게 경험하면서 관심분야는 성서, 기독교의 유의미성, 이주민, 여성의 삶 등이 있다. 2017년 초 인도네시아로 이주하기 전 한국YWCA연합회 실행위원으로 활동하며 생명비전연구소 위원 및 위원장으로 정의, 평화, 생명포럼을 주관하였고, YWCA정론지 『여·세』의 편집책임을 맡았다.

## 박혜경은

<제3과 여성, ‘언약’의 주인공들>과 <제4과 성서 속 여성 리더십의 모형 - 질문하는 여성들>을 집필하였다. 현재 대만 장영대학교 신학과 조교수로 강의하고 있으며, 이화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 학부와 대학원을 졸업하였고, Claremont Graduate University에서 구약학을 전공하였다. 저서로는 『Why Not Her? A Form and Literary Critical Interpretation of the Named and Unnamed Women in the Elijah and Elisha Narratives』(Peter Lang, 2015), 『God's Words in God's World: A Contextual Application of Asian Biblical Theology』(PTCA Series No. 16, 2018)이 있고, 논문은 「디아스포라 여성의 지혜 -고려인 여성의 ‘삶’으로 읽는 잠언 31장」, 『Canon& Culture』(2015 가을), 「정의를 향한 ‘그린 리더십(Green Leadership): 이 사야 11장 ‘한 싹’과 한국 민담 ‘해와 달’ 이야기의 해석학적 대화」, 『종교와 정의』(도서출판 동연, 2015), 「잠언 8장의 여성 지혜와 안병무의 ‘선천덕’ 에 대한 해석학적 대화」, 『신학사상』 (2013 겨울), 「왕상왕하 재미있게 읽기」, 『새가정』(2012)이 있다. 관심분야는 구약신학, 아시아신학, 여성신학이다. 2013년 7월 YWCA에서 “김필레 선생 연구 - 페미니즘 교육 형성을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김필레 선생 리더십 연구 발표를 하였다.

## 송진순은

〈제5과 예수와 함께한 여성들〉, 〈제6과 초대 교회를 일으킨 여성들〉과 〈제7과 성서, 교회 그리고 섹슈얼리티〉를 집필하였다. 현재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으며, 이화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문학석사와 철학박사(신약신학)를 받았다. 저서로는 『혐오와 여성신학』(공저, 2018), 『성폭력, 성경, 교회』(공저, 2018 예정), 『한국교회 에너지 전환과 햇빛발전소 이야기』(공저, 2018년 예정)가 있고, 역서로 『가스펠 프로젝트-신약편1』(2018)이 있다. 또한 논문으로는 「요한공동체의 위기극복의 담론으로서 고별담론(요 14:1-31) 연구」, 「포도나무 이야기(요 15:1-11)에 반영된 요한공동체의 기억과 자기이해」 등이 있다. 관심분야는 복음서, 여성, 기억, 그리고 인문학적으로 성서 읽기이다.

## ■ 더 읽어 볼 책 ■

- 강남순, 『페미니즘과 기독교』, 동연, 2017.
- 구미정, 『성경 속 세상을 바꾼 여인들』, 옥당, 2012.
- 기독교반성폭력센터, 『미투 처치투 위드유 - 교회 성폭력 해결을 위한 가이드북』, 뉴스앤조이, 2018.
- 김지은·유연희·이경숙·이영미·이은애·채은하, 『여성이 읽는 성서: 구약성서개론』, 대한기독교서회, 2005.
- 레드퍼드 류터, 『성차별과 신학』, 대한기독교서회, 1985.
- 백소영, 『페미니즘과 기독교의 맥락들』, 뉴스앤조이, 2018.
- 우에노 치즈코, 『여성혐오를 혐오한다』, 은행나무, 2012.
- 유연희, 『이브에서 에스더까지』, 삼인, 2014.
- 이경숙, 『구약성서의 여성들』, 대한기독교서회, 2006.
- 임희숙, 『교회와 섹슈얼리티』, 동연, 2017.
- 최만자, 『여성의 삶 그리고 신학』, 대한기독교서회, 2005.
- 캐롤 A. 뉴섬, 샤론 H. 린지, 『여성들을 위한 성서주석』 대한기독교서회, 2012.
- 필리스 트리블, 유연희 역, 『하나님과 성의 수사학』, 태초, 1996.
- 필리스 트리블, 최만자 역, 『성서에 나타난 여성의 희생』, 전망사, 1989.
- 한국여성신학회, 『21세기 여성신학의 동향』, 동연, 2014.
- 한나 아렌트, 김선욱 역, 『예루살렘의 아이히만(한길그레이트북스 81)』, 한길사, 2006.